

2020 국제무예학술세미나

코로나19 팬데믹 : 무예의 대응과 그 미래
COVID-19 Pandemic : Martial Arts Response and Beyond

2020. **11. 12.(목) | 12 November** 2020
UNESCO ICM

주최 Host
주관 Organizer



후원 Sponsor



 YouTube

OVERVIEW

일시

Date

2020. 11. 12.(목) 10:00~15:20

12 November 10:00~15:20

장소

Venue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

UNESCO ICM,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주제

Theme

코로나19 팬데믹 : 무예의 대응과 그 미래

COVID-19 Pandemic : Martial Arts Response and Beyond

주최·주관

Host
· Organizer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UNESCO ICM

후원

Sponso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충청북도, 충주시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Chungcheongbukdo, Chungjucity

CONTENTS

인 사 말	G r e e t i n g s	4
세부일정	P r o g r a m m e	6
연사소개	S p e a k e r s	8
기조연설	K e y n o t e	10

세션 1	S e s s i o n 1	25
세션 2	S e s s i o n 2	55
세션 3	S e s s i o n 3	75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사무총장 **박창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왕래가 중단되고, 사람들의 일상은 멈춰선 듯합니다. 유례없는 교육 중단을 경험하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인류의 생활 각 분야가 많은 부분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교육 파괴의 규모와 속도는 유례가 없는 중대한 도전 이면, 장기화되면 교육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무예의 대응과 그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예 종목별 교수, 연구원, 무예교육 현장의 코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팬데믹에 대한 무예계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무예계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최적화된 무예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충주시에 새로 건립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의 첫 행사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현장 참가인원을 제한하였으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관심 있는 많은 분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위기와 새로운 상황 앞에서 이번 세미나가 무예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대응 역량을 키우며,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anghyun Park

Secretary General, UNESCO ICM

The COVID-19 pandemic is ravaging the entire world. Interactions between countries are halted, and so are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With the unprecedented disruption of education, human civilization has been hit hard in every possible aspect,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Secretary General Audrey Azoulay of UNESCO warned that “The destruction in education happening due to COVID-19 is an unprecedented challenge in terms of the scale of destruction and its rate. The prolongation of this crisis can be a serious threat to the rights for educ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UNESCO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ICM) is holding an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titled “COVID-19 Pandemic: The Response of the Martial Arts and Their Future.” In this seminar, expert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professors in different types of martial arts, researchers, and coaches will share their experiences of the martial arts communitie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y will also share their opinion on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the martial arts community, as this seminar serves as the ground for a new discourse to provide an optimized martial arts education model in the post COVID-19 era.

Even though we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holding a physical event, it is an important milestone for the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in Chungju, as the first event ever to be hosted in the facility. Even though we limited the number of people who could attend the event on site, we hope many interested people could join us through our live streaming.

We hope this will even serve as a good opportunity for us to think of the present and future of martial arts, develop our capabilities to cope with crisis, and find a new opportunity for the future.

Thank you!

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09:20 ~ 10:00	40'	등록	
10:00 ~ 10:15	5'	개회식	개회사 박창현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사무총장
	10'		참가자 기념 촬영
10:15 ~ 10:35	20'	기조연설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세션 1. 팬데믹과 무예의 대응 : 종목별 사례를 중심으로			
10:35 ~ 10:55	20'	발표 존 존슨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10:55 ~ 11:15	20'	발표 김주영 용인대학교 격기지도학과 교수	
11:15 ~ 11:35	20'	좌장 황승현 경북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토론 김두한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 강사 존 존슨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김주영 용인대학교 격기지도학과 교수	
11:35 ~ 12:40	65'	오찬 및 휴식	
세션 2. (기획세션) 리빙 헤리티지 시리즈 <전통무예> 출판기념회			
12:40 ~ 13:00	20'	발표 박성용 ICHCAP 정책개발실 실장	
13:00 ~ 13:20	20'	발표 산코 루이스 삼육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기고자)	
13:20 ~ 13:50	30'	좌장 박성용 ICHCAP 정책개발실 실장 토론 김수진 경북대학교 체육학(스포츠재활) 석사 임현경 고려대학교 체육교육 석사 산코 루이스 삼육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기고자)	
13:50 ~ 14:00	10'	출판기념회 기념촬영	
14:00 ~ 14:10	10'	휴식	
세션 3. 팬데믹 이후 무예의 미래 : 청년의 목소리			
14:10 ~ 15:10	60'	좌장 조현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발표 박지훈 용인대학교 스포츠웰니스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강유진 남창태권도장 수석사범 원창환 충주시립택견원 단원	
15:10 ~ 15:20	10'	폐회	

Time		Programme	
09:20 ~ 10:00	40'	Registration	
10:00 ~ 10:15	15'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 Changhyun Park Secretary General, UNESCO ICM Group Photo
10:15 ~ 10:35	20'	Keynote Speech	Gyeonggu Han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ssion 1 : Martial Art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 Case Study			
10:35 ~ 10:55	20'	Presenter	John A. Johnson Professor at Keimyung University
10:55 ~ 11:15	20'	Presenter	Juyeong Kim Professor at Young In University
11:15 ~ 11:35	20'	Panelists	Moderator: Seunghyun Hwang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ohan Kim Lecturer a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John A. Johnson Professor at Keimyung University Juyeong Kim Professor at Yong In University
11:35 ~ 12:40	65'	Lunch	
Session 2 : (Special Session) Living Heritage Series <Traditional Martial Arts>			
12:40 ~ 13:00	20'	Presenter	Seongyong Park Assistant Director General of ICHCAP and Director
13:00 ~ 13:20	20'	Presenter	Sanko Lewis Professor at Sahmyook University
13:20 ~ 13:50	30'	Panelists	Moderator: Seongyong Park Assistant Director General of ICHCAP Sujin Kim Master in Physical Education at Kyungpook University Hyeonkyeong Im Master in Physical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Sanko Lewis Professor at Sahmyook University
13:50 ~ 14:00	10'	Group Photo	
14:00 ~ 14:10	10'	Break	
Session 3. Martial Arts in the post COVID-19 world : Voices of Youth			
14:10 ~ 15:10	60'	Panelists	Moderator: Hyunjoo Cho Senio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Jihoon park Researcher of Yong In University SWRC Yujin Kang Senior Coach of Namchang Taekwondo Changhuan Won Member of Chungju City Taekkyeon Demoteam
15:10 ~ 15:20	10'	Closing	

연사소개

개회사 Opening Remarks



박창현

Changhyun Park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UNESCO ICM

기조연설 Kenote Speech



한경구

Gyeonggu Han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ssion 1

팬데믹과 무예의 대응 : 종목별 사례를 중심으로

Martial Art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 Case Study

10:35 ~ 11:35

좌장 Moderator



황승현

Seunghyun Hwang

경북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발표 Speaker



존 존슨

John A. Johnson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Professor at
Keimyung University

발표 Speaker



김주영

Juyeong Kim

용인대
격지지도학과 교수

Professor at
Yong In University

토론 Discussant



김두한

Doohan Kim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 강사

Lecturer a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리빙 헤리티지 시리즈 <전통무예> 출판기념회

(Special Session) Living Heritage Series <Traditional Martial Arts>

Session 2

12:40 ~ 13:50

좌장 Moderator

**박성용**
Seongyong ParkICHCAP 실장
Assistant Director General
of ICHCAP and Director

발표 Speaker

**산코 루이스**
Sanko Lewis삼육대학교 교수
Professor at Sahmyook
University

토론 Discussant

**김수진**
Sujin Kim경북대학교 체육학
(스포츠재활) 석사
Master in Physical Education
at Kyungpook University

토론 Discussant

**임현경**
Hyeonkyeong Im고려대학교
체육교육 석사
Master in Physical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팬데믹 이후 무예의 미래 : 청년의 목소리

Martial Arts in the post COVID-19 world : Voices of Youth

Session 3

14:10 ~ 15:10

좌장 Moderator

**조현주**
Hyunjoo Cho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Senio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발표 Speaker

**박지훈**
Jihoon park용인대학교 스포츠웰니스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Researcher of Yong In
University SWRC

발표 Speaker

**강유진**
Yujin Kang남창태권도장
수석사범
Senior Coach of
Namchang Taekwondo

발표 Speaker

**원창환**
Changhuan Won충주시립택견원
단원
Member of Chungju City
Taekkyeon Demoteam

팬데믹 상황과 평화를 위한 무예교육의 역할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문화인류학

들어가는 말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주최하는 국제무예 심포지엄에 기조연설을 요청 받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며 기쁨이다. 혹시라도 조직위원회의 마음이 바뀔까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수락을 했다. 기조연설 원고를 급히 작성해서 보내고 나서야 아차,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빠뜨린 것을 발견했다. 근대 이전에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던 천연두(smallpox)를 물리친 고대 한국의 무인(warrior) 처용(處容 Cheoyong)의 이야기이다.

팬데믹으로 무예의 수련과 교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무예 교육의 기반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며 4차산업과 팬데믹의 시대에 무예란 무엇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성찰해야 할 때에 처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것을 준다.

처용은 고대 신라의 최고의 엘리트 청년 기마무사 집단인 화랑(花郎, Hwarang, Flowering Knight)이었기에 “처용랑(處容郎 Cheoyong-rang)”이라고 하며 그의 설화는 현존하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유사 三國遺事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1280?)>에 기록되어 있다.

천연두는 1979년에 박멸되었다고 WHO가 공식 선언을 했지만 과거에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었다. COVID-19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치사율의 질병이었다. 서기 165년에서 180년까지 지속되었던 안토니우스 역병(Antonine Plague)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그리스의 의사의 이름을 따서 갈레노스 역병(Plague of Galen)이라고도 하는데 루시우스 베루스 황제와 5현제의 하나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황제의 목숨을 비롯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천연두는 이후에도 계속 창궐하여 251-266년의 로마에서는 매일 5천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이집트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 상당수 역사학자들은 천연두가 로마제국의 쇠퇴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천연두로 추정되는 역병이 151년부터 주기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했고 황건적의 난(Yellow Turban Rebellion)을 촉발시켜 후한(後漢 Eastern Han (Later Han) 25-220 AD)이 멸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한다. 8만의 정예군대가 수호하던 인구 700만의 잉카제국은 1533년 피사로(Pizarro, 1476-1541, Francisco Pizarro González)가 침공했을 때에는 천연두로 이미 인구가 50만명으로 감소한 상태였고 쉽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천연두는 너무나 무서운 감염병이었다. 근대 종두법이 등장하고 160년도 더 지난 1967년에만도 1천5백 만명을 감염시키고 2백만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으므로 근대 학문과 의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천연두귀신(smallpox spirit)의 소행으로 여기며 두려워했다. 처용의 이야기는 그렇게 무서운 천연두귀신이 신라의 화랑 처용에게 무릎을 꿇었고 다시는 처용이 있는 곳, 아니 처용의 초상화가 있는 곳에 조차 나타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한다.

처용랑은 원래는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당시 신라와 교역을 했던 페르시아 상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동해안 지방의 호족의 자제라고도 한다. 어쨌든 당시 신라의 왕(현강왕)은 처용을 처음 만나고 매우 기뻐하여 처용에게 상당히 높은 벼슬을 주었다. 처용은 화랑이 되었으며 매우 아름다운 여성과 혼인을 하였다.

화랑이란 신라의 엘리트 청년 무사 집단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함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문학과 예술에도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무예를 연마하여 전쟁에 나가면 용감히 싸웠다고 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친구를 믿음으로 사귄 것과 함께 살생을 함에 신중할 것, 전투에 임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다섯 가지 가르침을 지켰다.

고대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하던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 가운데 가장 약하고 낙후되어있던 신라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여 3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벼를 신뢰하고 신중하고 너그럽지만 싸움에 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화랑들 덕분이었다. 현대 한국의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가 스스로를 화랑대(Hwarang Heights)라 칭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때문이다.

처용랑(Sir Cheoyong)은 춤과 노래에도 매우 뛰어났다. 달 밝은 밤이면 무리들과 함께 밤늦도록 춤을 추었다는데. 그러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침상을 보니 아름다운 아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천연두 귀신이 처용랑의 아름다운 용모를 흠모하여 처용랑이 없는 틈에 사람으로 변신하여 처용랑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있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나중에 천연두 귀신의 언행으로 추측하건데 천연두귀신은 처용랑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처용랑의 아내를 속이고 동침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처용랑(Sir Cheoyong)은 사랑하는 부인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보통 사람 같았으며 당장 칼을 뽑아들고 잠들어 있는 남녀를 처단하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라의 엘리트 무사 집단의 일원이었던 처용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큰소리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서울 밝은 달에 On a bright moonlight night in the capital
 밤들이 노니다가 I come home late from carousing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In my marriage bed
 가랑이가 넷이도다. I see four legs
 둘은 내 아내 것인데 Two legs are my wife's
 둘은 누구의 것인가? And what of the other two?
 본디 내 것이지마는 Once these were mine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But they are now taken. What should I do?

처용의 노래와 춤에 잠에서 깨어난 천연두 귀신도 매우 놀랐다. 당대 최고 무사의 아내를 범하는 현장을 들켰는데 처용이 칼을 뽑은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으니! 이윽고 천연두 귀신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처용랑(Sir Cheoyong)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가 그대의 아내를 사모하여 이제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대는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행동에 감동했고 이를 아름답게 여깁니다. 맹세하건데 이제부터는 그대의 모습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열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온 나라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천연두를 물리치기 위해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대문에 붙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처용랑이 불렀다는 노래와 춤은 고려시대 들어와 왕실의 잔치에서 나쁜 귀신을 몰아내고 평안을 비는 춤으로 확립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처용무(Cheonyong Dance)는 2009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Cheoyongmu <https://ich.unesco.org/en/RL/cheoyongmu-00189>)

도대체 처용랑은 그러한 황당한 상황에서 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을까?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모습을 하고 집에 들어와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으니 매우 놀라고 화도 나고 슬펐겠지만 처용랑은 칼을 뽑지 않았다. 필경 무언가 곡절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동해 용왕의 아들이며 신라에서 화랑으로 뿔뿔 정도로 용감하고 뛰어난 무사였지만, 신중하고 지혜로움며 또한 아내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처용은 불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다. 엄청난 절제력과 용기로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던 것이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노래와 춤을 통해 묘사하고 한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에게 상황의 설명과 수습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일은 뛰어난 절제력과 확고한 자신감,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무예를 닦고 심신을 수련한 사람의 진정한 용기와 분별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처용의 행동에 못된 짓을 하던 무시무시한 천연두 귀신조차 감복을 하여 무릎을 꿇고 잘못을 뉘우쳤으며, 다시는 처용 앞에, 아니 처용의 초상화 앞에도 나타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한다.

처용의 설화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떤 전문가는 천연두귀신과 처용 부인의 동침은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천연두 감염이며 처용의 설화는 처용이 아내를 천연두로부터 구해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을 따르더라도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내를 구해내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처용랑은 무술 대결이 아니라 노래와 춤으로 천연두 귀신을 물리쳤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최고의 무사 화랑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시무시한 귀신과 전염병을 이겨낸 것은 단순한 무술 실력이 아니라 무예의 수련 과정에서 형성된 용기와 자제력과 신뢰인 것이다.

1. 모순 상황: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킨다고?

팬데믹 상황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큰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무예와 무예 교육은 특히 당혹스럽고 난감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무예는 기본적으로 자신 또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나 가치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폭력의 사용 또는 그 가능성의 시사를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폭력의 사용은 상대에게나 자신에게나 위험한 것이다. 누구나 위험에 처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대가 폭력을 행

사하려고 할 경우 적당한 수준에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아니, 적당한 수준에서 협상을 이끌어내고 폭력 사태의 발발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폭력적 대결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상대의 폭압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예와 무예 교육은 폭력 능력의 훈련만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벗어나고 폭력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용기를 함양하는 것이기도 하다.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는 개념은 단순히 전쟁이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없다고 하여 평화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나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이라는 개념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착취와 억압과 차별과 배제가 만연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화연구자들이 도입한 개념이다.

각종 현대 무기가 발전한 현대에서도 무예의 기본 정신과 이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위협의 감수 없는 ‘절대적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전투나 폭력 행사는 소중한 가치의 포기나 타협, 굴종과 예측으로 회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소극적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착취와 억압, 차별과 배제, 불의와 타자의 희생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소중한 사람과 가치와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협을 감수하는 용기와 준비가 필요하다.

칼이 짧아요.... 애야, 네가 더 가까이 다가가면 되지 않니?

무기를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이는 원한다고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또는 신체적으로 밀착하거나 접촉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

로마군 보병의 칼, 글라디우스(gladus)는 길이가 짧았다. 적군의 칼이 더 길다고 불평하는 아들에게 로마의 어머니는 “애야, 네가 더 가까이 다가가면 되지 않니?”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친엄마 맞아?”라는 불평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의미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예와 용기의 핵심을 가르쳐준 것이리라.

다가설 수 없는 상황

무예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적에게도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려다가는 오히려 안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접촉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코비드19 방역지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넓은 공간에서도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고 식당이나 영화관에서나 기차에서도 한 칸 띄어 앉으라고 한다. 그러한 상황이니, 거칠게 호흡을 하면서 얼굴을 마주대고 몸을 밀착시키며 맹렬히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상당수 무예는 기존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금물이다.

자신과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적에게 다가가라고 가르쳐온 무예는 코비드19 상황에서 엄청난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천하의 무예의 고수라도 코비드19 감염자를 상대로 무예를 펼치다가는 자신의 보호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상대를 제압한들 자신이 감염된다면? 팬데믹 상황에서 무예는 어떻게 전수하고 훈련하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인간 활동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무예는 코비드19 상황에서 가장 큰 모순과 도전에 직면해있다.

2. 반(半)공개된 시스템으로서의 인간의 몸

팬데믹 상황은 인간과 인간의 몸이 어느 정도 독립적, 자율적이지만 사실은 주변의 환경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미생물과 화합물을 교환하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체계라는 사실을 매우 난폭하게 환기시켜주었다. 인간의 신체는 피부로 둘러싸여 있다. 전 세계의 어느 문명이나 대개 그러하지만 특히 개인주의라는 이상을 발전시킨 근대 서구 인들은 자신의 경계가 피부이며 개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범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소위 ‘피부의 착각(dermal illusion)’ 속에 산다고 할까?¹⁾

그런데 팬데믹은 인간사회가 피부를 경계로 하는 독립적 개인들로 이루어져있다는 기존의 믿음과 관행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리의 몸은 주변의 다른 신체, 동식물들과, 미생물을 비롯한 각종 화합물을 교환하고 있지만 (Fuentes 2020), 우리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 외부의 대기를 받아들이며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분을 공급 받는다. 피부는 접촉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다른 인간이나 동물과 감정을 소통하며 눈은 빛의 자극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귀는 음파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다. 우리의 후각이란 각종 휘발성 화합물과 접촉하여 냄새를 맡는다.

우리의 피부는 많은 세균과 박테리아를 차단하고 있고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외부 미생물의 침입에 맞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균형은 매우 미묘한 것이며 무너질 수도 있다.²⁾ 파상풍처럼 피부에 생긴 상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질병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부패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 또한 주의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는 훨씬 더 예방이 어렵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감염되더라도 생명을 잃는 일은 예외적인 일로 간주되었었다.

그러나 코비드19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감염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으며 백신이나 치료제도 확실한 것이 개발되지도 않았다.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이 다수 보고 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3. 팬데믹으로 드러난 무예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코비드19 상황으로 무예가 극도로 위축되었지만, 팬데믹은 무예, 특히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무예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예절, 인내심, 자제심, 자존감, 용기 등 무예교육이 함양하는 덕목들은 감염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며 살아가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다.

전국의 태권도 학원 등이 일제히 문을 닫은 것은 상당수 가정과 부모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 부모의 입장

1) 피부의 착각(dermal illusion)은 일본을 연구한 인류학자인 로버트 스미스(Smith 1985: 37)에 의하면 Gregory Bateson이 “어디에선가(somewhere)” 자신의 감각이 피부에서 끝난다는 미국인의 개인주의적 시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한다.

2) 류충민(2019)은 “식물체계에서는 병원균이 있더라도 균형을 유지하면 병이 나지 않는다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병원균을 죽여 식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병원균이 균형을 지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에서는 방과 후와 휴일에 아이들을 맡아주면서 불충분하지만 그나마 아이들을 예절과 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던 곳이 사라진 것이다. 교육 현장 역시 큰일이다. 코비드19로 학교가 닫는 기간에 휴연 학생이나 게임중독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고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던 아이들인데, 코비드19로 닫았던 학교가 다시 열었을 때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리라. 선생님으로서 마음 놓고 꾸중할 수도 없으니 속앓이만 하게 될 것이다.

무예는 코비드19 상황에 대응하는데 매우 필요한 자질들과 태도를 함양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무예는 몸을 잘 알고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 둘째, 무예는 인내심과 절제심을 기른다. 참고 기다리는 것, 성장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의 구별 등은 무예의 수련에서 기본적인 것이며 자연히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무예는 자존감과 용기를 키워준다.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이를 발전시키고 훈련시키면서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직시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고 폭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그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방역의 커다란 문제는 당연한 사태에 응급 대응하느라 사태의 중장기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짧고 굵게’라는 방식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감염된 사람들과 방역과 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위험과 과중한 노동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역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오랜 격리와 규제에 따른 피로는 누적되고 있다.

감염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부나 시민사회나 생각조차 싫은 일이다. 그러나 이미 그 필요성은 드러나고 있다. ‘최선의 방역기술’이라고 하는 개인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에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김창엽 2020). 경제적 충격과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은 미흡하다.

무예의 전문가들은 감염 위험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걸핏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발동되고 집에 계속 갇혀있어야 하고, 어딘가 가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계속 청소년들을 집에 가두어두거나 것인가? 더구나 상당수 학생들은 집에서 쉬거나 놀거나 공부할 공간조차 마땅하지 않다.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책은 일단 감염의 차단, 확진자의 격리, 가능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은 논의되고 있으나 그 심리적, 정신적 영향에 대해서는 겨우 논의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양한 통제조치가 발동되었고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고 있다. 다만 금지와 규제가 장기화되고 끝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이 심각하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블랙’, ‘코로나 분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는 보도도 있다.³⁾ 정신적 심리적 문제, 문화적 욕구에 대한 대책 또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 못지않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무예교육을 강조하며 출범한 국제무예센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3) “격리엔 건물폐쇄 · 업무중단...대역적인 된다, 코로나 1호 공포” [중앙일보] 2020년 9월 7일

4. 무엇을 할 것인가?

4.1. 스마트한 거리두기와 방역 방식의 발전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더라도 또 다른 감염 질환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우리가 감염의 위험을 극소화하면서 어떻게든 일상의 상당 부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보다 스마트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태권도장도 열고 스포츠센터도 열 수 있어야 한다. 야외 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과거와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느 수준까지 큰 위험 없이 가능한가, 그 한계를 발견하고 활동의 허용과 금지를 가르는 동태적 균형을 잘 포착해야 한다.

무예 교육과 수련의 조심스러운 회복은 단지 경제적 타격으로 문을 닫고 있는 지역의 태권도장이나 스포츠센터를 살려 무예 관련 산업의 기반이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고 종사자들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무예 교육과 수련의 부활은 작게는 교육현장과 가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크게는 팬데믹의 장기화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4.2. 첨단 기술의 도입과 무예 교육과 수련의 발전

무예 교육과 수련 과정에 첨단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고 비대면 활동이 가능한 것들을 연구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예”란 대면으로, 몸으로 전수하는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전수해야만 하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무예의 전수와 연마, 대련과 시합에도 기술적 진보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 종목의 스포츠들은 첨단 과학 기술의 도움으로 일정 부분에서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전자오락이라고 폄하되던 게임은 당당한 스포츠 반열에 올랐으며 골프와 스키는 실내에서, 심지어는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이 되었다.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 AI의 도입, VR과 로봇의 활용 등 아직은 불만족스러운 수준이겠지만 기술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을 통해 무예 교육과 수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무한하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또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상상들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가능한 것들이 있다.

더구나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은 개인 격투와 집단 전투, 그리고 전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당수 학부모와 교육계 인사들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우려하고 PC방 출입을 못마땅해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다 좋은 게임을 보다 좋은 방식으로 즐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과거의 게임처럼 그냥 앉아서 눈과 손가락만 사용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어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게임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예 전문가들은 게임을 어떻게 잘 즐기고 심신의 단련과 교육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예 전문가들과 첨단과학기술 전문가, 감염질환 전문가,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 교육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 공동 작업이 필요하며 연구 개발비의 투입이 요청된다. 이 분야에서의 성취는 청소년의 교육에 기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소득 증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 맺음말

무예는 개인적 싸움 기술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무기와 조직의 비약적 발전으로 그 실질적 효능이 상대화되면서 그 정신적 수양과 교육적 가치가 다시 평가되고 강조되기 시작했다. 근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무예는 정신과 신체의 단련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전투의 효능이나 가치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마라톤이 근대에 등장한 것은 철도와 자동차의 등장 이후이며 조선의 궁술은 전투기술로 출발했지만 동시에 정신수양이었고 오락이기도 했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

일본에서는 전국시대에 총이 전래되고 대량으로 보급되어 실전에서 검술의 효능이 상대화되면서 오히려 도장(道場)들이 늘어나고 여러 유파(流派)가 성행했으며 메이지유신으로 사무라이 신분이 폐지된 다음에야 검도(劍道)가 확립되었다. 유술(柔術)이 유도(柔道)가 된 것 또한 대포와 군함이 등장한 다음이다. 무술(武術)이 무도(武道)가 된 것이다.

무예는 현대사회에서도 호신술로서 효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코비드19 시대의 무예 교육은 예절, 배려, 인내, 절제, 자존감과 용기 등의 덕목을 함양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다. 무예 교육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태권도 학원 등의 붕괴 방지나 생계 대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소년과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단기 대책 외에 장기적인 연구 개발과 함께 첨단과학기술 전문가 등과의 협력과 교류, 공동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코비드19 사태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면서 분노와 긴장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무예 교육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그 확대와 보급, 연구와 자원의 투입을 선도해야 한다. 폭력에 대한 이해와 폭력의 절제된 사용에서 비롯된 무예 교육과 수련이야말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도구가 아닐까?

The Role of Martial Arts Education for Peace during a Pandemic

Gyeonggu Han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ultural Anthropology

1. Contradiction: Protecting yourself by distancing?

Many human activities are now deeply affected by the pandemic. Martial arts and martial arts education in particular are facing a very embarrassing and frustrating challenge. The basic idea of martial arts is to protect oneself, his/her values and belongings by the used of controlled forces and the indication of the willingness of using such force, in order to subdue or neutralize the threat.

The use of force involves risks to the one who is using it, as well as the one at the receiving end of it. Nobody likes to be in danger. However, if the opponent is trying to use force or the negotiation is not going well, or, if it is necessary to have the opponent to negotiate and prevent violence,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risk a violent confrontation. Otherwise, you will not be able to protect what is important to you and see yourself submitting to the coercion of others. Martial arts and martial arts education also aim to help its students overcome the baseless fear of violence and cultivate the courage to respond to violence with composure.

The concept of positive peace reminds us that the absence of outright, direct use of force or war does not necessary mean everything is peaceful. The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or cultural violence was introduced by the researchers of peace to analyze and improve the situations plagued by exploitation,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without direct use of violence.

Even with modern weaponry and technology, the fundamental spirits and ideal of martial arts are still valid. There is no 'absolute safety' without any risk of threats. Compromise, submission, or obedience may help you avoid combats or use of force. This indeed may preserve your passive peace. However, this will involve exploitation, suppression, discrimination, injustice, and sacrifice of others. To preserve your loved ones and valuables, it is necessary to have the courage and be prepared to take risks.

If the knife is too short... Son, then you take one step closer to your enemy.

Some weapons allow you to deal with your enemies at a distance. However, this may not always be the case. There are many situations in which you have to come into contact with your enemy, sometimes even entangle with her at point-blank range.

A gladius, the standard-issue sword of Roman legions, was not long. When a man complained that his enemies had longer swords, his mother told him, “Son, then you take one step closer to your enemy.” Some may blame this wise lady to be cold. However, it could be that she was teaching her son the key to courage and martial arts.

When you can't get close enough

Martial arts demand that you find courage to approach a fearsome enemy when it is necessary to protect yourself and your loved ones. This means that keeping a distance from your enemy to stay safe may not keep you safe. Physical contact is almost always necessary.

However, there are now rules and regulations that keep people from other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They demand that you keep a distance from others even in a wide space. Seats are now separated further from others in restaurants or movie theaters. Therefore, many martial arts, which require you to be face-to-face with your opponents, press yourselves against one another, and come in wild physical contact, are prohibited by these disease control rules.

Martial arts, which have been teaching us to step up to your enemies in order to protect you and your loved ones, are now facing a significant contradiction. No matter how good you are at martial arts, you will not be able to serve the very purpose of martial arts, which is protecting yourself, if you use your martial arts skills on a person infected with COVID-19. Maybe you can subdue him/her. But, what good would it be to you if you get infected, too? How can you teach martial arts and train your students during a pandemic, and how can you serve the very purpose of these trainings? As is the case with most of human activities, martial arts are now facing a significant crisis and contradic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2. Our bodies as a half-open system

In a pandemic, we are reminded in a very violent manner that humans and human bodies are independent and autonomous to a certain degree, but they are constantly interacting with micro-organisms to exchange chemical compound, as an open system. A human body is wrapped in skin. In any civilization, but especially in the Western civilization with its signature individualism, people think of their skin as a boundary of oneself, and they think of their individuality as something very natural. One may say that they live in a ‘dermal illusion.’¹⁾

However, the pandemic disturbed the existing belief that human society is composed of independent individuals whose skin serves as personal boundaries. Our bodies are exchanging with other bodies, animals, plants, and micro-organisms (Fuentes, 2020). However, we have been very good at ignoring this for so many years.

We breathe to get the air into our system and eat food to get the nutrition we need. Skin recognizes the world through contact. Contact make it possible for human or other animals to communicate, while our eyes recognized the world with light and the ears with sound. Our olfactory senses can 'smell' as the sensory organs come in contact with volatile chemical compounds.

Our skin blocks a horde of bacteria and germs, while our immune system keeps the balance against the onslaught of external micro-organisms. However, this balance is very subtle and fragile.²⁾ You can keep yourself safe from tetanus or other contact-transmitted diseases by keeping yourselves from getting hurt. You can also control waterborne diseases or food poisoning by being careful, not eating unsafe or stale food.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prevent the infection by viruses or bacteria that are airborne. However, until very recently, many people believed that it is possible to prevent infection by being reasonably careful. It was also believed that the chance of being killed by these diseases is very low, even if you do contract the disease.

This is not the case with COVID-19, though. We are not even sure how people get infected. There are no confirmed vaccines or cures, yet. The disease can spread very fast and mercilessly, with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soaring. Many of the severely affected patients are losing their lives.

3. Necessity and Importance of Martial Arts Education Highlighted by the Pandemic

With the COVID-19 pandemic, martial arts have been discouraged to the extreme. However, the pandemic also showed how important and necessary it is to learn martial arts, especially for adolescents and women. Manners, patient, discipline, pride, and courage are all the virtues that are taught in martial arts. These qualities are in need more than ever, as people live through the pandemic that is stretching longer than anyone would have liked.

All of the Taekwondo gyms, etc. shutting down at once due to the pandemic in South Korea was

1) According to Robert Smith (1985, p.37), an anthropologist who studied Japan, the term, 'dermal illusion' was first coined by Gregory Bateson, to describe the individualist view of Americans that "somewhere," one's senses end at one's skin.

2) According to Choongmin Ryu(2019), "In botany, what people are studying is not how to kill all the germs to stay healthy, as they believe that you are safe from diseases even if you have pathogenic bacteria if your balance is maintained. They study how to maintain this balance between plants and bacteria to keep them healthy."

a hard blow to many families, especially the parents. For the parents, they lost their responsibility of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after school and on holidays, while providing some, if not comprehensive, education for manners and lifestyle. It has become a big issue at schools, as well. While the schools are shut down due to COVID-19, students are exposed to bad lifestyles such as smoking or game addiction. As a result, the number of students with behavioral problems are increasing rapidly. These children had attitude problems without considering others before the pandemic started. There is no wonder the situation got worse after schools reopened after their pandemic shutdown. The teachers will be more frustrated, as they are not at liberty to chastise the children as they would.

Martial arts are very important as they can cultivate the necessary traits and attitude to help the children cope with the COVID-19 pandemic. First, martial arts require that they understand their body and how to use it effectively. This will guide the children to be more aware of their body and health. Second, martial arts help develop patience and discipline. Patience and hard work for improvement, knowing what is permitted and what is not are all fundamental in martial arts training and instilled in students. Third, martial arts help the children become more self-confident and braver. Understanding one's body, training it and learning how to control it helps with facing one's own emotions and fear, so that they can be controlled. As a result, one acquires the skills to be safe and overcome the baseless fear of violence, knowing how to evaluate and respond to i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ith the current disease control measures is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consequences of prolonged situation, as they are solely focused on keeping the disease under control at the moment through emergency actions. They seem to believe in the 'pouring in everything you got' approach to have the situation dealt with as soon as possible. However, the situation seems to be here to stay for a while. While it is a serious issue that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disease control workers are overworked while being exposed to pain and risks, it is also taking toll among the healthy population, in the form of mental stress. The fatigue from prolonged isolation and control is accumulating.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citizens, hates to admit the possibility that the situation is not going away anytime soon and they need to come up with a long-term approach. However, it is already clear that we need such a solution. Social distancing, as well as personal safety measures, is called 'the best disease control measure.' However, it is clear that such measures cannot go on forever for everyone (Changyeop Kim, 2020). While there are talks about the economic fallout and political effects, more has to be done to preserve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Martial arts experts are required to come up with solutions to show how people should live on under the threat of pandemic and infections.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strengthened frequently, which will lock people up at home. People are finding it more difficult to have a space to pour out their energy

and change their mood. Are we really going to lock the adolescents up at home forever? In fact, many of these students do not have enough space at home, either for studying or just relaxing. This is a serious issue that calls for our attention.

The current measures being taken are designed for and focused on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infection, isolating the patients, and keeping as many people alive as possible. While there are some discussions going on about the economic fallout of social distancing, it has barely begun to talk about the psychological and mental effect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Many measures have been taken, and the people are very cooperative toward the government. However, the controls and limitations are not being lifted anytime soon, and there is no telling when it is going to happen. This can be very exhausting. The media is coining new terms like ‘corona black’ or even ‘corona rage,’ after ‘corona blue.’³⁾ It can be a more pressing issue because it involves coping with the mental, psychological, and cultural demands, which are as important as developing a vaccine or a cure. What does the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which was established with a focus on martial arts education for women and adolescents, need to do under these circumstances?

4. What Is to Be Done?

4.1. Smart Social Distancing and Improvement in Safety Measures

Experts warn that even after COVID-19, it is possible that we can be hit by another round of infectious disease outbreak. This means that we need to restore our way of life to a significant level while minimizing the risk of infection. The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at are in place now must be smarter. While the measures to prevent and control the spread of disease is in place, it should be possible to open Taekwondo gyms and sports centers. It should also be possible to enjoy outdoor sports. Of course, it could not be the way it was before the pandemic. However, there are things that can be enjoyed while still being cautious. The dynamic balance must be established to identify the limits, indicating what is possible and what is not, without taking a serious risk.

Careful restoration of martial arts education and training will revive the Taekwondo gyms and sports centers that are financially hit and shut down due to the pandemic. This will make it possible for the economic basis of martial arts to be preserved and their livelihood protected. However, this is not the only idea. The revival of martial arts training and education will be beneficial in many aspects, starting from relieving the burden on schools and families to help us keep healthy in mind and body alike in a prolonged pandemic.

3) "A confirmed case means a lockdown of the entire building and business shutdown ... you will be a traitor; the fear of being Patient 1."
[Joongang Ilbo], Sep. 7, 2020

4.2.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and Progress in Martial Arts Education/Training

Technologies can be introduced to martial arts training, while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non-contact substitutes of existing activities. The stereotypical assumption that ‘manners’ can only be learned physically must be overcome. There are things that have to be taught in that manner. However, not everything is so.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embrace the progress in technology as we learn, train, practice, and compete in martial arts. Some Olympic sports events saw a significant progress due to the use of high technology, in some aspects. Video games, which were frowned upon in the past, are now become a proud sport. Golf games and skiing can be enjoyed indoors, or even in the middle of a city.

The level of technology being used, in terms of gathering and using data or utilizing AI, VR, or robots, is not satisfactory yet. However, with active introduction of technology and its use, there is unlimited possibility in revolutionizing martial arts education and training. Some ideas we saw in sci-fi novels, mangas, or anime are not totally unrealistic.

Some of the most popular games are about individual or group combats and strategies. Many parents or educators fear gam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and frown upon their visits to PC cafes. However, they would have to accept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being able to enjoy better games in a better way and being unable to. The games today are not limited to moving only the eyes and fingers on your seat. It would be possible to develop new games in which the players can use their body as well as minds. Martial arts expert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using video games for training and education, while having fu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allocate R&D funds and arrange exchange/cooperation/collaboration programs between martial arts experts, tech experts, infectious disease experts, social science researchers and humanities researchers, as well as education experts. The progress in this field will contribute to the education of adolescents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while creating a new industry and generating more income.

5. Conclusion

Martial arts originated as personal combat skills. With the dazzling progress in technology and weaponry, the effectiveness of these skills were subjected to comparison, while the aspects of mental and educational values gained renewed attention. Martial arts are now included in the modern Olympics, signifying a challenge toward the limits of human beings, while training the mind and body. Their effectiveness or value in combat is no longer relevant. The modern sport of marathon was invented after the invention of railroad and automobiles. The archery of Joseon began as a skill of combat, however, it was significant as a way of training one's mind and a form of entertainment, as

well.

After the introduction of firearms in Japan following the era of warlords, the effectiveness of sword skill in combat was reduced. However, the gyms and styles diversified and increased in number, which was established as Kendo after the abolishment of the class of Samurai altogether after Meiji Ishin. Jujutsu also became Judo after the invention of warships and cannons. Martial techniques now became martial arts.

Martial arts still can be effective as a means of self-defense in modern society. However, martial arts education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is important and necessary, as a means to develop and instill manners, kindness, patient, discipline, self-confidence, and courage. The support for martial arts education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keeping Taekwondo gyms afloat and protect the livelihood of educators but also for the education of women and adolescents. In addition to short-term solutions, it would be necessary to work together with technology experts and engage in long-term R&D projects.

UNESCO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aces the reality of widespread anger and tens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and the entire plane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roblem of social inequality. It needs to speak out for the importance of martial arts education, while investing efforts and resources for its proliferation and expansion. Martial arts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are rooted in understanding and controlled utilization of violence, can be the most valuable tool for us to confront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while realizing active peace.

세션
SESSION

1

팬데믹과 무예의 대응

Martial Art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 종목별 사례를 중심으로

: Case Study

좌장

Moderator



황승현

Seunghyun Hwang

발표

Speaker



존 존슨

John A. Johnson



김주영

Juyeong Kim

토론

Discussant



김두한

Doohan Kim

COVID-19 시기의 인내심 감소 및 백절불굴의 정신 증가

John A. Johnson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요약

교육학이란 지식과 기술의 전파 및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자는 지식과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에서 유래한 무예인 ITF 태권도는 수십년 동안 수백가지 기술을 가르칠 수 있으며, 지도자는 이 무예의 다섯가지 정신(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를 가장 높은 학습목표로 간주한다. 태권도 훈련의 신체적 특징과 달리 이러한 정신은 수련생들이 습득하고 그러한 정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평가 방법이 없다. COVID-19는 수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던 태권도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팬데믹이 무예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예 수련을 계속할 수 있을지 또는 무예 수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본 자문화기술 연구는 저자의 치명적 신체 부상 이후 경험한 정신건강 회복과, 팬데믹 동안의 격리 및 기타 다른 고충을 대하는 태권도 지도자들의 무기력함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ITF 태권도 중사자들의 인내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올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ITF 태권도의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교훈 평가를 위한 이론적 틀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이며, 태권도 정신에 관한 간접 테스트 측정도구를 확인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키워드: 국제태권도연맹, 창훈 태권도, 대유행, 교육학, 자문화기술지

서론

내가 가장 대답하기 좋아하는 태권도 수련생들의 질문은 "최악의 부상은 무엇이었는가?"이다. 나의 모든 부상이 무예 수련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발가락부터 위쪽 방향으로, 두 개의 중족골과 왼쪽 경골 골절, 고등학교 이후 양쪽 무릎 편향, 갈비뼈 골절뿐 아니라 별도의 부상으로 오른쪽 어깨와 중수골이 탈구되었다. 또한 콘크리트 벽 포함 다양한 강도의 목표물을 주먹으로 타격하면서 수많은 경미한 골절을 경험했고, 사고로 목 아래가 마비될 뻔했던 중증 뇌진탕도 경험하였다. 작년 내 오른쪽 무릎은 부서졌고 왼손 뼈 세 개가 탈구되었으며, 왼쪽 척골이 약 12

군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가 작년까지 겪었던 부상 중 최악의 부상이었다.

오늘 나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태권도 철학의 핵심 정신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하나의 정신이 어떻게 태권도 종사자들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 태권도 정신이 이 전례 없는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발표의 주제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방법의 속성을 고려하여 오늘 발표는 조금은 비형식적이고 덜 학술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이번 다학제 연구는 태권도 훈련이 2020년 대유행 퇴치에 필요한 감정적 무기를 어떻게 제공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화기술 사례연구, 철학적, 교육학적 이론들을 사용할 것이다. 동시에 태권도 무형의 학습내용을 어떻게 테스트하고 수련생의 영적 훈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줄 것이며, 본 발표 말미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힘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생각이다.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본 연구는 자문화기술연구 설계를 사용하고 있다. 자문화기술연구는 본질적으로 정성적이며, 폭넓은 이슈에 연관되는 개인적 경험에 대한 생각과 개념 탐색을 위해 자기성찰법을 사용한다(Richardson, 2000). 이러한 연구에는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을 논하기 위해 특정 학문적 주제와 개인의 경험을 “정서적, 지적, 도덕적, 심미적”으로 연결하는 “의식의 여러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Hillyer, 2014, p. 55). 자문화기술연구는 다른 연구설계처럼 “권위와 분리 또는 중립적 위치”를 주장할 수 없지만 (Hillyer, 2014, p. 55), “자전적, 개인적인 것을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Ellis, 2004, p. xix), 이를 통해 새롭고 보다 깊은 이해가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는 나의 부상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실생활의 문제들을 태권도 철학과 교육학에 연결할 것이다.

한국어 용어는 매튜-라이사워 표기법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반면 사람 이름은 저자가 선호하는 성이 먼저 나오는 영어 철자법으로 표기된다.

결과

자문화기술자료

2019년 8월 16일 나는 서울의 한 거리를 걷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우측 십자인대가 완전히 찢어졌고 반월판은 거의 절단되었으며 측부인대가 크게 손상되었다. 동시에 좌측 신체 갈고리 돌기 부위 십여 군데가 산산조각이 나서 담당의사는 “끔찍하고 끔찍하고 끔찍한” 골절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의사 경력동안 보았던 골절상 가운데 최악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태권도 사범님이 항상 말했던 누군가 나를 세게 때릴 때 ‘고통을 극복하고 나아가라’를 실천했다. 일어나서 병원에 걸어 들어갔다. 치료를 마친 뒤 4시간 후 매우 불안정한 무릎과 골절된 팔에 팔걸이 하나를 한 채 나는 호텔로 걸어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던 대구로 돌아와 그 곳 병원을 찾아가다.

사고 다음 날 나는 내가 찾아가던 병원에서 두 명의 의사가 부서진 팔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겼고, 또 다른 의사는 테트리스를 하듯 내 손뼉을 치료했다. 그리고 2시간 뒤 마침내 내 골절된 팔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나는 손목 수술을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 나는 말할 수 없는 통증을 경험했고, 그때 내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다. 통증 때문에 의사는 내게 펜타닐 주사를 처방했는데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80-100배 더 강력하며 마이클 잭슨과 프린스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악명이 높다. 하지만 나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부터 다음날까지 나는 펜타닐 버튼을 누르는 타이머가 되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비록 그 약물이 몇 분 동안 통증을 감소시키고 내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주었지만 난 여전히 인생 최악의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손목 통증은 내가 한 때 스케이트보드 사고로 왼쪽 경골이 비틀어졌을 때 보다 더 심했다. 그 당시 내 다리는 젖은 나뭇가지처럼 휘어진 나선형으로 부러졌다. 그래서인지 손목 통증 골절은 시원한 여름 저녁 산책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다.

8시간 정도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때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었기에 나는 의사에게 팔꿈치에서 팔을 절단해 달라고 하는 나를 상상해 보았다. 그때 나는 나보다 30-50 파운드가 더 나가는 네 명의 남자와 동시에 싸워야 했던 2급 검은 띠 태권도 심사를 기억했다. 나는 그 심사 이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스톱워치를 보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한 쪽 팔만으로 하는 태권도 생활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나 자신과 그런 대화가 있을 후 1시간쯤 뒤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내 사전에서 “끔찍한”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하여 조용히 돌발통증을 견뎌냈다. 왜냐하면 내 딸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를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의사와 가족의 바람과는 달리 손목수술 2주 만에 계명대 태권도학과에 강의를 하러 돌아왔다. 무릎은 여전히 부러져 있었고 치료하는 데까지는 네 달을 기다려야 했지만, 나는 태권도와 합기도를 강의하는 방법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의사를 보았을 때 그는 진통제가 필요한 지를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고 전력을 다해 타격하고 손가락으로 팔 굽혀 펴기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사의 입은 말 그대로 찻 벌어졌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White Zombie 밴드의 노래 가사를 인용하여 “태권도는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든다.”고 말했다 (Yuenger et al., 1995).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내 이야기가 어떻게 이번 세션 주제인 COVID-19과 관련되는 지 궁금할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 나는 작년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통증을 견뎌냈다. 약 4 개월 동안 내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는 정말로 “끔찍”했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냈지만, 태권도 지도자들의 교훈이야말로 내가 부상을 극복하고 COVID-19를 정복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좀더 설명해 보겠다.

태권도 철학과 신조

태권도 철학은 최홍희 장군이 만든 다섯가지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Johnson, 2018; Johnson & Vitale, 2018, Vitale 2020)¹⁾. 그는 수련생들이 태권도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 지가 태권도의 “성공 또는 실패”의 진정한 척도라고 했다(Choi, 1983, p. 15). 따라서 태권도 수련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1) 최 장군이 만든 다섯 가지 태권도 정신은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다.

목표는 태권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ITF의 대가는 수련생들에게 신조를 COVID-19에 맞서는 “각 개인 전투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가이드”로 사용하도록 가르쳐주었다(Vitale, 2020).

교육학(존슨, 2017)에서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어진 무형의 기질을 취하고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무도 단계라고 불렀다(Johnson, 2017). 나는 지난 18 개월 동안 내 신체적, 정서적 고난과 COVID-19 극복을 위해 두 가지 정신, 즉 인내와 백절불굴의 정신을 고수해오고 있다. 태권도는 내게 고통받을 수도 있고, 이를 극복할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나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극복을 위해 '자각'을 활용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있다. 수련시간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태권도 훈련이 나를 “보다 인간적인”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었다.

인내는 "모든 무예에 존재하는 의지와 희생정신"(Chung, 2018, p. 140)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끈기와 같은 말이다. 그러나 인내가 무예의 정신을 좀더 잘 표현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에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태권도 훈련에서 수련생이 100번의 발차기 세트에서 마지막 10번의 앞차기를 할 때 또는 훨씬 더 뛰어난 경쟁상대와 대련 시 계속 싸우는 것이 인내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백절불굴의 정신은 인내의 내적 측면이다. 충(2018)은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태권도 수련생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용기를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수련생은 설사 지더라도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된다(p. 182).

백절불굴의 정신은 태권도 수련생의 행동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이끄는 신념, 태도, 감정, 결단력에 나타난다. 이는 정신이 단호하고 의연해진다는 자기 묘사이다.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그 누구도 어떠한 것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다.

태권도 교육자로서, 나는 학생들이 인내와 백절불굴 정신에 대한 무형의 교훈을 배웠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자문해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태권도의 중요한 모든 측면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 지도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무예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가르치는 책임이 태권도 지도자에게 있다면 태권도의 모든 면에서 수련생의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현대의 태권도 실기시험인 급과 단 심사는 미국의 SAT 또는 한국 대학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다. 그러나 태권도 교육학은 태권도 정신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교육학과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태권도의 정신의 유효성 평가가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 사고를 경험하고 COVID-19 대유행 발생으로 나는 그 해답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마지막 열번의 발차기를 실행하거나 패배가 기정사실인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예와 같이 태권도 정신을 간접적으로 배운다. 따라서 이들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Bengoa, 2008). 이제 우리는 직간접적 형태의 평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직접 및 간접 테스트

직접 테스트에는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기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응시자가 필요하다(Hughes, 2000, p. 15). 이것은 기술 평가다. ITF 태권도 직접 테스트는 수련생에게 최홍희 장군이 기술한 미리 정해진 방법과 원칙에 따라 태권도 기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Choi, 1983). 이 테스트는 세 가지 이유로 매력적이다. 첫째, 동작이나 기

술 평가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가 비교적 쉽다. 예를 들어 수련생이 차를 얼마나 잘 운전하는 지 보고싶다면 그 수련생이 운전하는 동안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옆차기 능력에 대한 직접 테스트는 해당 수련생이 옆차기를 해야 한다. 실제로 이것이 태권도 수련생들이 승단시험에서 왜 격파술을 보여주는 지에 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둘째, 직접 테스트는 직설적이다. 응시자가 수행해야만 하는 부분을 잘 수행했는가? 마지막으로 직접 테스트는 수련생과 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잘 알고 있으므로 준비하기 쉽다(Hughes, 2000).

반대로 간접 테스트는 우리가 관심있는 기술을 기초로 하는 능력 측정을 시도한다 (Huges, 2000, p. 15). 응시자는 해당 기술 관련 지식을 입증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로 응시자의 교통법 지식 평가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태권도의 간접 테스트에 태권도의 철학이나 경기 규칙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은 매우 일반적이며 용어에 대한 지도자들의 문화적 이해 정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Johnson, 2018) 태권도 정신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나타날 수 있는 수십억 가지의 경우가 수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간접 테스트 결과는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 정신 평가에 보다 실행가능한 평가 방법이다.

토론

내가 경험한 부상과 마찬가지로 COVID-19는 태권도 종사자와 지도자들을 위한 간접적 정성적 평가를 제공한다. 나는 많은 태권도 선배, 친구, 동료들이 COVID-19 영향으로 태권도 수련 및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도 수입이 없어져서 무예 도장을 닫아야만 했던 도장 경영자를 한 명 이상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많은 이들이 전염병 극복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인내와 백절불굴의 정신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믿고 있다. 반면 나는 부상회복과정에서 인내와 백절불굴의 정신을 입증했다고 믿고 있다.

인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다. 1980년대 슈퍼맨 영화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는 승마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다시 걷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전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생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걸을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소가 매일 점프 연습을 할 수 있지만 달까지 비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태권도 수련생도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이 평생의 목표를 막을 지도 모른다.

인내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능력”이지만(Kang, 2020, p. 40) 불가능한 것도 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일부 지역에서 무예 도장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대유행 동안 태권도 지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이 도장을 얼마나 열고 싶어하는지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재정적, 신체적 문제 또는 한 세기에 한 번 있는 감염 대유행이 닥치게 되면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는 달까지 갈 수 없으며 일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도장을 다시 열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인내는 어떤 경우에는 한정적으로만 가능한 해결책이며, 태권도 종사자들의 COVID-19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여기는 백절불굴의 정신을 발휘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나는 부상을 입은 후 이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즉시 일어나서 치유과정을 시작했다. 나는 부상으로 인해 제한 받거나 굴복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찬가지로 나는 COVID-19로 인한 사회적 한계로 인해 나의 정신 및 치유 과정이 영향받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체육관이 닫혀 무릎과 손목 재활운동을 하지 못할 때 나는 대안을 찾았다. 예를 들어, 나는 계명대학교 사무실을 도장

으로 바꾸었고, 아파트 단지 계단을 걸어 올랐으며, 한겨울 새벽 6시에 걸어서 출근했다. 반대로 태권도 동료 일부는 도장 폐쇄를 결정했다. 그들은 미래 자신의 도장 재개 계획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가정에서 가르치는 방법 또는 태권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 구축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도복과 장비를 챙겨 떠나버렸다.

백절불굴의 정신은 패배하지 않으려는 내적 선택이다. 그러나 때로는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 인내에 실패할 경우 백절불굴의 정신이 태권도 종사자들에게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나는 내가 왜 여전히 여섯 개의 핀과 한 개의 금속핀이 심어진 손날로 단련구를 펀치하고 타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저 통증은 더이상 그 부위에 있지 않으며, 오늘도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태권도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나의 가족과 수련생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직업 속에 그 교훈을 투영했다는 점이다. 태권도를 알기 전 내가 게으름뱅이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태권도 훈련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8월 어느 날 밤 서울에서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줄 누군가를 기다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은 무형의 것이므로 태권도 종사자의 태권도 철학 수용 정도 평가에 간접 테스트가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나의 태권도 동료들은 COVID-19로 인해 압도당하고, 패배하고, 무력함을 느끼는 삶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은 태권도 훈련에서 배운 인내와 백절불굴의 정신을 접목하여 일상에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이다. 그들은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태권도 철학을 접목하지 못한 채 COVID-19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이 있던 시기에, 고통을 줄이려고 팔을 잘라내고자 했던 시기에, 태권도가 내게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내가 고난을 견뎌낼 것이라는 것을 나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인생이 힘들지만, 훈련과 태권도 정신이 내가 어떤것이든 극복할 수 있는 의지발견에 도움이 됨을 알고 있다. 나는 글로벌 대유행이 내 아파트 3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고, 친구와 가족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나는 내 수련과정과 그것이 내 인생 최악의 순간 극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기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내 집주인이 파산해 수십년 만에 최악의 한국 주택 시장에서 새 아파트를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을 때, 나는 같은 단호함과 자신감으로 그 문제를 직시했고, 다른 모든 것들처럼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인생은 내게 일상생활 속에 태권도 철학을 간접적으로 접목시킨 것을 시험해 보았고, 나는 이를 통과했다. 신체적 인내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다른 태권도 지도자들과 수련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나의 안 좋은 평가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내 자문화기술연구 결과는 COVID-19와 무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 우선 태권도 무형의 교훈을 시험하는 정성적이고 간접적인 테스트 방법을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하지만 태권도 교육자로서 양심상 정확한 평가 방법 없이 무언가를 가르칠 수 없다. 나의 사고와 COVID-19 대유행 발현 전까지 나는 태권도 5대 핵심가치 체득을 평가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유행은 우리 무예가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을 지도 모른다.

나는 태권도 지도자들이 이를 위해 다음 번 대유행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수업 중 문답

법으로 도장 밖에서 특정 태권도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는 지 수련생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Mayen, Johnson, Bosch, 2015). 예를 들어 한 수련생에게 "지난 주 얼마나 예의를 갖추었는가?"라는 질문만으로도 그녀가 도장 밖에서 적용 가능한 또 다른 신조 '예의'의 실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더구나 수련생은 태권도 지도자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도장에서 신체 훈련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일상생활에서 예의를 태권도와 연관 짓고 실천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만 의미 있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태권도에 의해 매우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예의로 연결된다. 태권도의 핵심 철학원칙을 접목함으로써 삶의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지식이나 능력에 대한 자기 보고는 지식을 평가하는 실행 가능한 방법이지만(Lachner, Backfisch, Stürmer 2019) 태권도 훈련 효과를 입증하는 데는 정량적 평가 도구가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의 간접 테스트 평가 도구 검증에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발표 초반에 희망의 메시지를 약속했다. 여러분을 계속 더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일 여러분이 COVID-19 대유행으로 고통받으면서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인내를 배웠던 순간 또는 도장에서 백절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하겠다. 미국 캔자스 주 위치타 출신의 장발 헤비메탈 애호가인 한국에 와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네스코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이든 가능하다.

참고문헌

1. Bengoa M. ELT. (2008). <https://bengoa.wordpress.com/2008/02/18/approaches-to-testing-direct-and-indirect-testing/#:~:text=Direct%20and%20Indirect%20Language%20Testing,It%20is%20a%20performance%20test.&text=An%20indirect%20test%20measures%20the,to%20sample%20in%20our%20test>. Accessed 2020, September 29.
2. Choi HH. (1983). The Encyclopedia of Taekwon-Do, Vol. 1. Toronto: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3. Chung SY. (2018). Taekwon-Do Hyeong & Teul. Seoul: Han Young Media.
4. Ellis C. (2004). The Ethnographic I: A Methodological Novel about Autoethnography. Walnut Creek: AltaMira Press.
5. Hillyer SJ. (2014). Coaching Women's Softball in Iran: The Tale of One American's Journey toward Peace and Understanding through Sports. Sports, Peacebuilding, and Ethics (Johnston L, 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6. Hughes A. (2000).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 Johnson JA. (2017). From Technique to Way: An Investigation into Taekwondo's Pedagogical Process. Ido Movement for Culture. Journal of Martial Arts Anthropology 17(4): 3-13; doi: 10.14589/ido.17.4.2.
8. Johnson JA. (2018). Taekwondo and Peace: How a Killing Art Became a Soft Diplomacy Vehicle for Peac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35(15-16): 1637-1662; doi: 10.1080/09523367.2019.1618838.
9. Johnson JA, Vitale G. (2018). Taekwondo Diplomacy: New Possibiliti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hysical Activity Review 6: 237-250; doi: 10.16926/par.2018.06.28.
10. Lachner A, Backfisch I, Stürmer K. (2019). A Test-based Approach of Modeling and Measuring Technological Pedagogical Knowledge. Computers & Education 142: 103645; doi: <https://doi.org/10.1016/j.compedu.2019.103645>.
11. Kang R. (2019). Moral Education in Taekwon-Do, in The Way to Learn Taekwon-Do, Vol. 1. (Sherihoff D, trans.); pp. 40-42.
12. Mayen J, Johnson JA, Bosch RM. (2015). Taekwondo as One's Life Philosophy.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aekwon-Do Research 2(1): 24-9.
13. Richardson L. (2000). New Writing Practices in Qualitative Research. Sociology of Sport Journal 17(1): 5-20.

14. Vitale G. (2020). Facebook. 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9250863130. Accessed 2020, April 12.
15. Yuenger JN, Zombie R, Zombie RW, Reynolds SY. (1995). More Human than Human [Recorded by White Zombie]. On Astro-Creep: 2000 [CD]. Los Angeles, CA: NRG.

The Fall of Perseverance and Rise of Indomitable Spirit During COVID-19

John A. Johnson

Department of Taekwondo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Pedagogy can be understood as the dissemination and assessment of knowledge and skills. Broadly speaking, educators test knowledge and skills directly and indirectly. ITF Taekwon-Do, a martial art that originated in South Korea, can teach hundreds of physical skills over many decades, instructors consider the art's five tenets (i.e., courtesy, integrity, perseverance, self-control, and indomitable spirit) their highest learning objectives. However, unlike the physical aspects of Taekwon-Do practice, there is no direct assessment that can determine if a student has acquired and utilized these traits in their daily lives. Although seemingly unrelated at first, COVID-19 has caused incalculable hardships, and the martial arts/Taekwon-Do world is no exception. One way the pandemic has affected martial artists is by challenging their ability to continue their practice or keep their martial arts schools open. This autoethnographic study correlates the author's mental and spiritual health successes after suffering life-altering physical injuries with Taekwon-Do instructors' inability to cope with quarantine and other hardshi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doing so, a novel way to assess indirectly ITF Taekwon-Do practitioners' perseverance and indomitable spirit emerges. This presentation may for the first time offer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ssessing ITF Taekwon-Do's philosophical and moral lessons. More research is required to ascertain a measurement tool for indirect tests of this nature.

Keywords: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Ch'ang Hŏn Taekwon-Do, pandemic, pedagogy, autoethnography

Introduction

My favorite question to answer that my Taekwon-Do students ask is, “What was your worst injury?” While not all related to my martial arts practice, from my toes upward I have broken two metatarsals, my left tibia, have had tendentious in both knees since high school, fractured a few ribs, as well as dislocated my right shoulder and a metacarpal in my right hand in separate injuries. I have also endured uncountable minor fractures in my hands from punching targets of various hardness including concrete walls, and a severe concussion in an accident that nearly left me paralyzed from the neck down. That was the worst of it until last year when I suffered an accident that left my right knee shredded, three bones dislocated in my left hand, and my left ulna fractured in about a dozen places.

Using this accident as a backdrop, today I will discuss the core of Taekwon-Do philosophy, its tenets, and illustrate how one tenet has failed Taekwon-Do practition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n how another tenet can assist us in overcoming this unprecedented time. My presentation today will be more informal and less academic than you might expect. The nature of my topic and the methods used to arrive at my conclusions necessitate it to be so.

As such, I am presenting my ideas here in a loose academic format. This multidisciplinary study utilizes an autoethnographic case study, philosophic, and pedagogical theories to understand how the practice of Taekwon-Do has provided the emotional armor needed to “beat” the 2020 pandemic. At the same time, I shall illustrate for possibly the first time how we can test the intangible lessons of Taekwon-Do and assess students’ spiritual training. By this presentation’s end, I plan to impart upon you a message of strength and hope.

Methods and Materials

The present study utilizes an autoethnographic research design. Autoethnographic studies are qualitative in nature and use self-reflection to explore ideas and concepts on personal experiences that connect to wider issues (Richardson, 2000). These studies possess “multiple layers of consciousness” that connect personal experiences “emotionally, intellectually, morally, and esthetically” to a particular academic topic in order to discuss “something meaningful about the world” (Hillyer, 2014, p. 55). Although autoethnographic research cannot claim “a detached or neutral position of authority” (Hillyer, 2014, p. 55) as in other study designs, it can “connect the autobiographical and personal to the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Ellis, 2004, p. xix), and by doing so it creates new and deeper understandings. Consequently, this study uses my injuries to connect Taekwon-Do philosophy and pedagogy to the real life struggles we are all encountering tod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n terms are presented in the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 Korean names, on the

other hand, are presented in the authors' preferred English spellings with surname first.

Results

Autoethnographic Data

On August 16, 2019 I suffered a horrendous accident walking up a street in Seoul. The accident left my right ACL completely torn, my meniscus nearly severed, and my MCL greatly damaged. At the same time, my left radius was shattered in about a dozen places at the coronoid process in what my doctor called a “terrible, terrible, terrible” break. In fact, he called it one of the worst fractures he had seen in his long career. Nevertheless, I did what my Taekwon-Do master always said when someone hit me hard: I walked it off. But, this time I stood up and walked to the hospital. When the doctors released me four hours later, I walked to my hotel on a very unstable knee with my fractured arm in a sling. I then traveled to Daegu where I live to meet the doctors who would put me back together again.

The day after my accident, I was in my hospital of choice with two doctors pulling my shattered arm in different directions while a third played Tetris with my hand bones. After about two hours, they finally got things back into place.

I underwent wrist surgery a few days later. After waking up, I experienced unspeakable pain. In fact, it was all consuming. For the pain, doctors gave me a fentanyl drip. Fentanyl is, incidentally, 80-100 times stronger than morphine and is infamous for taking the lives of musicians Michael Jackson and Prince. It did next to nothing for my suffering.

Throughout the night and next day, I watched with all of my being a timer that counted down the minutes and agonizing seconds to when I could press the fentanyl button again. Although the drug lessened my pain for a few minutes and permitted me to think a little, I was still experiencing the worst physical agony of my life. My wrist hurt more than when I twisted my left tibia in a skateboarding accident. At that time, my leg snapped spirally in what is called a greenstick break, because the bone twists like a wet branch. The pain in my wrist made that break feel like stroll on a cool summer evening.

After suffering like that for about eight hours, I had a conversation with myself. I postulated asking the doctor to amputate my arm at the elbow, because nothing could be worse than what I was experiencing. Then I remembered my second-degree black belt Taekwon-Do examination where I had to fight four men simultaneously, all of whom outweighed me by 30 to 50 pounds. I convinced myself after that test that I could do anything. As I laid in the hospital bed and watching that stopwatch, I told myself I could go a little further and that I could push myself a little longer. After all, I also told myself, a Taekwon-Do life with one less arm would be less than desirable.

About an hour after that conversation, the pain did begin to subside. I still endured shooting pains causing me to scream silently that redefined the word “terrible” in my lexicon. Why silently? Because

my daughter was asleep next to me, and I could not allow her to see me in such a state.

Against the best wishes of my doctor and family, I returned to teach in Keimyung University's Department of Taekwon-Do just two weeks after my wrist surgery. My knee was still shredded and I had to wait four months until I could have it repaired, but I found a way to teach my Taekwon-Do and Hapkido courses.

The last time I saw my doctor he asked if I needed any pain medication. I said I did not need anything, and then demonstrated that I can still punch full power and do knuckle push-ups. The doctor's mouth literally dropped open, and he said, "That's not human." To that, I paraphrased a White Zombie lyric and said, "Taekwon-Do makes you more human than human" (Yuenger et al., 1995).

Now you may be wondering how my story relates to COVID-19, the theme of this session, and rightfully so. To be succinct, I endured pain beyond my imagination and ability to describe last year. It was so "terrible" that I suffer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r PTSD, for about four months. I did all of that with the help and support of my family and friends, but my Taekwon-Do instructors' lessons are what enabled me to conquer it and COVID-19. Let me explain.

Taekwon-Do Philosophy and Its Tenets

Taekwon-Do philosophy begins with the five tenets established by General Choi Hong Hi (Johnson, 2018; Johnson & Vitale, 2018, Vitale 2020)¹⁾. He stated that how well students adopt Taekwon-Do's tenets into their daily lives is the true measure of their "success or failure" in Taekwon-Do (Choi, 1983, p. 15). Thusly, the highest educational goals a Taekwon-Do student should strive toward are the adoption of Taekwon-Do's tenets. To this point, an ITF grand master directed students to use the tenets "as a guide to help support us in our personal battle against" COVID-19 (Vitale, 2020).

The ability of a person to take intangible traits acquired through Taekwon-Do practice and apply them to one's daily life has been called the mudo stage of Taekwon-Do pedagogy (Johnson, 2017). Accordingly, I have adhered to two of those tenets, perseverance and indomitable spirit, over the last 18 months or so to overcome my physical and emotional hardships and COVID-19. My Taekwon-Do lessons taught me I could suffer and overcome. Now, I can draw upon the self-knowledge to get me through the hardest times of my life. I know I will never be the same, but I also know that I will be OK: thousands of hours of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Taekwon-Do training have forged me into a "more human" person.

Perseverance has been defined as "the willpower and the spirit of sacrifice that exist in every martial art" (Chung, 2018, p. 140) and is synonymous with tenacity. It is, however, a more physical

1) The five tenets in English according to General Choi are courtesy (예의; yeui), integrity (염치; yŏmch'i),

representation of the martial arts spirit. By this, I mean that when one perseveres in Taekwon-Do, they are usually doing something physical. In Taekwon-Do practice, a student perseveres when they perform the last 10 front kicks in a 100-kick set, or they keep fighting even when outmatched by a far superior competitor.

Indomitable spirit, on the other hand, is the internal side of perseverance. Chung (2018) defined this concept as:

The Taekwon-Do student must sustain the difficulties and obstacles with courage, without fear and hesitations, in other words with indomitable spirit,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circumstances] are against him. Thus, the student will earn respect and honor, even if he loses (p. 182).

Indomitable spirit presents itself not in the action of the Taekwon-Do student, but the beliefs, attitudes, emotions, and determination that drives those actions. It is self-describing in that the spirit becomes resolute and undaunted. No one or no thing can alter a person's mind when that person has an indomitable spirit.

As a Taekwon-Do educator, I must ask myself how I can ensure my students learn the intangible lessons of perseverance and indomitable spirit. In the same breath, I must also ask myself how I can test these all-too-important aspects of Taekwon-Do. If Taekwon-Do instructors are charged with teaching the martial art's physical and mental aspects, there must be a means to measure their students' success in all things Taekwon-Do.

Today's Taekwon-Do physical exams, the gup and dan tests, are fairly standardized, much like the American SAT or the Korean college examination. However, Taekwon-Do pedagogy has yet to find a means to measure the abstract concepts of Taekwon-Do education like the tenets. As a Taekwon-Do instructor and someone who studies the crossroads of its pedagogy and philosophy, I have pondered what an assessment tool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aekwon-Do's tenets could look like. Then, my accident and COVID-19 occurred, and I may have found my answer.

We learn the tenets indirectly, such as in my aforementioned examples of executing those last ten kicks or not giving up even when losing is inevitable. Therefore, it only seems appropriate to assess them indirectly (Bengoa, 2008). Thus, we must now discuss direct and indirect forms of assessment.

Direct and Indirect Testing

A direct test "requires the candidate to perform precisely the skill which we wish to measure" (Hughes, 2000, p. 15). These are assessments of performance; consequently, ITF Taekwon-Do direct tests require students to perform Taekwon-Do skills according the preordained methods and principles of motion,

perseverance (인내; innae), self-control (극기; kükki), and indomitable spirit (백절불굴; paekchölbulgul).

which were outlined by General Choi Hong Hi (Choi, 1983). These tests are attractive for three reasons. First, it is relatively easy to create the conditions required for assessing the behavior or performance. For example, if we want to see how well a student drives a car, we assess the student while he or she driving. Likewise, a direct test of a student's ability to perform a side piercing kick would require the student to do side piercing kicks. Indeed, this one of primary reasons why Taekwon-Do students must perform breaking (kyökp'a) during rank examinations. Second, direct tests are also straightforward: Did the examinees perform like they were supposed to? Finally, direct tests are easy to prepare for, since students and instructors know what should be done and how (Hughes, 2000).

Conversely, an indirect test "attempts to measure the abilities which underlie the skills in which we are interested" (Huges, 2000, p. 15). Examinees must demonstrate knowledge associated with a skill. For example, part of a driving license test may include a test to determine an examinee's knowledge of traffic laws. Likewise, an indirect Taekwon-Do test may include Taekwon-Do philosophy or tournament rules. The tenets of Taekwon-Do are very general and applicable according to practitioners' cultural understandings of the terms (Johnson, 2018); thus, assessing a person's ability to incorporate them into their lives is nigh impossible due to the randomness that this would entail and the billions of ways it is possible to do so. Yet, indirect testing results are "generalisable" (Huges, 2000, p. 17), making this assessment approach more viable for assessing Taekwon-Do tenets.

Discussion

COVID-19, like my injuries, provides an indirect and qualitative assessment for Taekwon-Do practitioners and instructors. I have personally witnessed many of my Taekwon-Do seniors, friends, and colleagues suffer through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ir Taekwon-Do practices and businesses. Most of us probably know at least one school owner who had to close their martial arts businesses, because they lost their income. For many of these individuals, I believe they had not acquired high levels of perseverance and indomitable spirit required to overcome the pandemic. On the other hand, I believe I demonstrated perseverance and indomitable spirit during my recovery process.

There are times in life you will never be able to accomplish a goal no matter how hard you try. Christopher Reeve, star of the 1980s Superman movies, was permanently disabled after a horse-riding accident. He nonetheless believed that he would walk again. Sadly, he passed away from other complications before he realized his dream. He was unable to walk again not for a lack of trying, but because his lifetime expired. Similarly, a cow may practice jumping every day of its life but will never be able to fly over the moon. A Taekwondo student may also prepare for the Olympics, but unpreventable extraneous circumstances may prevent her from that lifelong goal.

Perseverance is the "ability to overcome any difficulties to reach your goals" (Kang, 2020, p. 40), but

some things are just impossible. With COVID-19, operating a martial arts school has been just that in some markets. Taekwon-Do instructors during the pandemic have been unable to persevere due to financial hardships and, regardless of how much they wanted to keep their schools open, they had to close them permanently. Be it financial, physical, or a once-in-a-century pandemic, a person's station in life can affect how far they can persevere. Therefore, a cow may not make it over the moon, and some instructors may never be able to afford to reopen their schools no matter how hard they try. Perseverance is finite in some cases, and it cannot be Taekwon-Do practitioners' solution to COVID-19.

Yet, this is where indomitable spirit comes into play. For instance, I chose not to be defeated after being injured. I immediately stood up and began the healing process. I decided that my injuries would not define or defeat me; likewise, I chose not to allow the social limitations caused by COVID-19 to affect my spirit and my healing process. I chose to find alternatives when gyms closed preventing me from rehabbing my knee and wrist. For instance, I converted my Keimyung University office into a tojang (Korean martial arts school; 도장), climbed the stairs in my apartment complex, and walked to work in the dead of winter at 6 AM. Conversely, some of my Taekwon-Do colleagues chose to allow the closure of their school to defeat them. They did not begin planning how to reopen their tojang in the future, decide to teach out of their homes, or construct some other way to keep their businesses open. Instead, they packed up their uniforms and equipment, and then left.

Indomitable spirit is the internal choice to remain undefeated. Sometimes, however, we have to define for ourselves what defeat means. When perseverance fails, indomitable spirit allows Taekwon-Do practitioners to pick up and find a way to continue. I cannot explain to you why I am able to punch or strike the dallyeon-gu with a reverse knife-hand where six pins and a metal plate still lay just under the skin. The pain just is not there anymore. However, I can tell you that I practice today because I refused to give up Taekwon-Do. More importantly to my family and students, I extrapolated that lesson to my career. I must emphasize to you that I learned this lesson from my Taekwon-Do practice, because I know the coach potato I was before Taekwon-Do, and he would have given up and waited for someone to carry him to the hospital that August night in Seoul.

Intangible as the tenets are, indirect testing may be an ideal option to assess a practitioner's adoption of Taekwon-Do's philosophy. In my Taekwon-Do colleagues' cases, COVID-19 challenged their lives to a point where they felt overwhelmed, beaten, and helpless. Yet, here was a perfect time for them to extrapolate lessons of perseverance and/or indomitable spirit from their Taekwon-Do practice and apply them to their daily lives. They did not, and consequently we can see through their experience with COVID-19 that they failed to apply Taekwon-Do philosophy to their lives.

On the other hand, at the time of the greatest physical pain in my life, at a time in which I was willing to cut off my arm to lessen my suffering, I remembered what Taekwon-Do taught me about

indomitable spirit. There is no way that my instructors could know I would endure this hardship, but they knew that life is hard and only hard training and correlating it with Taekwon-Do's tenets would help me find the will to overcome anything. So, when a global pandemic began three kilometers from my apartment and my friends and family were near panic, I remained calm, because I could recall my training and how it helped me overcome the worst moment of my life. When my landlord went bankrupt and informed me that I had to find a new apartment in the worst Korean housing market in decades, I faced that problem with the same resoluteness of character and confidence and knew that I would overcome it like everything else. Hence, life tested my application of Taekwon-Do philosophy to my daily life indirectly, and I give myself a passing grade. Other Taekwon-Do instructors and students who have become defeated internally despite having physical perseverance would not like the grade I would assign them.

Conclusion

So, what does my autoethnographic research say about COVID-19 and the martial arts? For one, it provides a qualitative and indirect method of testing the intangible lessons of Taekwon-Do. Again, as a Taekwon-Do pedagogue, I cannot teach something in good conscience without having an accurate assessment method. Until my accident and COVID-19, I had not found a way to test a student's acquirement of those five core Taekwon-Do values. This pandemic, however, may have provided an assessment tool against which we martial artists can gage ourselves.

I certainly do not think Taekwon-Do instructors have to wait for the next pandemic to do this. They can instead integrate the maieutic method's questioning practice during class and ask students how they demonstrated a particular tenet outside of the tojang (Mayen, Johnson, Bosch, 2015). For example, just asking a student "How were you courteous last week?" forces her to see courtesy, another tenet, being applicable outside of the tojang. Furthermore, since the Taekwon-Do instructor is asking it, the student associates courtesy with Taekwon-Do and practicing it in their daily lives as just as important to their physical practice in the tojang. Through this process, they can create new knowledge meaningful only to them. Doing this will guide them to highly personal and individualized manners in which Taekwon-Do works them. They can find their own solutions to life's problems by adopting Taekwon-Do's core philosophical principles.

Self-reporting of knowledge or ability, such as I did in this study, are viable means to assess knowledge (Lachner, Backfisch, Stürmer 2019), but quantitative measurement tools would be more persuasive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is aspect of Taekwon-Do practice. Consequently, more research is required to ascertain a measurement tool for indirect tests of this nature.

Finally, I promised a message of hope at my presentation's outset. I do not wish to leave you

wanting, so here it is. If you are hurt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ractice Taekwon-Do, I ask you to find a moment in your praxis that taught you something about your ability to persevere or when you demonstrated indomitable spirit in your tojang. If this long-haired, heavy metal lover from Wichita, Kansas, USA can come to Korea, earn a PhD here, present at UNESCO conference, and overcome unquantifiable pain all in the name of Taekwon-Do, then anything—anything—is possible for you.

References

1. Bengoa M. ELT. (2008). <https://bengoa.wordpress.com/2008/02/18/approaches-to-testing-direct-and-indirect-testing/#:~:text=Direct%20and%20Indirect%20Language%20Testing,it%20is%20a%20performance%20test.&text=An%20indirect%20test%20measures%20the,to%20sample%20in%20our%20test>. Accessed 2020, September 29.
2. Choi HH. (1983). *The Encyclopedia of Taekwon-Do*, Vol. 1. Toronto: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3. Chung SY. (2018). *Taekwon-Do Hyeong & Teul*. Seoul: Han Young Media.
4. Ellis C. (2004). *The Ethnographic I: A Met hodological Novel about Autoethnography*. Walnut Creek: AltaMira Press.
5. Hillyer SJ. (2014). *Coaching Women's Softball in Iran: The Tale of One American's Journey toward Peace and Understanding through Sports*. Sports, Peacebuilding, and Ethics (Johnston L, 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6. Hughes A. (2000).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 Johnson JA. (2017). From Technique to Way: An Investigation into Taekwondo's Pedagogical Process. *Ido Movement for Culture. Journal of Martial Arts Anthropology* 17(4): 3-13; doi: 10.14589/ido.17.4.2.
8. Johnson JA. (2018). Taekwondo and Peace: How a Killing Art Became a Soft Diplomacy Vehicle for Peac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35(15-16): 1637-1662; doi: 10.1080/09523367.2019.1618838.
9. Johnson JA, Vitale G. (2018). Taekwondo Diplomacy: New Possibiliti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hysical Activity Review* 6: 237-250; doi: 10.16926/par.2018.06.28.
10. Lachner A, Backfisch I, Stürmer K. (2019). A Test-based Approach of Modeling and Measuring Technological Pedagogical Knowledge. *Computers & Education* 142: 103645; doi: <https://doi.org/10.1016/j.compedu.2019.103645>.
11. Kang R. (2019). Moral Education in Taekwon-Do, in *The Way to Learn Taekwon-Do*, Vol. 1. (Sherihoff D, trans.); pp. 40-42.
12. Mayen J, Johnson JA, Bosch RM. (2015). Taekwondo as One's Life Philosophy.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aekwon-Do Research* 2(1): 24-9.
13. Richardson L. (2000). New Writing Practices in Qualitative Research. *Sociology of Sport Journal* 17(1): 5-20.
14. Vitale G. (2020). Facebook. 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9250863130. Accessed 2020, April 12.
15. Yuenger JN, Zombie R, Zombie RW, Reynolds SY. (1995). More Human than Human [Recorded by White Zombie]. On *Astro-Creep*: 2000 [CD]. Los Angeles, CA: NRG.

팬데믹과 무예의 대응

[복싱 - 현장사례]

김주영

용인대학교 경기지도학과

1. 서론

인류는 오래전부터 전염병과의 싸움을 계속해왔다. 전염병은 인간에게 소리 없이 침투하여 목숨을 빼앗아 가는 눈에 보이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최대의 적이다.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손실과 인명 피해를 받았다. 아시아경제(2015)의 전염병, 그 공포의 경제학 보도 자료에 의하면 사스와 에볼라는 세계 역사상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전염병이다. 세계은행(WB) 추산에 따르면 사스 발병 이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경제적 손실로는 한 해 기준 최대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전염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잘 알다시피 큰 피해를 준 전염병으로는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이 있다. 이러한 전염병으로 휴교령, 수학여행 및 군 휴가 자제령 등이 내려지며 우리 사회를 매우 힘들게 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의 경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발병했던 전염병보다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미치는 위력이 대단하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집단 폐렴에서 발견된 코로나 19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를 물론, 유럽, 북미 등 전 세계 대부분 국가로 빠르게 확산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으며, 2월 28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COVID-19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 단계로 상향하였고, 3월 11일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다(이무식, 2020).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2014), 오윤경 외(2020)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 단계 수준은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단계로 구분된다. 첫 환자가 발생한 즉시 위기경보 단계 수준을 '주의'(Yellow)로 격상하였고 1월 27일 무증상 감염자 2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위기경보 단계 수준은 '경계'(Orange)로 상향되었다.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으며,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Red) 단계로 상향하였다.

심각 단계는 국내에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의 시기에 해당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

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조선일보, 2020).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에 대해 지금까지의 감염병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추후 이를 위한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됨을 강조한다(김남순, 2020). 우리나라에서는 예방 및 대응책으로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 단체 활동 지양, 개인위생 철저 지침 등이 권고되었으며 개학 연기와 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화, 교회 및 집단시설 폐쇄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권오정, 2020).

특히 코로나 19 발생 이후 정부의 체육 관련 대응을 보면,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프로스포츠 중단·연기,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 폐쇄, 민간체육시설업 운영 제한, 교내 체육 활동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스포츠 시설을 포함했다(오마이뉴스, 2020).

이에 따라, 지역자치단체별로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지역 내 상당수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집단 체육시설, 체육도장업종에서 신체활동을 즐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으며, 지도자들 또한 체육현장이 아닌 택배회사와 대리운전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무예의 대표적인 종목인 복싱을 살펴보면, BC 668년 제23회 고대 올림픽대회 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1912년 10월 7일 단성사 주인인 박승필이 ‘유각권구락부’를 조직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했다. 1922년 YMCA 연중 행사로 복싱 경기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프로 복싱에서는 50여 명의 세계챔피언을 배출했으며, 아마추어 복싱에서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김주영, 2010).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엘리트 복싱은,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을 끝으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비롯하여 학교체육관과 기숙사 폐쇄,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등 실업선수와 학생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체계적으로 운동하지 못하고 있기에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활체육 복싱은 복싱 에어로빅, 태보, 필룩싱 등의 프로그램과 융합하며, 건강관리와 더불어 다이어트 등의 미용 목적으로 복싱의 인기가 증가해 전국 1,445여 개의 복싱체육관이 성업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팬데믹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팬데믹 무예의 대응과 그 미래” 2020 국제무예 학술세미나를 통해 복싱 종목에 처해있는 어려움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연구하여 시시각각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서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복싱 종목이 지니고 있는 전통성을 바탕으로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나아갈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2. 팬데믹 상황에서 복싱종목의 대응

① 엘리트 복싱 경기 사례

대회명 : 제50회 대통령배 전국복싱대회

기간 : 2020. 8. 18(화) ~ 27(목)

주최·주관 : 대한복싱협회

장소 : 충남 청양군민체육관

규모 : 중·고등학생선수 440명, 지도자 90명, 임원 70명



② 비대면 엘리트 복싱선수 지도 사례

소속 : 용인대학교

인원 : 지도자 1명, 선수 21명

장소 : 체육관, 운동장, 공원 등

훈련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지도



③ ZOOM을 활용한 교양 실기수업 복상지도 사례

소속: 용인대학교

인원: 교수 1명, 학생 30명

장소: 집, 공원, 주차장 등

훈련방법: ZOOM을 통한 비대면 지도



④ 온라인 복싱경연대회

주최 : 한국복싱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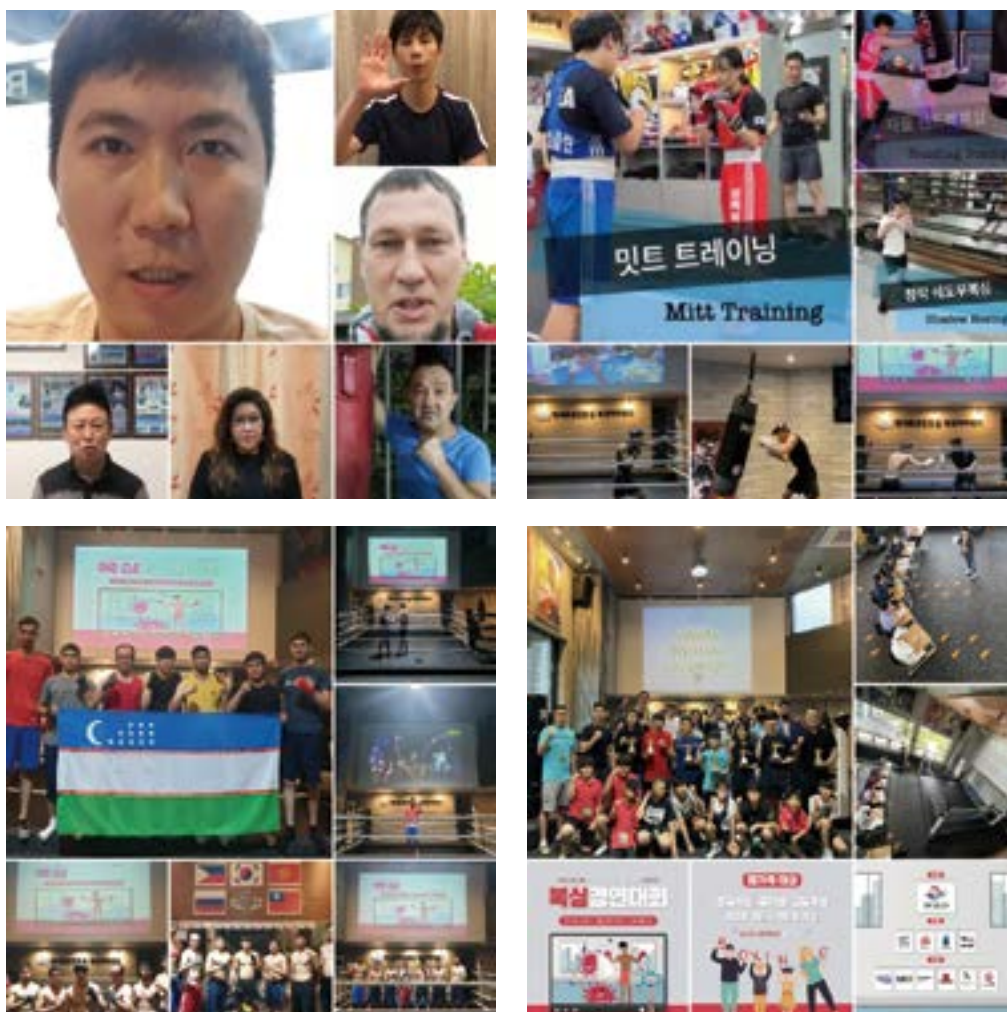
주관 :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한국체육지도자연맹, 두드림스포츠협회

후원 : 니피엘, 학교재깁러리, 오알에스, 에너부스터, 싸커 애플라인드

참여규모 : 500여명

종목 : 창작 웨도우복싱, 자울 샌드백복싱, 미트 트레이닝

심사 : 동작의 정확성, 창의성, 실용성, 조화로움, SNS 호응도



3. 결론

이미 장기화가 우려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방안을 찾는 중이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첫째, 제50회 대통령배 전국복싱대회에서 선수와 지도자 및 관계자들의 발열체크, 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무관중으로 안전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둘째, 집합금지 명령으로 불가능했던 엘리트 복싱선수의 훈련과 생활체육 복싱수업을 비대면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했다. 셋째, 복싱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복싱 종목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포츠가 직면한 현재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무예의 대표 종목인 복싱만 봐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복싱대회처럼 언택트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가 발전을 이룬 IT와 스포츠의 접목이 중요해졌다. IT 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복싱경기와 다양한 무예 종목의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홈 트레이닝과 비대면 트레이닝이 점점 부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면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IT 융합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무예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정(2020). 코로나19에 의한 노인 운동행동 변화 사례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31(2), 123-134.
 기획재정부(2020, 5월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도자료
 김남순(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과 과제. 보건 복지 Issue & Focus, 373, 1-13.
 김명지(2020, 2월 23일). 정부, 마침내 우한코로나 경보 '심각'상향. 조선일보
 김병기(2020, 3월 21일). "교회 포함 체육도장·유흥주점 등 보름간 운영중단 권고". 오마이뉴스
 김주영(2010). 복싱클럽 마케팅믹스 요인에 따른 고객만족, 관계품질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보건복지부(2014).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오윤경, 류현숙, 허준영, 김황열, 김대훈(2020). 코로나19 감염증 사례로 본 감염병 재난 대응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이무식(2020).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과 위험소통에 대한 단상(斷想).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103-107.
 조영주, 조슬기나(2015, 6월 8일). [메르스 공포]전염병, 그 공포의 경제학. 아시아경제

Pandemic and the Response of Martial Arts [Boxing – a Case Study]

Jooyeong Kim

Department of Combative Martial Arts Training
Yong In University

1. Introduction

Throughout human history, we have fought infectious diseases. These diseases cannot be seen, but they infiltrate our body and claim our lives nonetheless. They are our unavoidable arch nemesis. Infectious diseases take their toll in lives and damages all over the world.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by Asia Economy ('Infectious Diseases and the Economy of Fear,' 2015,) SARS and Ebola were the disease that caused the highest economic damages in history. According to the estimation by the World Bank, the economic damage caused by SARS, since its beginning in 2002 to 2003, was up to 50 billion dollars per year.

South Korea was not immune to these damages. As we all know, some of the infectious diseases that caused serious damages include the swine flu, SARS, and MERS. These diseases resulted in school shutdowns and cancellation of school trips and military furloughs, which were tough for everybody. The recent COVID-19 pandemic is highly devastating in terms of economic and social fallouts compared to the infectious diseases of the past.

COVID-19, which started from a group outbreak of pneumonia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spread to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n to the entire world including Europe and North America. The WHO declared a PHEIC (an international health crisis) due to COVID-19 on January 30, 2020, which was followed by raising the risk level of COVID-19 in the world to 'very high' on February 28. It finally declared a pandemic on March 11 (Mooshik Lee, 2020).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in South Korea was a Chinese national who entered the country via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from Wuhan, China, on January 20, 2020. According to the 'Standard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ual'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oongyeong Oh et al., 2020,) the crisis declaration levels are, from the lower to higher levels, Blue, Yellow, Orange, and Red. After the first

confirmed case, the crisis warning level was raised to Yellow immediately. After two more confirmed asymptomatic cases on January 27, the crisis warning level was increased again to Orange. This was followed by a regional outbreak in Daegu and Gyeongbuk area due to a certain religious group, which caused the crisis warning level to be raised to the highest level, Red, on February 23.

The Red level indicates a nationwide spread or community spread of a novel infectious disease of foreign origin. While the disease control system of KCDC and the Central Response HQ were maintained, the HQ was promoted to 'the Central Disaster Response HQ' headed by the Prime Minister, to strengthen the support system of the entire government in harmony with the entirety of the government resources being dedicated to response efforts (Chosun Ilbo, 2020).

Experts said COVID-19 was different from any infectious diseases we experienced so far and called for a variety of countermeasures to fight it (Namsoon Kim, 2020). South Korea saw various measures being taken to prevent and cope with the disease, including wearing masks and social distancing, discouraging social gatherings and promoting thorough personal hygiene. Schools postponed reopening, and anyone entering the country was required to self-isolate. Venues of gatherings such as churches or other similar facilities were locked down in a series of social changes (Ohjeong Gwon, 2020).

The government's response involving sports since the beginning of COVID-19 included suspending or postponing professional sports events, shutting down indoors and outdoors public sports facilities, limiting the operation of private sports facilities, and suspension of PE activities in schools. The government tagged sports facilities as 'danger zones' of infections due to the risk of transfer by droplets or contacts because of the proximity between occupants in a confined area.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shut down their public sports facilities or convention facilities. This made it very difficult to use the sports facilities in local communities. It also became more difficult to find people enjoying physical activities at group sports facilities or gyms, while instructors have to resort to courier jobs or chauffeur service jobs to support themselves.

As for boxing, which is one of the best-known martial arts, it was included as an official event in the 23rd ancient Olympic Games held in BC 668. The first boxing club in Korea was organized by Seungphil Park, the owner of Dansung Theater, on October 7, 1912, which was when boxing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The first boxing matches were the matches thrown by YMCA as a yearly event. After that, South Korean pro-boxing saw 50 world champions, while South Korean amateur boxing achievements include three Olympic gold medals, seven silvers, and ten bronze (Jooyoung Kim, 2010).

The elite boxing of South Korea after pandemic experienced a series of setbacks since the end of the qualification rounds for the 2020 Tokyo Olympic Games, including the shutdown of school gyms, dormitories including the national team training complex. Also, the switch to non-contact classes is

preventing amateur boxers and boxing trainees in schools from having systematic training, which makes it impossible to expect progress in their development.

With regard to boxing as a life sport, it became more and more popular due to its effectiveness in weight loss and health management as it merged with other sports such as aerobics, taekbo, and philoxing. Now, there are more than 1,445 boxing gyms in South Korea, but they are likewise facing a crisis due to the pandemic.

Therefore, the researcher intends to study the difficulties the boxing community is facing and how it is coping with such an issue as a presentation for the 2020 International Martial Arts Academic Conference, under the theme of 'Martial Arts' Response to the Pandemic and The Future.' It is the intent of the author to find a new direction to overcome the pandemic crisis and venture into a better future based on the tradition and legacy of the historical martial art.

2. The response of boxing to the pandemic

(1) Elite boxing matches

Name of the event: 50th Presidential Cup National Boxing Match

When: From August 18 to 27, 2020

Host/organizer: Korea Boxing Association

Where: Cheongyang Citizen's Sports Center, Chungnam

Participants: 440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ontenders, 90 coaches, and 70 executives



(2) A case of non-contact elite boxer coaching

Organization: Yongin University

Participants: 1 coach, 21 athletes

Venue: Gym, field, and parks, etc.

Training method: Non-contact coaching using Zoom



(3) Liberal art practical boxing classes using Zoom

Organization: Yongin University

Participants: 1 professor, 30 students

Venue: Home, parks, or parking lots, etc.

Training method: Non-contact coaching using Zoom



(4) Online boxing competition

Hosted by: Korea Boxing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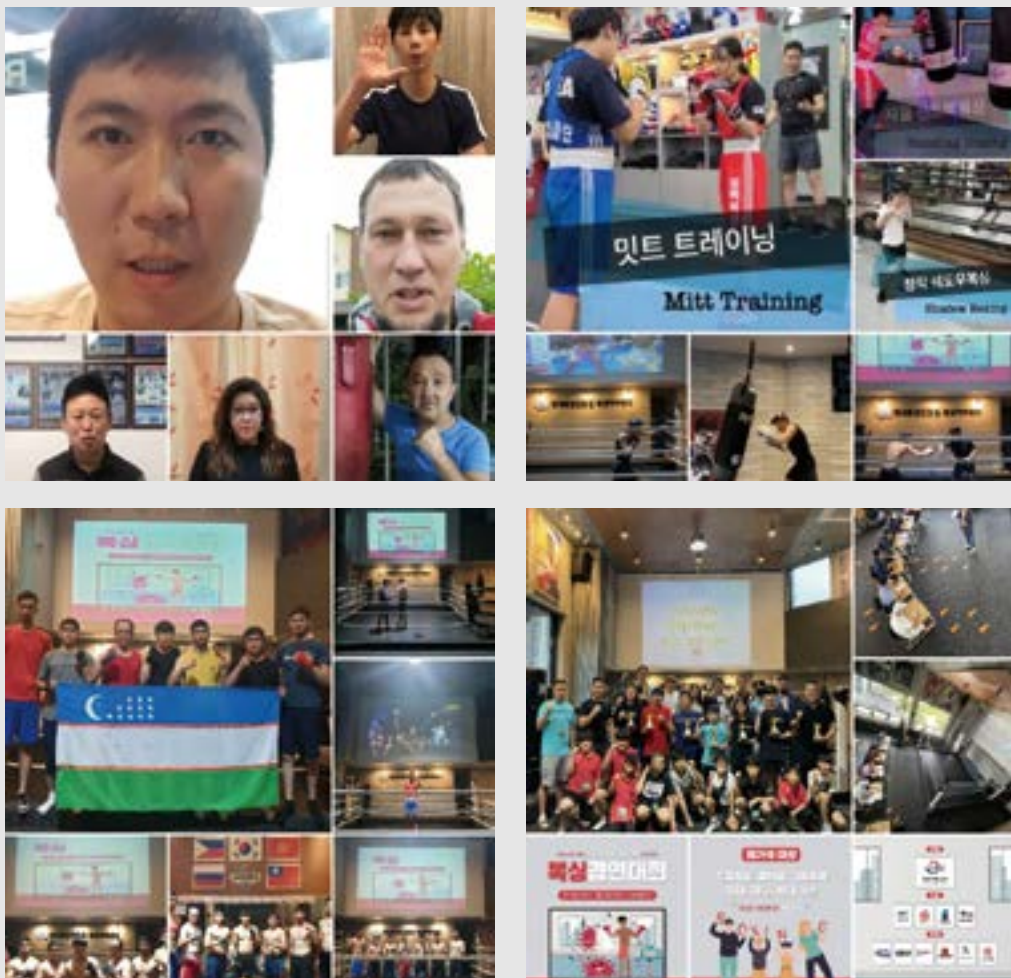
Organized by: International Sports Strategies Committee, Korea Sports Coaches Association, Dudurim Sports Association

Sponsored by: Nipiel, Hakoje Gallery, ORS, Enerbooster, Soccer Appliend

Participants: More than 500

Items: Creative shadow boxing, free sand bag boxing, mitt training

Evaluation criteria: Accuracy of moves, creativity, practical values, harmony, and SNS reactions



3. Conclusion

The pandemic is already feared to become a long-term issue. We are still looking for a strategy to help us navigate through this crisis. First, during the pandemic the 50th Presidential Cup National Boxing Competition was successfully executed, without audience, while the athletes and coaches, as well as others involved in the event were scanned for their body temperature and required to wear masks. Second, the systems that would allow the athletes and their coaches to train, which was impossible due to the ban on social gathering, are now in place. Third, the boxing match was held online to provide a new paradigm to the event, while it also revitalized sports to give a breakthrough out of the current crisis.

As such, the most representative martial art, boxing, has experienced a lot of challenges with various experiments still being carried out. The contactless method, like the online boxing match, is gain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erefore, joining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IT and sports became more important. It would be possible to create new forms of boxing matches, as well as matches of other martial arts, by introducing IT.

The importance of home training and non-contact training will become more significant in the future. Therefore,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and promote non-contact training programs. For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a new paradigm beyond IT convergence, in order to provide the new direction for martial arts.

References

- Ojeong Gwon (2020). A Case Study on the Changes in the Sports Behavior of the Elderly Due to COVID-19 Korea Journal of Sports Psychology 31(2), 123-134.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ay 28, 2020) 'The 5th Emergency Economy Central Response HQ Meeting,' Press Release
- Namsoon Kim (2020).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due to COVID-19.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373, 1-13.
- Myoungji Kim (February 23, 2020) 'The government finally increased the Wuhan Corona Warning Level to Red' Chosun Ilbo
- Byunggi Kim (March 21, 2020) "Churches, Pubs, and Gyms Advised to Shut Down for 15 Days" Ohmynews
- Jooyoung Kim (2010). The Influence of the Marketing Mix Factors on Customer Satisfaction, Quality of Relations, and Intent of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Gyeonggi Universit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The Standard Manual to Manage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 Yongyeong Oh et al., 2020 Issues in Responding to an Infectious Disease Disaster and Implications in Policy: A Case Study of COVID-19
- Mooshik Lee (2020). A thought on the safety guidelines and communication of risks to prevent COVID-19 Health and Education Promotion Association, 37(1), 103-107
- Youngjoo Cho et al. (June 8, 2015). [The fear of MERS] Infectious Diseases, the Economy of Fear Asia Economy

세션
SESSION

2

리빙 헤리티지 시리즈 <전통무예> 출판기념회

Living Heritage Series <Traditional Martial Arts>

좌장
Moderator

• 박성용
Seongyong Park

발표
Speaker

• 박성용
Seongyong Park

• 산코 루이스
Sanko Lewis

토론
Discussant

• 김수진
Sujin Kim

• 임현경
Hyeonkyeong Im

무형유산으로서 전통무예의 보호 노력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개발실장

1. 들어가는 말

무형유산은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도시화 현상에 맞서서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간 다양성과 상대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화간 대화(intercultural dialogue)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유산의 상당수가 세계화, 문화적 동질화, 지원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무형유산은 시대와 환경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형유산을 보호, 육성하지 않으면 해당 유산은 영원히 소멸되거나 과거의 관습으로 고착되어 굳어질 수 있다. 무형유산을 보호(Safeguarding)하는 것은 유형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과 방법이 필요하다. 무형유산은 특정 문화로서 그 의미가 지켜져야하며 공동체 및 세대간 정기적인 연행과 학습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미래세대에 전수하는 일은 유산이 당면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을 허용하고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동시에 전승을 강화하여 공동체에 문화적 정체성 및 소속감과 연속성을 부여한다.

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세계화 및 도시화로 야기되는 무형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위기의식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 분야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국제기구이다.

무형유산은 각기 다른 환경과 유구한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창조된 국가 또는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 자원이다. 우리 센터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관심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전통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정보의 기록·보존 및 활용,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무형유산 가시성과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활동을 위한 ICHCAP의 다양한 활동 중 한 부분인 '무형유산 도서 발간 사업'은 출판물을 통한 무형문화유산관련 정보와 답론을 수집, 기록 및 보호하고 도서를 통해 독자들의 무형유산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도서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출판사업은 무형유산 특정 종목에 대한 지역, 국가별 전승 및 보호 현황을 다루는데 목적이 있으며, 도서로 주제별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무형문화유산의 소개를 통해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가시적으로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도서사업은 2016년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중 무형유산 NGO포럼측과의 협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ICHCAP은 무형유산 NGO포럼의 온라인 저널인 헤리티지얼라이브와 협력하여 격년으로 출판을 시작, 2017년에는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첫 도서인 <전통의술>을 출판했다. 2018년에는 당진시와 협력하여<줄다리개>도서를, 2019년에는 <전통음식>을 출판했다. 2020년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네번째 도서는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ICM)과의 공동 협력으로 기획되었으며 ‘무형유산으로서의 전통무예’가 주제로 선정되었다.

3. 무형유산과 문화다양성

전통무예는 공동체 및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중요 무형유산으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 무형유산이다.

무예는 개인 및 공동체의 역사 및 정체성과 밀접히 맞닿아 전승, 발전되는 무형유산으로 신체적 단련뿐 아니라 정신성 수양을 통해 스스로를 정제하고 한계를 극복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와같은 무예의 철학과 가치는 세대를 거쳐 전승 및 변천과 재창조를 거듭하며 공동체의 삶에 녹아져 있으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전통무예> 출판은 무형유산으로서 전통무술의 가치를 조명하고 잘 알려지지않은 여러 지역의 전통무예를 소개하기위해 진행되었다. 본 도서는 초기 기획 및 원고 공모 단계부터 무형유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각국의 전통무예의 가치 서술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는 전통무예를 설명하고 기술하는데있어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특성을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유산 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2003년 협약)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2003년 협약의 기본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을 확인과 보호,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존중 그리고 지역, 국가, 국제 차원에서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상호 이해 증진, 국제 협력과 지원 도모에 있다. 협약 제2조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Safeguarding) 활동에 대해 정의한다.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는 구전 전통 및 표현(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공연 예술(performing arts), 사회적 관습·의례 및 축제(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전통 공예기술(traditional craftsmanship)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인류 문화발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Safeguarding)’는 확인(identification), 기록(documentation), 조사(research), 보존(preservation), 보호(protection), 증진(enhancement), 전승(transmission), 유산의 활성화(revitalization) 등 유산의 생명력(vi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뜻하며, 2003년 협약은 각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특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무형유산의 ‘보호(Safeguarding)’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해당 공동체, 집단, 개인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1차적인 관리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 종목이나 공동체 그리고 문화 간 서열화(hierarchy)가 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협약의 기본 정신으로 이해되고 있다. 더 나아가, 협약의 이행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대화와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국제 협력에 있어서 지역적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최근 수년간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성에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유엔은 17개 분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한바 있고 사회 발전의 전 부문에서 이들 목표의 성취를 독려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03년도에 채택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무형유산은 문화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보장수단 (a mainspring of cultural diversity and a guaran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무형유산으로서 전통무예의 가치

이번 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전통무예’ 또한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으로 각 지역과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양상과 함께 발달해왔으며, 전 세계에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개의 무예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도, 태권도, 무에타이 등 극히 일부 무예들만이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제도화된 종목으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수련인구를 보유하고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주류 무예이자 상업 스포츠로 발전해왔다. 이와는 달리 대다수의 무예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 도태되고 있으며 때로는 소멸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유네스코는 2008년부터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무예들을 보존하고 진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한국 전통무예인 택견이 순수 무예로서는 처음으로 등재되었고, 이어서 브라질의 카포에이라, 카자흐스탄 쿠레스 등 다양한 무예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8년에는 한국의 전통 레슬링인 ‘씨름’이 남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심신 수련과 자기 절제, 공동체 의식 함양 등 가치를 내포하는 무예가 국가 간 교류와 화해의 매개로서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463개 중 무예가 14개 등재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무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무예진흥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17년 제6회 세계체육장관회의(MINEPS)에서 카잔 실행계획(Kazan Action Plan)이 마련되면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체육 교육과 스포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카잔 실행계획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및 체육 활동이 폭력에 저항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바탕임을 강조하였다. 무예와 스포츠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위한 도구로서 무예의 역할과 잠재성 또한 인정받게 된 셈이다.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4 <전통무예>는 스포츠, 체육활동이 인류 평화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자 권리라고 생각하는 시류에 발맞추고, 동시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통무예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증진하고자하는 양기관의 공동협력의 결실이다. 이와같은 노력이 무형유산으로서 전통무예의 보호와 전승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강인한 정신성과 건강성 함양에 이바지하는 전통무예의 정신을 소개함으로써 현재의 코비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원한다.

Efforts to Protect Traditional Martial Art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ongyong Park

Assistant Director General of ICHCAP

1. Introduction

Intangible heritages are an important factor in preserving cultural diversity faced with the challenges of accelerating globalization and urbanization. At the same time, it plays a pivotal role in leading intercultural dialogues to ensure that cultures respect and understand diversity and difference. However, many intangible heritages in the world are in danger due to globalization, cultural assimilation, and lack of support and understanding. Intangible heritages change and evolve constantly, reflecting the time and environment. Therefore, if no effort is made in preserving and cultivating them, intangible heritages will perish or diminish into old, lingering habits.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s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than those used in protecting tangible heritages. Intangible heritages must be preserved as a certain form of culture. The practices and training must be carried out regularly in a community and between generations. Succession of the heritage allows adaptation to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continuous re-creation, while reinforcing the transfer and enhancing the sense of identity, continuity and belonging in a community.

2. Efforts to preserve intangible heritages by the UNESCO Asia-Pacific Intangible Heritages Center

UNESCO Asia-Pacific Intangible Heritages Center is the first Category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UNESCO in South Korea, with a mission to preserve intangible heritages and promote them in cooperation with 48 UNESCO member states in Asia Pacific. These efforts are carried out amidst a global crisis with potential damages on intangible heritages due to globalization and urbanization.

Intangible heritages are valuable cultural resources of humanity showcasing the identity of a country or a community in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in different environments. Our center has been engaged in various programs to record, preserve and utilize the information on intangible heritages, build international and domestic networks, and enhance the awareness and visibility of intangible heritages. Our objective is to protect various traditional heritages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that are now at risk due to the waves of globalization and lack of interest.

One of the programs of the ICHCAP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heritages, the ‘publication of books on intangible heritages’ aims to enhance the interest in intangible heritages by the leaders while gathering, recording, and protecting the information and discours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via publications. The living heritage series publication program is intended to cover the local and national traditions and protect specific categories of intangible heritages. These books introduce the intangible heritages in each region, in order to maintain cultural diversity that UNESCO emphasizes and enhance their values in a visible manner. This publication program originated from the discussion with the NGO forums on intangible heritages during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11st UNESCO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cord. As a result of this program, ICHCAP cooperated with Heritage Alive, which is an online journal of the intangible heritages NGO forum to issue biannual periodicals. In 2017, it published the first volume of the living heritage series, titled ‘the Alcohol of Tradition.’ In 2018, ‘Tug-a-War,’ was published in cooperation with the city of Dangjin, while ‘Traditional Foods’ was published in 2019. The fourth volume of the living heritage series for 2020 was planned jointly with the ICM. The selected theme of this publication was ‘traditional martial arts as intangible heritages.’

3. Intangible Heritages and Cultural Diversity

Traditional martial arts are important intangible heritages for the sustainable life of communities and humanity. They are important intangible heritages that could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goal of the UN, which is sustainable development.

Martial arts are a type of intangible heritages which are handed down and developed closely representing the history and identity of a person and a community. It is not only about physical training but also mental enhancement, teaching how to discipline oneself, overcome limits, and be kind to others. Such philosophies and values of martial arts are handed down and evolve over generations as they are recreated and blend into the life of the community, contributing to a healthier society.

The publica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s a part of the living heritage series was intended to introduce various martial arts in different communities where martial arts are not widely known, while highlighting the values of traditional martial arts. From the initial planning and during the call for draft contribution, the aspect of describing the values of martial arts of different countries in the perspective

of intangible heritages was emphasized. This included the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artial arts in describing them as intangible heritages. At the same time, this extended the idea of UNESCO's 2003 accord on protecting intangible heritag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2003 accord), which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paradigm of intangible heritages policies.

The basic idea of the 2003 accord was to identify and protect cultural intangible heritages; respect the intangible heritages held by a community, group, or individual; promote the awareness and mutual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heritages in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d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Article 2 of the said accord defin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their 'safeguarding' as follow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means "the tools of transfer, objects, artifacts, and cultural spaces, as well as customs, expressions, knowledge, and technique." The categories of intangible heritages included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traditional craftsmanship. In other words, almost anything that is related to the cultural development of humanity can fall into this definition.

In the said accord, 'safeguarding' means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and revitalization (or any action that is intended to secure the vitality of heritages.) The 2003 accord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endangered intangible heritages,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representative intangible heritages of each country.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participation by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s is emphasized here. This is because the said community, group, or individual serves as the party with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handing down and protecting intangible heritages. In additi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accord also state that there shall not be any hierarchy between the categories of intangible heritages, communities, or cultures. Further, the performance of the accord must promote the convers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of intangible heritages and seek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more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heritages and sustainability. The UN set the SDGs for 2030 in 17 areas and is encouraging the achievement of these goals in every sector of society. In the 2003 accord, UNESC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heritages as 'a mainspring of cultural diversity and a guaran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

4. The value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s cultural heritages

The traditional intangible heritages covered in the said book has also been developing along with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relevant region or country as an important intangible heritage.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more than several hundred and even up to several

thousand martial arts in the entire world. However, only a handful of them, such as Judo, Taekwondo, and Muay Thai, have taken root as institutionalized sports through systematic support and endeavors, with so many researchers and trainees all over the world. Along with institutional and financial backing, these martial arts developed into mainstream martial arts and commercial sports. This is not the case with the majority of martial arts, which are being degraded under poor conditions, with some at the brink of extinction.

UNESCO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eserving and promoting these martial arts through the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program 2008. In 2011, Taekkyeon, South Korea's traditional martial art, was enlisted as the first martial art in the program, which was followed by Capoeira of Brazil, Kureshi of Kazakhstan, and many other martial arts that were recognized for their value as intangible heritages. In 2018, Ssirum, the traditional wrestling of Korea, was also enlisted as one of the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jointly under the name of North and South Korea. This was a case where a martial art, bearing the values of physical and mental training, self-discipline, and enhancement of the sense of community, was recognized as a medium of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and exchange.

Over the past decade and onwards, a total of 14 martial arts were enlisted as part of the 463 representative items of the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This served a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enhance the awareness of the values of martial arts and promoting them globally. Also, with the Kazan Action Plan established during the 6th MINEPS meeting in 2017, PE and sports became even more important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ks to fulfill its sustainable growth goals. The Kazan Action Plan emphasized that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are important bases in creating a healthy, sustainable society while resisting violence. In consideration of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artial arts and sports, it can be said that the roles and potential of martial arts, as a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re also recognized.

Vol. 4 of the Living Heritage Series, "Traditional Martial Arts," corresponds to the trend that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are the best tool to realize world peace while existing as a basic right of the people at the same time. It is the fruit of the efforts of the two organizations that wish to protect and preserve the values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s intangible heritages, according to the idea of the accord. It is hoped that such efforts serve as the basis for the protection and transmiss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s intangible heritages. In addition, Intangible Heritage Center of UNESCO introduces the principles of martial arts to advocate mental strength and health, so that the current COVID-19 crisis can be overcome.

전통 무용 및 무예에서 한국 신체 문화 보존

Sanko Lewis

삼육대학교 인문사회학부

1. 서론

전통무용이나 전통 무예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문제 중 하나는 무형이라는 점이며, 무형이라는 점 때문에 보존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박물관 전시도 불가능 하고, 금고에 넣고 잠가 보관할 수도 없으며,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형문화제를 후손들을 위해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 관습적으로 이런 전통 기술은 연장자가 아이들에게, 대가들이 제자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전수한다. 그러나 학자들에게도 민족지적 표기법 즉,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주석, 기술을 통해 이러한 동적 지식의 생존을 보장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는 내가 유네스코의 리빙 헤리티지 시리즈 ‘문화 유산으로서 전통 무예’ 책에 기고한 원고의 목표와도 같다.

나는 약 25년 전부터 태권도를 수련해왔다. 10년 전 한국으로 이사 왔을 때 합기도와 택견을 배웠는데, 그 당시에 나는 내가 수련하고 있던 한국 무예들 사이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 각 무예간에는 유사한 기술도 있지만, 이것은 공통된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예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공통된 방식을 말한다. 나는 한국 전통 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한, 수많은 공연도 참여했다. 이처럼 많은 공연에 참가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전통무용수들의 움직이는 방식과 내가 수련하고 있던 한국 무예의 동작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관찰한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나는 전통무용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국립극장에서 무용 수업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의 타악기인 장구 치는 법에 대한 수업도 들었다. 한국의 전통 박자를 더 잘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관찰을 결합하여 발표된 문헌과 나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였으며, 수년에 걸쳐 많은 한국 전통 무용 안무가, 무용수, 무예 지도자들과 일상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비록 다양한 한국 전통무용들과 전통 무예들 사이의 차이점은 많지만, 한국 고유의 취향을 전하는 특별한 개념, 동작의 패턴, 운동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한국 전통 신체 문화의 일곱 가지 동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일곱 가지 특징은 직립자세 또는 곧은 척추, 단전호흡, 굴신, 한국 삼박자 리듬, 동적 연결, 곡선과 동작, 역균형 동작이다. 이러한 특징이 모든 동작에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이 동작들의 시너지효과가 한국적인 것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I. 한국 신체 문화의 동적 특징

A. 직립자세

한국의 전통 무용과 무예는 머리, 어깨,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정렬되어 척추를 곧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척추가 뻗뻗하거나 단단한 직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똑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말한다. 대부분의 한국 전통 무용에서는 엉덩이를 흔들거나 가슴 또는 사타구니를 밀어내는 동작이 보수적 유교 도덕성에서는 지나치게 성적으로 받아들인다. 일부 무용 동작에서 무용수가 엉덩이를 구부리거나 다소 몸을 숙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척추는 일반적으로 곧게 유지한다.

이는 무예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직립 자세가 균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민속 무예인 택견을 보자. 경기의 주요 목표는 쓸기와 던지기를 통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직립이 아닌 불균형 자세는 쉽게 넘어지게 된다. 씨름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운동에서 선수들은 상대방의 체중을 감내하고 신체적으로 서로 연결 되어 있으므로 자세가 똑바르지 않다. 그러나, 엉덩이에서 신체가 굽어질 수 있지만, 씨름 선수들은 그들의 코어 근육이 맞닿아 있으며 그들의 척추를 곡선 보다는 곧게 유지한다.

B. 단전호흡

적절한 호흡은 효과적인 신체 활동의 핵심이며 좋은 자세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 전통 무용은 호흡선 또는 '호흡라인'과 척추선을 동일시한다(Lim, 2003). 마찬가지로, 자세와 호흡은 무예 수련에서 동시에 다룬다. 구부러진 자세가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호흡을 억제하여 불필요한 근육 긴장, 조기 탈진, 산만한 기술로 이어진다.

한국 무용과 무예는 단전 부위에 초점을 맞춘 복식 호흡의 일종인 단전호흡을 강조한다. 단전은 배꼽 아래 하복부의 천골 차크라에 해당한다. 단전호흡의 중요한 개념은 호흡이 폐가 아닌 단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국 전통 무용과 무예의 동작은 호흡을 통해 활성화되고 동기화된다. 한국 전통 무용과 무예에서 동작은 보통 흡기로 시작되고 호기로 끝난다.

C. 굴신

한국 신체 문화의 주요 특징은 신체의 펌 또는 신장, 수축 또는 단축인 굴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미묘함과 지나침 모두에서 발생한다. 굴신의 미묘한 발현은 단전호흡을 통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신체가 팽창하고 척추가 호흡으로 길어지게 된다(Van Zile, 2018: p.100). 과다 발현은 무릎의 굽히고 펴고 같은 관절 펴짐 및 수축을 통해 사지에서 발생하며, 오금질로 알려져 있다. 오금질은 힘줄의 자연스러운 탄성을 활용하여 스텝에 용수철 같은 특성을 더해준다. 택견의 기본 스텝인 '품밟기', 태권도의 대련 시 스텝, ITF 태권도의 '무릎 탄성 동작', '오금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한국 전통무용에서 '무릎 춤'으로 번역된다. 이 모든 경우의 결과는 움직이는 동안 신체가 상하로 진동하는 것이다. 즉, 신체는 시각적으로 상하로 진동하며, 때로는 '물결질'이라고 불리는 무릎 춤 또는 파도 같은 발 동작으로 나타난다. 일부 태권도 집단에서, 이 파도 같은 동작을 한국어로 활동파도로 알려진 등 곡선 모양에 비유하며 영어로는 '사인파' 곡선으로 비유한다.

굴신(땀 수축)은 무릎의 오금질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체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 무용에서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어깨 춤"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전사들이 말을 타고 움직이는 방식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씨름과 합기도 같은 무예에서, 굴신의 펌과 수축 원리는 잡고 던지는 기술의 특징인 밀고 당기는 동작과 관련 있다.

D. 삼박자 장단

한국 전통음악은 일반적으로 조금 느린 속도의 장단에서 빠른 속도의 장단으로 이어지는 삼박자 장단을 따른다(Sheen, 2013). 전통 무용에서 삼중 장단은 앞서 언급한 상하 진동과 연결된다. 처음 두 장단에 대한 짧은 정지로 이어지는 상승작용과 세 번째 장단의 하향 이동 직전 두 번째 장단 끝에 약간의 끊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어지는 상승 작용이 있다(Van Zile, 2001: p.14).

한국 전통 무예의 기본 동작도 이 삼박자 장단에 따라 훈련한다. 예를 들어 ITF 태권도 기술의 사인파 동작에 최초 이완, 신체 상승, 신체 하강 기술을 포함하는 삼박자 장단이 있다. 택견의 기본 동작도 한국 전통 음악의 장단을 유지하면서 삼각형 세 모서리에 교대로 스텝을 밟는 '정삼각형 품밟기'로 알려진 삼박자 패턴을 따른다.

E. 동적 연결

동적 연결이란 '신체 특정 부위에서 인접 부위로 순차적 동작의 흐름'을 말한다(Van Zile, 2018: pp.308-307). Judy Van Zile는 동적 연결이 한국 무용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2018: p.307):

주변 신체부위에 손목의 미묘한 맥박 동작 같은 작은 움직임이 있는 때라도, 동작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몸통[단전]에서 유래된 흡기로 시작되어, 척추가 수직으로 길게 늘어나고, 어깨가 들어 올려지며, 손목의 동작이 나타나기 전 전체 팔을 통해 에너지와 동작이 전달된다.

한국 무용에서 '동작은 중앙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주변 신체 부위까지 진행된다' (2018: p.307).

또한 동적 연결은 여러 한국 무예 기술에서 기저부나 신체중심(단전)부터 신체 말초부위까지 채찍질과 같은 방식으로 적절한 기술이 진행되는 경우 힘이 생성되며, 축적된 운동에너지는 박동으로서 목표 부위로 전달된다. 채찍질이라는 용어는 때로 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일부 그룹에서는 중국 무예에서 나타나는 개념인 '발경'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F. 아름다운 곡선

한국 무용 및 많은 한국 무예의 미적 특징은 곡선이다. 동작이 엄격한 직선 궤적이 아닌 곡선 궤적을 따르는 것은 부분적으로 앞서 논의한 동적 연결의 결과이다. 곡선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미적 정서 때문이기도 하다. 곡선미라는 용어가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인은 곡선을 아름답다고 간주할 뿐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도 본다.

금실과 오금질의 결과로 한국 무용과 무예의 파도같은 발 동작(물결질)에서 자연스러운 곡선이 두드러진다. 또한 한국 전통무용에서 동적연결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곡선 동작으로 팔을 돌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국 무예는 한 동작으로만 신체의 일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동작이 자연스러운 동적연결로 발차기와 타격을 연결하는 채찍질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호와 나선형 동작도 움직임의 특징이 될 수 있다.

G. 역균형 동작

한국 전통 무용 동작은 균형 잡힌 또는 균형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무용에서 가장 기초적인 동작 중 하나는 허리감기사위라 불리는 팔 동작이다. 동작 개시 시점에 한 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단전을 부드럽게 잡고 있는 것처럼 몸 앞에 두고 반대쪽 손은 같은 높이로 등에 둔다. 무릎은 함께 모아 금실 준비를 위해 약간 구부린다. 동작은 단전 흡입, 동기화 된 무릎 굽힘 및 양팔을 벌린 채 시작된다. 순차적 호기와 함께 무릎을 다시 굽히고(오금질) 두 팔을 다시 꼬아서 앞에 있던 손을 뒤로 보내고 반대쪽 손은 앞으로 보낸다. 이러한 역균형 동작은 위의 예와 같이 대칭 반전이 될 필요는 없지만 비대칭적으로 시각화된 신체의 다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왼쪽 발을 들어 올리는 데 오른팔을 펴서 역균형 동작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한국 전통 무예에서도 유사한 역균형 동작이 눈에 띈다. 택견에서 양팔을 교대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는 경우, 좌우로 “양 날개”를 흔드는 활개 흔들기와 “양 날개”를 회전시키는 활개 돌리기를 하는 ‘품밧기’가 있는데 이 때 한 손이 높은 위치이고 반대쪽 손이 아래 위치에 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예로 많은 무예에서 펀치 또는 타격하는 동안 “손을 당기는” 동작이 있다. 한 쪽 팔을 목표 쪽으로 뻗으면 반대쪽 팔은 종종 엉덩이까지 뒤로 당겨진다.

무예에서 이러한 역균형 동작은 종종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첫째, 문자 그대로 역균형 동작이다. 예를 들어, 발차기 과정에서 양팔은 역균형 동작으로 발차기 궤적의 반대 방향에 위치하여 발차기를 하는 순간 수련자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역균형 동작은 전술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손을 당기는” 동작으로 상대방을 실제로 잡고 당기는 데 사용하고 반대쪽 손으로 공격한다. 택견에서의 한 예로는 ‘발회목잡고 어깨 째미’라는 기술이 있다. 이는 수련자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 상대방 한 쪽 어깨를 한 손으로 밀고 다른 한 손으로 상대방 반대쪽 다리를 당기는 것이다. 씨름 기술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뒷무릎치기’는 씨름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 상대방 무릎 뒷부분을 당기면서 상체를 밀어내는 것이다.

무예와 한국 무용에서 이러한 역균형 동작은 종종 음악의 양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음악은 도교의 우주론에서 기원한 개념이다(Yoo, 2007: pp.77, 80).

III. 결론

이와 같이 민족지적 표기법은 무형문화재 보존의 한 가지 방법이다. 이를 위해 나는 한국 전통 동작 분야로 독특한 한국적 취향이 드러난 무용과 무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곱가지 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특징들은 직립자세 또는 곧은 척추, 단전호흡, 굴신, 한국 삼박자 리듬, 동적 연결, 곡선과 동작, 역균형 동작이며 이러한 특징은 한국 전통무용과 택견 및 태권도와 같은 한국 전통무예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일부 태권도 형태는 스포츠 규칙 변화와 대중 음악 리듬 포함으로 인해 전통적인 신체 문화를 잃어가고 있다. 훈련 방법과 경기 규칙을 변경하고 K팝 음악과 댄스를 통합하여 젊은 층에게 호소하고 싶은 전통 무예에 대하여 경고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더 젊은) 층에게 무예를 더 노출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대중적이 되기 위한 시도로 인해 현대 태권도는 한국 전통 신체 문화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전통적인 본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 무예는 대중성을 위한 변화 시, 전통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유의 특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Chapter Reference List

- 김영만. (2012) 택견 기술의 과학적 원리. 파주시: 한국학술정보. [Korean Publication: Kim, Y. M. (2012) Scientific Principles of Taekkyeon Techniques. Paju City: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 도기현. (2007) 우리 무예 택견. 서울시: 동재. [Korean Publication: Do, G. H. (2007) Our Martial Art Taekkyeon. Seoul: Dongjae Publications.]
- 최홍희. (1990) 태권도: 배달민국 호신술. (제3판.) 4권.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Korean Publication: Choi, H. H. (1990) Encyclopedia of Taekwon-Do. (3rd edition.) Vol. 4. Pyeongyang: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 Capener, S. (2019) The Dismantling of a Martial Sport: How Korea Created and then Destroyed Taekwondo.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Taekwondo 2019: Overcoming the Self to Benefit the World.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16-17 February.
- Choi, H. H. (2019) Encyclopedia of Taekwon-Do. (Digital Edition.) Vienna: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 Defrantz, T. F. (2004) The Black Beat Made Visible: Hip Hop Dance and Body Power. In Lepecki, A. (ed.) Of the Presence of the Body: Essays on Dance and Performance Theory.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File, C. (2013) Korean Dance: Pure Emotion and Energy. (Korea Essentials No. 15.) Seoul: The Korea Foundation.
- Lie, J. (2012) What Is the K in K-pop? South Korean Popular Music, the Culture Industry, and National Identity. Korea Observer. Vol. 43. No. 3. pp. 339-363.
- Lim H. S. (2003) A study on breathing type in breath structure of Korean dance. The Korean Journal of Dance. Vol. 35. pp. 139-152.
- Kil, Y.S. (2006) Competative Taekwondo.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Kim, J.G. (200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ance by Breathing Analysis of Lee Mae Bang-typed Folk Dance. (Master's Degree Dissertation.)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Kimm H.Y. (2013) Taekwondo History. Baton Rouge: Hando Press.
- Moenig, U. (2017) Taekwondo: From Martial Art to Martial Sport. New York: Routledge.
- Moenig, U. & Kim, M.H. (2016) The Invention of Taekwondo Tradition, 1945-1972: When Mythology Becomes 'History'. Acta Koreana. December 2016. Vol. 19. No. 2. pp. 131-164.
- Pearlman, S. (2006) The Book of Martial Power: The Universal Guide to Combative Arts. Woodstock: Overlook Press.
- Sheen, D.C. (2013) Calm and Dynamic: Two Differing Aesthetic Aspec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Lecture given for the Royal Asiatic Society – Korea Branch, on 22 January 2013, Somerset Palace, Seoul.)
- Van Zile, J. (2001) Perspectives on Korean Dance.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 Van Zile, J. (2008) Visible Breathing: The Use of Breath in Korean Dance, Society and Culture. Journal of the Socio-Cultural Research Institute, Ryukoku University (Japan) (Vol. 10, June), pp. 80-89.
- Van Zile, J. 2018. Aesthetics of Korean Dance: Concepts and Techniques. 言語社会 第12号. 一橋大学大学院言語社会研究科. Available from: <http://doi.org/10.15057/29158>
- West, C. (1992) On Afro-American Popular Music: From Bebop to Rap. Sacred Music of the Secular City: From Blues to Rap, Jon Michael Spencer, editor, A Special Issue of Black Sacred Music: A Journal of Theomusicology. Volume 6 No. 1 Spring 1992,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2: 282-294.
- Uhm, W.K. (2017) Uhm Woon Kyu: A Single Path of 70 Years, the Pioneer of Modern Taekwondo's Foundation. Seoul: Kukkiwon.
- Yoo, Mi-Hee. (2007) Principal Concepts in the Aesthetics of Korean Traditional Dance. Society and Culture. Journal of the Socio-Cultural Research Institute, Ryukoku University (Japan) (Vol. 9, May), pp. 77-80.

Preserving Korean Body Culture in Traditional Dance and Martial Arts

Sanko Lewis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ahmyook University

1. Introduction

One of the problems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such as traditional dance or traditional martial arts, is that it is intangible. Of course, this makes its preservation so much more difficult. One cannot display it in a museum, nor lock it up in a vault for safekeeping, nor pass it down in a will as an inheritance to future generations. How then can one ensure it is protected for posterity? Customarily, such a traditional skill is passed down from elders to children, from masters to disciples, from teachers to students. There is, however, also a room for scholars to ensure the survival of such kinetic knowledge through a method of ethnographic notation; in other words, a careful observation, annotation, and descrip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is in part the goal of my chapter in this new Traditional Martial Arts as Cultural Heritage book, that is part of UNESCO's Living Heritage Series.

I've been practicing taekwondo for about 25 years ago. When I moved to Korea over a decade ago, I also took up hapkido and taekkyeon. Almost immediately I started to notice certain shared characteristics between the Korean martial arts I was practicing. I don't mean shared techniques, although there are similar techniques in these martial arts, but rather, a shared way of mov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way I noticed martial arts from elsewhere move. I also developed an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attended numerous performances. Here too, I couldn't help seeing similarities in the way these Korean traditional dancers were moving and similar movements in the Korean martial arts I was practising. To affirm my observation, I decided to not only be an observer of traditional dance, but also became a participant by taking dance lessons from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 also took lessons in Korean percussion, learning to play janggu (장구), the Korean hour-glass drum. My goal was to understand Korean traditional rhythms better. I combined my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in these disciplines and cross referenced my findings with published works and over the

years I also did informal interviews with many Korean traditional dance choreographers, dancers, and martial artist instructors.

While there are lots of divergence between differen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dances and differen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it became apparent to me that these Korean movement disciplines shared specific concepts, patterns of movement, and kinetic principles that gave them a particular Korean flavour. In the chapter, I discuss seven kinetic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body culture, which I will also share with you today. They are an erect posture or straight spine, danjeon-breathing, gulshin, the Korean three-beat rhythm, kinetic chaining, curved lines and motions, and counterbalanced motions. Although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always present in every movement, they are usually perceivable, and it is their synergy that gives these disciplines a recognizable ‘Koreanness.’

I. Kinetic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Body Culture

A. Erect posture

Traditional Korean dance and martial arts tend to keep a straight spine with the head, shoulders, and hips naturally aligned.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pine is stiff or rigidly erect, but simply naturally upright. In most Korean traditional dance, there are no swaying or gyrating of the hips or thrusting out of the chest or groin—such motion are too sexual for the conservative Confucian morals. Some dance movements may require the dancer to bend at the hips or lean somewhat, but even so the spine is generally kept straight.

This is the case for the martial arts as well, as an erect posture is related to good balance. Consider the folk martial art taekkyeon (택견): the primary goal of the game is to topple one’s opponent through foot sweeps and throws. A posture that is not erect, and hence unbalanced, will results in one being toppled more easily. In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known as ssireum (씨름), the posture is not upright because the players are phys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bearing their weight into one another; however, while the body may be bend at the hips, the ssireum players engage their core muscles and keep their spines straight, rather than rounded.

B. Danjeon-breathing

Proper breathing is key to effective physical activity and is based on good posture. Hence, Korean traditional dance equates the hoheup-seon (호흡선) or “breath line” with the cheokchu-seon (척추선) or “backbone line” (Lim, 2003). Similarly, posture and breath go together in martial arts practice. Not only does a slouched posture adversely affect balance, it also inhibits proper breathing, which leads to unnecessary muscular tension, premature exhaustion, and unfocused technique.

Korean dance and martial arts emphasize danjeon-hoheup (단전호흡), a type of abdominal breathing focused on the danjeon-area. The danjeon corresponds to the sacral chakra in the lower abdomen, below and behind the navel. An important notion in danjeon-breathing is that breathing happens from the danjeon rather than the lungs.

Movement in both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traditional martial arts are activated through the breath and synchronized with the breath. In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martial arts, movements usually commence with inhalation and concludes with an exhalation.

C. Gulshin

A core characteristic of Korean body culture is something known as gulshin (굴신) which is an extension or elongation and contraction or shortening of the body. This occurs both subtly and overtly. The subtle expression of gulshin occurs through danjeon-breathing that causes the body to expand and the spine to lengthen with each inbreath (Van Zile, 2018: p.100). The overt expression occurs in the limbs through the extension-and-contraction of joints, such as the bending and flexing of the knees, and is known as ogeumjil (오금질). Ogeumjil takes advantage of the natural elastic quality of tendons to add a spring-like quality to the steps. One can see this in pumbalgi (품발기), the basic stepping of taekkyeon; in the bouncy sparring steps in taekwondo, and in the aptly termed ‘knee-spring motion’ of ITF style of taekwondo; also in ogeum chum (오금 춤), which literally translates as ‘knee dance,’ in traditional Korean dance. In all cases, the result is a vertical oscillation of the body during movements. In other words, the body visibly oscillates up-and-down, manifesting as bouncing or wave-like stepping motions that are sometimes called mulgyeoljil (물결질). In some taekwondo circles this wavelike movement is likened to the curved shape of the back-of-a-bow, known in Korean as hwaldeungpado (활 등파도), or in English it is likened to a ‘sinewave’.

Gulshin (extension-and-contraction) is not limited only to ogeumjil in the knees but may also manifest in other parts of the body. For instance, in traditional dance one can sometimes notice the shoulders being raised and dropped in a “shoulder dance” or eokkae chum (어깨 춤), which is reminiscent of the way warriors used to move while riding their horses. And in grappling martial arts like ssireum and hapkido, the gulshin-principle of expanding and contracting is relevant during the pushing and pulling movements that is characteristic of grappling and throwing techniques.

D. Three-beat rhythm

Korean traditional music generally follows a triple rhythm with a downbeat start and upbeat cadence (Sheen, 2013). In traditional dance, the triple-meter connects with the vertical oscillation that I mentioned earlier. There is a “rising action that leads to a brief suspension on the first two pulses and a

slight accent at the end of the second pulse just before the downward release on the third pulse” (Van Zile, 2001: p.14).

The basic movements in some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are also practised on this three-beat rhythm. For instance, there is a three-beat rhythm in the sinewave motion of ITF style taekwondo techniques: an initial relaxation, followed by the rising of the body, and then dropping of the body mass into the technique. Taekkyeon’s basic movements also follow a three-beat pattern, known as jeongsamgakhyeong pumbalugi (정삼각형 품밟기) which is a triangular stepping pattern where the practitioner steps alternately on the three corners of the triangle, keeping to the rhythm of traditional Korean music.

E. Kinetic Chaining

Kinetic chaining refers to the ‘sequential flow of movement from one body part to an adjacent body part’ (Van Zile, 2018: pp.308-307). Judy Van Zile describes how kinetic chaining applies to Korean dance (2018: p.307):

Even when there is a small movement in a peripheral body part, such as a subtle, almost pulsing action in the wrist, the movement does not occur in isolation. It is initiated with an inhalation originating in the torso [the danjeon] that vertically lengthens the spine, lifts the shoulders, and propels energy and movement through the entire length of the arm before “resulting” in the wrist action.

In Korean dance, ‘[m]ovement begins centrally and progresses sequentially to peripheral body parts’ (2018: p.307).

Kinetic chaining is also part of the power generation in many Korean martial art techniques where proper technique often uncoils in a whip-like fashion either from the floor or the body center (i.e. danjeon) to the peripheral body parts—and the accumulated kinetic energy is transferred into the target as an impulse. The term chaejjikjil (채찍질), which means whip-motion, is sometimes used to describe this; while in some circles the term balgyeong (발경) is used, which is a concept also found in Chinese internal martial arts: fājìn (發勁).

F. Beautiful Curves

An aesthetic feature of Korean dance and many Korean martial arts is curved lines, rather than specifically circular motions on the one hand or obligatory straight lines on the other. That the motions follow a curved trajectory rather than a rigidly straight trajectory is in part the result of kinetic chaining discussed earlier. However, it is also due to a Korean aesthetic sentiment that favours curves. The Korean term gokseonmi (곡선미 / 曲線美), meaning ‘curved-beauty’, exemplifies this idea. Not only is a curved line considered beautiful, but Koreans also view curved lines as “natural.”

As a result of gumshil and ogeumjil, natural curved lines are noticeable in the wave-like stepping motions (mulgyeolji, 물결질) in Korean dance and martial arts. Furthermore, the use of kinetic chaining in Korean traditional dance results in the coiling and uncoiling of arms into naturally curved motions. Similarly, Korean martial arts tend to move in a whip-like fashion, i.e. chaejjikjil (채찍질), with kicks and strikes uncoiling in a snappy kinetic chain, rather than parts of the body moving as a single unit. Movements may also be characterized as arcs and spirals.

G. Counterbalanced Motions

Korean traditional dance movements express in a balanced, or rather counterbalanced, way. For example, one of the most foundational movements in Korean dance is a motion of the arms called waist coiling or heorigamgisawi(허리감기사위). At the start of the movement, one hand is at the front of the body with the palm facing up as if cradling the danjeon, while the opposite hand is at the same height at the back of the body. The knees are together and somewhat bend in preparation for gumshil. The movement commences with inhalation from the danjeon and the synchronized flexing of the knees and uncoiling of the arms to the sides; sequentially with the outbreath, the knees start to bend again (ogeumjil) and the arms fold up again so that the hand that was in the front is now at the back, and vice versa. Such a counterbalance need not be a symmetrical inversion as in the example above, but could involve different parts of the body, visualized asymmetrically, for instance the raising of the left foot counterbalanced with the extension of the right arm. Similar counterbalanced motions are also noticeable in the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s. Taekkyeon's pumbalugi is often performed while doing hwalgae heundeulgi (활개 흔들기), waving the "wings" from side to side, and hwalgae dolligi (활개 돌리기), rotating the "wings", where the arms alternately rotate in outward circles so that when one hand is in a high position, the other hand is in a low position. Another common example in many martial arts is the "pulling hand" while punching or striking. As one arm extends towards the target, the other arm is pulled back, often to the hip.

In the martial arts, these counterbalanced motions often have a practical function. First, as a literal counterbalance. For instance, in kicking, the arms are frequently brought in the opposite direction than the trajectory of the kick to serve as a counterweight so that the momentum of the kick does not throw the practitioner off balance. Second, counterbalanced motions may also have tactical application, for instance the "pulling hand", referred to earlier, may be used as an actual grab and pull of the opponent while attacking with the opposite hand. An example in taekkyeon is a leg grab and shoulder push toppling technique (balhoemokjabgo eokkaejapgi, 발회목잡고 어깨잡이); the practitioner pushes the opponents shoulder with one hand, while pulling the opponent's opposite leg with the other hand in order to make the opponent fall. Many ssireum techniques work in a similar fashion, for instance the

back of the knee attack, dwitmureup chigi (뒷무릎치기), where the ssireum player pulls the back of the knee of his opponent while pushing their upper body to cause the opponent to fall.

In both the martial arts and Korean dance these counterbalanced motions are often interpreted philosophically as a manifestation of eumyang (음양) (Yoo, 2007: pp.77, 80), which is the yin-and-yang concept derived from Daoist cosmology.

III. Conclusion

Ethnographic notation, such as this, is one way to preserve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wards this goal, I mapped seven kinetic characteristics which work in synergy to give traditional Korean movement disciplines—dance and martial arts—a uniquely Korean flavour. The identified characteristics are an erect posture or straight spine, danjeon-breathing, gulshin, the Korean three-beat rhythm, kinetic chaining, naturally curved lines and motions, and counterbalanced motions. These characteristics are clearly visible in traditional Korean dance and several Korean martial arts such as taekkyeon and taekwondo.

However, in my chapter I continue to show how things are changing. Some forms of taekwondo are losing their traditional body culture due to sporting rule changes and the inclusion of pop music rhythms. I end with a warning to traditional martial arts who are tempted to try and appeal to a younger audience by changing training practices and competition rules and incorporating K-pop music and dance. While such changes may provide exposure to a bigger (and younger) audience, it also comes at a cost. In attempts to stay popular, modern taekwondo is in the process of evolving away from traditional Korean body culture. Traditional martial arts that want to keep their traditional essence should be cautious of making changes for the sake of popularity, lest in their attempt at popularization they lose the very characteristics that exemplify their traditional identity.

Chapter Reference List

- 김명만. (2012) 택견 기술의 과학적 원리. 파주시: 한국학술정보. [Korean Publication: Kim, Y. M. (2012) Scientific Principles of Taekkyeon Techniques. Paju City: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 도기현. (2007) 우리 무예 택견. 서울시: 동재. [Korean Publication: Do, G. H. (2007) Our Martial Art Taekkyeon. Seoul: Dongjae Publications.]
- 최홍희. (1990) 태권도: 배달민국 호신술. (제3판.) 4권.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Korean Publication: Choi, H. H. (1990) Encyclopedia of Taekwon-Do. (3rd edition.) Vol. 4. Pyeongyang: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 Capener, S. (2019) The Dismantling of a Martial Sport: How Korea Created and then Destroyed Taekwondo.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Taekwondo 2019: Overcoming the Self to Benefit the World.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16-17 February.
- Choi, H. H. (2019) Encyclopedia of Taekwon-Do. (Digital Edition.) Vienna: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 Defrantz, T. F. (2004) The Black Beat Made Visible: Hip Hop Dance and Body Power. In Lepecki, A. (ed.) Of the Presence of the Body: Essays on Dance and Performance Theory.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File, C. (2013) Korean Dance: Pure Emotion and Energy. (Korea Essentials No. 15.) Seoul: The Korea Foundation.
- Lie, J. (2012) What Is the K in K-pop? South Korean Popular Music, the Culture Industry, and National Identity. *Korea Observer*. Vol. 43. No. 3. pp. 339-363.
- Lim H. S. (2003) A study on breathing type in breath structure of Korean dance. *The Korean Journal of Dance*. Vol. 35. pp. 139-152.
- Kil, Y.S. (2006) *Competative Taekwondo*.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Kim, J.G. (200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ance by Breathing Analysis of Lee Mae Bang-typed Folk Dance. (Master's Degree Dissertation.)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Kimm H.Y. (2013) *Taekwondo History*. Baton Rouge: Hando Press.
- Moenig, U. (2017) *Taekwondo: From Martial Art to Martial Sport*. New York: Routledge.
- Moenig, U. & Kim, M.H. (2016) The Invention of Taekwondo Tradition, 1945-1972: When Mythology Becomes 'History'. *Acta Koreana*. December 2016. Vol. 19. No. 2. pp. 131-164.
- Pearlman, S. (2006) *The Book of Martial Power: The Universal Guide to Combative Arts*. Woodstock: Overlook Press.
- Sheen, D.C. (2013) Calm and Dynamic: Two Differing Aesthetic Aspec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Lecture given for the Royal Asiatic Society – Korea Branch, on 22 January 2013, Somerset Palace, Seoul.)
- Van Zile, J. (2001) *Perspectives on Korean Dance*.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 Van Zile, J. (2008) Visible Breathing: The Use of Breath in Korean Dance, Society and Culture. *Journal of the Socio-Cultural Research Institute, Ryukoku University (Japan)* (Vol. 10, June), pp. 80-89.
- Van Zile, J. 2018. Aesthetics of Korean Dance: Concepts and Techniques. *言語社会* 第12号. 一橋大学大学院言語社会研究科. Available from: <http://doi.org/10.15057/29158>
- West, C. (1992) On Afro-American Popular Music: From Bebop to Rap. *Sacred Music of the Secular City: From Blues to Rap*, Jon Michael Spencer, editor, A Special Issue of *Black Sacred Music: A Journal of Theomusicology*. Volume 6 No. 1 Spring 1992,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2: 282-294.
- Uhm, W.K. (2017) Uhm Woon Kyu: A Single Path of 70 Years, the Pioneer of Modern Taekwondo's Foundation. Seoul: Kukkiwon.
- Yoo, Mi-Hee. (2007) Principal Concepts in the Aesthetics of Korean Traditional Dance. Society and Culture. *Journal of the Socio-Cultural Research Institute, Ryukoku University (Japan)* (Vol. 9, May), pp. 77-80.

3

세션
SESSION

팬데믹 이후 무예의 미래

Martial Arts in the post COVID-19 world

: 청년의 목소리

: Voices of Youth

좌장

Moderator

• 조현주
Hyunjoo Cho

발표

Speaker

• 박지훈
Jihoon park

• 강유진
Yujin Kang

• 원창환
Changhuan Won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무예교육

박지훈

용인대학교 스포츠·웰니스연구센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재난상황과 고군분투 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는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매우 모범적인 모습이었다. 그 내면 안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스포츠 업종이 ‘고위험시설’이라는 인식과 함께 존폐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희생은 결코 당연시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스포츠종목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특정 사업들은 오히려 매출이 대폭 증가한 사례도 있다. 반면 도장 사업을 중심으로한 무예교육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어떠한 요소와 환경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무예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탐색해야 한다.

그동안 무예교육은 예의와 전통을 중시하며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발은 관심사항이 아니었고, 한정적 생태계가 유지되었다. 이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모든것을 적용해 봐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무예교육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니멀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그룹 혹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무예교육이 필요할것이다.

둘째, IT기술에 기반을 둔 비대면 또는 대면을 최소화하는 무예 이벤트 개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공동 커뮤니티가 창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무예인의 유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비대면’과 현재의 대응수단은 코로나사태의 버티는 도구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무예인이 갖는 지나친 편견, 전통만 중시하는 경향 보다는 유연한 마음가짐과 도전하는 생각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코로나19 스포츠의 희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스포츠는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정부는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감염방지를 위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특히 집단 감염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 등을 권고하였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행정조치를, 확진자 발생 시 벌금과 함께 입원, 치료비 및 방

역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였다. 말이 ‘권고’이지 ‘강제 집행’을 실시한거나 다름이 없다.

스포츠서비스업 84%, 스포츠시설업 61%, 스포츠용품업 51%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체력단련장 91.3%, 체육도장 81%의 매출감소는 스포츠 종사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³.

확산방지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올림픽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대회가 취소 및 연기 되면서 어쩌면 참여자간의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활동의 중단조치는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².

효율성과 합리성은 어디에 잣대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것이 강제적이라면 어떠한가? 선택권이 없는 결정이었다면?

정부의 대응이나 현 상황의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확산에 따른 충격이 안정세에 들어섰다. 물론 국내 사정일 뿐이지만 확진자 증가 수가 줄어들면서 코로나가 주된 공포도 가라앉았고 조금씩 정상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⁴.

그러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스포츠의 희생, 집중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의 강제적 종단을 당연시 받아들이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충실히 따름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자 및 스포츠산업 종사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어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은 17,000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5 영업정지로 임대료조차 못 내는 상황이 4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운영중단 권고지시를 잘 이행했다고 50만원을 지원받는데 고작이라며 한탄한 사례도 있다⁶.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매우 모범적인 모습이었다. 그 내면 안에서는 위험을 무릎 쓰고 나선 사람도 있었고, 강제로 희생당한 사람도 있었다. 전례가 없는 위기상황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 공과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과 격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스포츠를 강타한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이 주를 이루는 무예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의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무예교육의 문제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스포츠가 받은 피해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모든 스포츠산업이 타격을 받은것은 아니다. 단편적인 예이지만 ‘홈 트레이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안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 스포츠의류업의 매출은 증가하였다. 등산이나 자전거, 캠핑 장비 등 스포츠용품들과 런닝머신, 아령, 밴드운동 기구, 요가복 또는 실내트레이닝복의 매출은 대폭 증가하였다. 실제로 캠핑장 예약은 아파트 청약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140만원 이상의 고가 텐트도 3초만에 모두 팔렸고 몇십만원의 옷돈을 얹어서라도 사려는 사람들도 매물이 없어 아쉬워 하고 있다. 골프장은 부킹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⁷. 위기속에 기회가 찾아온 경우도 있는 것이다.

반면 무예는 어떠한가? 도장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식당이나 커피숍, 클럽, 호프집, 놀이동산과 키즈카페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할때도 정작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도장은 신체접촉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고위험성시설”로 분류되어 문을 닫아야 했다.

이번 사태에서 무예교육의 문제점이 절실히 드러났다. 휴관 이후 수련생들의 관리 미흡과 교육콘텐츠 부족, 위

기 대응 관리 부족 등으로 인해 존폐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정보를 주고받는 업무는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를 움직이는 운동은 앉아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도장에서는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잠시 기다리면 끝날 줄 알았다. 지도자들은 소독 및 방역을 하며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다렸지만 장기화가 되었으며 버티지 못한 도장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수 개월간 도장을 떠났던 수련생중 30% 이상은 돌아오지 않았다. ‘도장’은 코로나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카페, 여행, 놀이동산은 가더라도 도장은 기피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비대면 사업 전환 및 콘텐츠개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지만 8 일선 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운동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지도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메신저 영상을 보고 운동할 수 있다. Zoom, Youtube, Band, Hangouts 로 이미 체육수업이 가능해졌다.

직접 대면이 아닌 비대면을 통하여 피트니스 레슨이 이루어지고, 무관중으로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엘리트선수들의 개인훈련을 위해 “홈 트레이닝 유튜브” 채널도 개설되었다.

왜 도장에서의 무예교육은 즉각 대응이 어려웠을까? 종목의 특성 또는 무예의 특성상 때문이 아니다. 다른 환경에는 있는 코로나의 대응방안이 무예에서는 그 어떤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무예는 그동안 본질에만 너무 충실했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고, 비대면 콘텐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비대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모든것을 적용해 봐야 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무예교육

사이클대회는 VR(가상현실)을 가미한 집에서 실내자전거로 개최되었고, 태권도 품새 대회는 선수들의 품새동작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후 온라인으로 출품하여 심사하기 시작했다. 테니스대회는 선수들이 라켓 대신 조이스틱을 잡고 출전하였으며 전 경기가 생중계 되었다9.

VR을 통한 스포츠체험이나 5G를 비롯한 각종 ICT(정보통신기술)와 스마트기술의 적용과 함께 과거와 크게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무예교육도 변화에 맞춰 자생력을 키우고 발전에 힘써야 한다.

물론 이러한 비대면적 수단은 보조도구 역할일 뿐 무예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Youtube로 정치하는 세상을 예상했을까? 인터넷 개인방송 수입으로 수억원의 부를 축적하는게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이 있었는가?

포스트코로나의 무예교육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니멀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그룹 혹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무예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태권도의 품새 대회는 온라인대회로 개최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무예의 형(形)을 활용한 수련방법 및 챌린지는 당장 적용 가능하다.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수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IT기술에 기반을 둔 비대면 또는 대면을 최소화하는 무예 이벤트 개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대인 경기의 온라인 개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퍼포먼스(Performance)의 심사는 영상으로 대체하여 이미 많은 종목이 진행하고 있다. 선수들의 시합이 무관중으로 개최된다면 단순히 생중계에 그치지 말고 경기

해설과 패턴분석 등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적용할 수 있다. ‘파워 태권도 프리미어리그’는 비디오게임과 같이 선수들의 체력게이지를 적용해서 보는 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선사했다. 검도의 ‘빠른머리 챌린지’도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평소 잘못된 자세나 연습중인 동작의 교정을 위해 지도자와 영상을 주고 받거나 실시간으로 피트백을 주는 방법도 소규모 장비만 있다면 활용 가능하다.

셋째,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공동 커뮤니티가 창설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예에서도 봤듯이 여러 종목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각 종목의 상위 유관기관이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도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간의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무예인의 유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비대면’과 현재의 대응수단은 코로나사태의 버티는 도구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화 되었을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무예인이 갖는 지나친 편견, 전통만 중시하는 경향 보다는 유연한 마음가짐과 도전하는 생각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의 무예교육은 이전까지의 교육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하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부터 앞장서 실천한다! 2020년 10월 10일 발췌.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3673&contSeq=353673&board_id=140&gubun=BDJ. Published 2020.
2. 성문정. 코로나19 시대의 바람직한 스포츠정책 방향. 스포츠과학. 2020;151(0):2-9.
3.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에 약 400억 원 추가 지원.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039&pMenuCD=0302000000. Published 2020.
4. World Health Organization. Weekly Operational Update on COVID-19 september 27, 2020. World Heal Organ. 2020;(October):1-10.
5. 청와대 국민청원. 실내 체육시설 운영중단을 강력 권고를 하셨으면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0년 10월 12일 발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57>. Published 2020.
6. 김현일. 코로나19 사태와 체육시설 정책·제도 현안 분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0;54(0):113-127.
7. 이윤구. 코로나-19 이후 스포츠소비 동향분석. 스포츠과학. 2020;152(0):79-84.
8.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스포츠 시장 본격 육성. 2020년 10월 10일 발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193. Published 2020.
9. 김도균. 코로나19가 스포츠산업에 미친 영향 및 전망. 스포츠과학. 2020;151(0):18-31.

Martial Arts Education in Post-COVID Era

Jihoon Park

Yong In University
Sports and Wellness Research Center

With the COVID-19 pandemic ravaging, the entire world is fighting a disaster. The sports industry, in particular, has been hit hard.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mpressed the entire world as a model. However, on the inside, the entire sports industries, including indoor sports facilities, are now at the brink of demise, because they are now regarded as 'high-risk facilities.' Such a sacrifice shall not be taken for granted.

Not all sports have been hit, however. Some businesses saw booming opportunities. However, the martial arts business, including mostly gyms, could not avoid a direct hi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the factors and differences in the environment are and study the fundamental issues with martial arts education.

Until now, martial arts education dedicated itself to tradition and was highly conservative. They were not interested in developing new educational contents. Their ecosystem was limited. Now, it is necessary to try something new,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things in the past.

Martial arts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would have to consider, at least, the following factors:

First, it is necessary to invigorate minimal education. This refers to martial arts education that could be given in small groups or by individuals.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the methods to hold martial arts events without any contact or minimal contact based on IT.

Third,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munity that can communicate information.

Fourth, martial artists must take a more flexible approach. Non-contact and the current countermeasures are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survive the COVID-19 pandemic. They are not the solution for the fundamental issues. The prejudice and obsession to tradition would have to give way to flexible mindsets and challenging spirits.

The Sacrifice of Sports

With the prolonged pandemic situation, sports industries have suffered unprecedented damages.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As the virus spread, the government introduced social distancing measures, which demanded for gatherings, dining-out, events, or travel to be put on hold,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disease. The government advised religious facilities, indoor sports facilities, and entertainment businesses to shut down¹, etc. Local authorities monitored these businesses for violations, and these establishments were fined and charged with the medical and disease control costs the government had to spend because of their violation. Even though they said they were 'advising' these actions, it was as good as forced executions.

84% of sports service businesses experienced a decrease in their sales, along with 61% of sports facilities businesses and 51% of sports goods businesses. It is worth noting that 91.3% of physical training centers as well as 81% of sports gyms experienced a hit in their sales, and this pushed those who work in sports businesses in a very tough situation.³

Some are arguing that shutting down sports is highly justified, as the borders between countries are closed and most of the major events, even the Olympic Games, were canceled or postponed.²

However, the criteria of efficiency and reason can differ depending on your perspective. However, what if all these measures are forced? What if there were no choices at all?

It is too early to judge the response by the government to the current situation. But, in South Korea, the shock of the spread of COVID-19 is gradually passing. Of course, this applies only to South Korea. However, the fear of the virus is disappearing as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s going down. Things are inching back to normal.⁴

However, the sacrifice of the sports industry, especially the forced shutdown of indoor sports facilities, must not be taken for granted as discussed above.

Even though these businesses fully cooperated with the strict recommendations of the government, nothing has been don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suffered by the facilities, businesses, and workers in the industry. A petition calling for the government's support is now endorsed by more than 17,000 people⁵. In one case, a business owner who could not pay rent for four months in a row received only 500,000 won from the government as a reward for his cooperation to the government's shutdown advice.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mpressed the entire world as a model. Some took risks for others, and some had to sacrifice themselves against their will. All of these happened in a situation that was unprecedented.

After the pandemic is over, I believe there should be severe criticism and encouragement for the

things that worked and those that did not.

In this study, the author intends to examine the future direction and challenges for martial arts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in addition to an examination of the issues plaguing the field composed of indoor sports facilities businesses, while the pandemic is ravaging the industry.

Issues with Martial Arts Education

We took a brief look into the damage sports had to suff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Not all sports industries had to suffer, however. For example, the home-training-related businesses enjoyed increased attention from customers, and the sales of training equipment and sports garments soared. Sales of products used in hiking, cycling, camping, other sport-related goods, as well as treadmills, dumbbells, band-exercise products, yoga or other indoor training wears increased considerably. Some even said that booking a spot in camping sites was more difficult than finding a real home. Luxury 1,400-dollar tents were sold out in three seconds, and many people are willing to pay hundreds of dollars more to find one of those products, but they can't. It is very difficult to book a golf course, either. The number of people who ride bicycles also soared. Some people found new opportunities in the middle of a pandemic.

However, it was a totally different story for martial arts. The majority of businesses in this industry are dojos. While coffee shops, pubs, clubs, amusement parks, and kids' cafes, as well as restaurants, were all packed up with customers, gyms had to remain closed as they were still regarded 'high risk facilities' due to the increased frequency of physical contact.

This crisis clearly exposed the problems with martial arts education. After the shutdown, the very survival of these businesses was at risk because of the poor management of trainees, lack of educational contents, and lack of skills needed to respond to a crisis. The classes in which knowledge was transferred could be replaced with online lectures.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can be done over Zoom. However, physical activities are not done in a sedentary position in most cases.

Many gyms did not know what to do in the face of this sudden, unprecedented crisis. Most of them hoped the pandemic would not last long. The coaches followed disinfection and disease control instructions, while hoping the pandemic would pass soon enough. However, the situation persisted, and those who could not hold out had to permanently shut down. Also, more than 30% of the trainees who were away from the gym during the pandemic for several months never came back. Since dojos and gyms were 'high-risk facilities,' people shunned from sending their children to dojos, even though they found it alright to take their children to a café, or an amusement park, etc.

While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started a support program for 'Shifting to Non-Contact-based Businesses and Development of Contents,'⁸ many dojo businesses would still have to wait much

longer until these programs take effect.

It was proven that every sport can be executed over a smartphone. It is possible to work out without meeting the coach in person, by watching the video over a messaging app. It is already possible to take a PE class via Zoom, YouTube, Band, or Hangouts.

Fitness lessons are now given in a non-contact mode, while competitions are held without an audience. Now, there is even a YouTube channel for elite athletes to train at home.

What kept martial arts education from embracing these concepts? It is no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martial arts, nor because it is different from other sports. Martial arts did not have any options to use in responding to COVID-19 pandemic in a different environment.

Most martial arts were fixated on their essence only. They were not exactly interested in developing online education contents. Many in the industry believed non-contact options are not available for martial arts. Then came the era of 'non-contact.' Now, it is necessary to try something new,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things in the past.

Martial Arts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Cycling competitions are being held at home using indoor bicycles and VR technology. Taekwondo Pumsae competitions are held by submitting video clips of the athletes performing Pumsae moves. For a tennis match, the contenders hold a joystick instead of a racket. The entire matches were broadcast live.⁹

The world we are going to see from now on will look a lot different, due to the us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VR, 5G, and various other ICT and smart technologies. It is now clear that martial arts education must change and secure resiliency to survive these changes.

Of course, non-contact means such as these are only supplementary elements, and they cannot replace the essence of martial arts. However, the world is now changing. Nobody knows where these changes will take us. Who could imagine a world where YouTube is the theater of politics? Who could ever imagine that you could mak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by doing a personal YouTube broadcast over the Internet?

Martial arts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would have to consider at least the following factors.

First, it is necessary to invigorate minimal education. This refers to martial arts education that could be given in small groups or by individuals. A good example of these can be a Taekwondo Pumsae competition held online. The 'move sequences' of martial arts can be available as a means of training and a challenge. Or, one may consider forming up a team to train.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methods to hold IT-based martial arts events without any contact or with just minimal contact. It takes a lot of work and time to hold a person-to-person match online. However, competing with performance can be done using videos, and many sports events

are embracing this method. If the matches are held without audiences, they can go beyond mere livestreaming and apply various broadcasting contents, such as commentating or pattern analysis. 'Power Taekwondo Premiere League' introduced the 'health bar' that can be seen in video games, making the games more exciting and appealing. The 'quick head stroke' challenge in Kendo is also very popular in YouTube. Also, it does not require fancy equipment to send videos of motions or drills to an instructor and get feedback in real time.

Third,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munity that can communicate information.

As we have seen in the examples above, various attempts are being made in different types of games. Each association responsible for the sport has to come up with some kind of solution. To make gyms more resilient, it would be essential to share good programs and ideas to make a better business outcome.

Fourth, martial artists must take a more flexible approach. Non-contact and the current countermeasures are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survive the COVID-19 pandemic. They are not the solution for the fundamental issues. It is beyond our wildest imagination what the world would look like after the pandemic is over.

The prejudice and obsession to tradition would have to give way to flexible mindsets and challenging spirits.

Martial arts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will be totally different.

Like it or not, the impact of COVID-19 will last for years, if not decades.

Waiting will not bring about any changes for sure. If you cannot foresee the future, you have to create one.

References

1. 질병관리본부.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부터 앞장서 실천한다! 2020년 10월 10일 발체.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3673&contSeq=353673&board_id=140&gubun=BDJ. Published 2020.
2. 성문정. 코로나19 시대의 바람직한 스포츠정책 방향. 스포츠과학. 2020;151(0):2-9.
3.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에 약 400억 원 추가 지원.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039&pMenuCD=0302000000. Published 2020.
4. World Health Organization. Weekly Operational Update on COVID-19 september 27, 2020. World Heal Organ. 2020;(October):1-10.
5. 청와대 국민청원. 실내 체육시설 운영중단을 강력 권고를 하셨으면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0년 10월 12일 발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57>. Published 2020.
6. 김현일. 코로나19 사태와 체육시설 정책·제도 현안 분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0;54(0):113-127.
7. 이윤구. 코로나-19 이후 스포츠소비 동향분석. 스포츠과학. 2020;152(0):79-84.
8.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스포츠 시장 본격 육성. 2020년 10월 10일 발체.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193. Published 2020.
9. 김도균. 코로나19가 스포츠산업에 미친 영향 및 전망. 스포츠과학. 2020;151(0):18-31.

태권도 현장을 통해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무예 교육

강유진*

남창태권도장

초록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언택트, 뉴 노멀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무예 교육 또한 상황을 직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태권도 현장 속에 살고 있는 필자는 태권도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뉴 노멀 시대의 사회적 특성을 대조하여 미래의 무예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태권도 현장의 주요 공급자인 태권도장 지도자들과 대학 교수,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코로나19에 의해 업무적 고난을 경험하고 있으며, 주요 수요자인 수련생과 학부모, 전공생과 선수들은 나름의 불만을 지니고 있다. 한편 뉴 노멀 시대의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산업에 의한 취약계층의 등장이라는 부정적 결과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건강과 운동의 필요성 인식의 확대라는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무예 교육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뉴 노멀 시대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개발, 건강인식을 활용한 수련의 필요성 재고, 지도자의 질적 지도력 향상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시대, 언택트시대, 태권도, 무예교육

I. 서론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어느덧 12월을 향해 가고 있다. “2020”이라는 숫자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19의 악몽”으로 기억될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지난 3월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그 때 당시 감염자는 50만 여명, 사망자 3만 여 명이었다(MPHonline, 2020).

* 강유진(Kang Yujin) : Doctor's course in Seoul National Univ., Head instructor of Namchang Taekwondo Dojang, 6th Dan, & Korean National Poomsae Athlete (tkdkang@snu.ac.kr)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보고되며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이 확산되었다.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되는 모든 공간을 폐쇄하였고, 대학과 초중고, 유치원의 개강과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종교 시설과 유흥시설, 그리고 일부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까지 권고하였다. 정부의 대응은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의 행정적 조치이나, 국민의 경제활동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유동균 외, 2020). 코로나19는 스포츠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각종 스포츠 리그가 중단되었고, 2020년 도쿄 올림픽이 2012년으로 연기됨으로써 전염병에 의한 대회 연기는 올림픽의 역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김현중, 2020).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은 ‘2인 이상 실내 집합 금지’라는, 사실상 업무를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을 가져왔다.

한편,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하며 언택트 스포츠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 주요 기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태권도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이예슬, 박종화, 2020). 이에 따라 필자는 팬데믹 이후 태권도 현장의 속속들이 변화한 삶들과 언택트 시대에 돌입한 현대 우리 사회를 살펴봄으로써 태권도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팬데믹 이후, 태권도 현장

팬데믹 선언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 초기에 강화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직접 몸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스포츠계에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 무조건적인 정지, 실내 체육 시설업 운영중단, 각종 대회와 스포츠 관련 행사의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제한이 만연했다. 지금도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스포츠 관계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기이자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태권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태권도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1. 공급자의 고난

1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한 사람들도 있고, 패배한 사람들도 있다. 태권도장이 대표적인 예다. 2020년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이에 일부 태권도장들은 임시 휴관을 하였고, 대학교 개강이 연기되었다. 5월부터 서서히 완화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8월 15일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단계로 격상, 이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리고 2주 간 더욱 더 강화된 2.5단계가 연장되었다. 사실상 3단계와 다를 바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스포츠 경기 중지, 2인 이상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교육기관의 원격 수업 또는 휴업 등의 권고사항을 지닌다.

수련생 또는 수련생의 가족이 확진 되거나, 관장과 사범이 확진 되면 그 도장은 곧바로 영업을 중단한다. 관원생이 100, 200명이던 도장이 하루 아침에 휴관을 하면 이후에 닥칠 막대한 피해는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이 고스란히 받는다. 관장은 순수익과 지출의 불균형에 의해 가계에 문제가 생기고 대출을 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생계에 타격을 입는다. 사범의 경우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월급의 절반만 받게 되는 상황을 마주한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오래 사범들은 실직자와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택배회사 일

용직을 하는 관장들이 늘어났다. 태권도 전문가들이 태권도 대신 택배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수련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들도 있다. 밴드, 유튜브 등의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언택트 태권도 수업을 진행한다. 낯선 교육방식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모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다행히 태권도 수련에 갈증을 지니는 수련생들과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가치를 아는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태권도장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전공생들을 지도하는 교수 및 시간강사들도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준비하느라 여간 바쁜 게 아니다. 캠퍼스를 바라보며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고, PPT로 교육자료를 만들기도 하며 학생들과 비대면으로 두 시간 가량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2020 도쿄 올림픽이 연기됨에 따라 전국 태권도 대회와 국제, 세계 대회들도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태권도 경기를 통해 대학 입시제도에 활용하고,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며 발전해나가는 태권도 관련 기관들의 중요한 업무가 절단된 것과 다름없다. 선수팀을 가르치는 학교 또는 태권도장 지도자들 또한 선수들의 경기가 모두 취소되는 상황에서 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2. 수요자의 불안

태권도의 수요자의 대부분은 태권도장 수련생들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 청소년 수련생들은 부모들 우려와 걱정으로 인해 태권도장을 잠시 휴관하였다. 성인 수련생들의 경우 생활스포츠로서 즐기기 위해 시작한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2주 이상의 휴관 기간과 함께 떨어져 그만두기도 하였다. SNS를 활용한 태권도 관장들의 노력에 대하여 일부 부모들은 ‘굳이 돈을 내고 온라인 태권도 수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태권도장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반응도 차가웠다. 오프라인 대학생활과 동일한 등록금을 내며 수준 낮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대학생들의 항의로 떠들썩했다. 특히, 실기 수업이 절반을 차지하는 예체능학과와 공대, 의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더 불편함을 느꼈다. 일부 태권도전공생들의 불안 사항은 다양했다. 처음 온라인 수업을 접해본 교강사들이 수업 진행을 잘 하지 못하는 점, 적절한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실기 수업을 따라가야 하는 점, 비대면 수업이라는 이유로 과제 폭탄을 내주는 교수의 평가방식 등 끝이 없었다.

체육 전공 또는 태권도 전공을 꿈꾸며 입시를 위해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올해가 최악의 해일 것이다. 필자는 직접 지도하고 있는 고3 선수가 있기에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선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전국대회를 기다리며 매일 수련을 반복한다. 선수의 부모는 대회가 언제쯤 개최될지, 자녀가 대학에 갈 수는 있을지 모든 불안감을 지도자에게 상담한다.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수와 부모에게 희망 고문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올 해 초부터 8월까지 대회 준비를 하던 선수는 2학기때부터 수시전형 실기 과목 준비에 몰두하여, 지난 달부터 입시를 시작하였다.

III. 뉴 노멀 시대, 변화하는 사회

BC(Before Corona)에서 AC(After Corona)시대를 상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는 현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는 곧, 언택트, 뉴 노멀 시대이며 여러 분야의 생활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삶도 여러 면으로 달라지며, 발전하기도 한다. 뉴 노멀 시대에 의해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과 득을 살펴보았다.

1. 뉴 노멀 시대의 실(失)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경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소극적으로 변한 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덜 필요한 것들부터 중단한다. 글로벌 고객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 기업인 던햄비가 세계 20개국 8000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소비자 구매 태도와 행동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한국에 세계에서 코로나19를 우려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고, 개인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들도 가장 많은 국가였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사람들은 의, 식,주를 절약하는 것 뿐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 만연했던 취미생활, 여가활동 등의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게 된다. 단적인 예로 실내 스포츠 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운동 또는 수련을 그만 두는 것은 그들의 생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삶의 여유와 여가 생활은 비례한다.

또한 비대면 상황이 비일비재해지면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정보 통신 기술산업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취약계층이 나타나며 정보의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에 쉽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손쉬운 기술이 필요하다. 뉴 노멀, 언택트 시대를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접근방법이 편안하고 단순해야 할 것이다.

2. 뉴 노멀 시대의 득(得)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현대인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아닌 ‘확찐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에 대한 20~65세 성인남녀 1031명의 12.5%가 체중 증가를, 11.4%가 운동량 감소를 주요 변화로 생각하였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 한편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울증, 무기력증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이호준, 2020).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운동일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신체활동, 즉 태권도와 같은 무예와 스포츠가 시기 적절한 문화생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공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졌다. 대면에 의한 소통이 물론 더 효과적이고 케미스트리를 전달할 수 있겠으나,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IT 기반의 언택트 플랫폼의 활용도가 무한해졌다. 수업,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진행은 현대인의 삶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었다. 비용적으로도, 시간으로도 여러모로 절약한 셈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시간적, 공간적인 합리성을 갖춘 홈 트레이닝과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포스트 코로나, 무예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태권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편에 속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들 곁을 맴돌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뿐이다. 대다수 아

구팬들이 육성 지원을 자제하고 음식을 관중석에서 먹지 않는 것과 같이(스포츠경향, 2020) 이미 방역 수칙 준수를 잘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스포츠와 무예, 그리고 태권도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는 이미 뉴 노멀에 적응하고, 이점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다.

첫째 무예 교육의 공급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무예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1:1 방문 교육,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스포츠 레슨매칭 서비스앱도 등장하였다. 태권도 종주국 한국에 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비행경비부터 숙식, 관광 등 꽤 많은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들에게 태권도 온라인 교육은 그야말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면서 원하는 한국인 사범에게 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언택트 시대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방식의 랜선 스포츠 플랫폼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기술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이러한 기반을 잘 활용하여 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모든 스포츠 또는 무예 종목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격투를 제외한 여러 종목들이 굳이 경기장에 선수들이 모이지 않아도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5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2020 덴마크 세계품새선수권대회 또한 잠정 연기되었다가 이 달 온라인 선수권대회로 새롭게 준비되었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세계품새선수권대회 이전에 다양한 기관에서 언택트 태권도 대회, 온라인 태권도 시범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각종 태권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태권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기회를 만든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오프 양 측면이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결국 삶의 질적 차원에서 건강 관리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러한 특성을 운동, 스포츠, 무예 활동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스포츠와 무예가 건강과 비만 탈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 무예 교육의 공급자들은 뚜렷한 수련의 목표, 질적으로 탄탄히 짜여진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 뿐만 아니라 대면 활동을 부득이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유소년 및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타인과 함께 하는 스포츠, 무예 활동은 스트레스 완화와 사회성 개발 등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달음식문화는 더욱 활성화되지 않았던가. 면역력을 증진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중들은 점차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무예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공급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발 빠른 사람들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태권도계통에서도 노력하는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들의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다. 이들은 주위의 폐관한 도장 지도자들보다도 더 빠르고 부지런히 대처하고 노력했다. 도장 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모들과의 소통을 잘 유지해왔으며, 수련생들이 코로나19를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필자의 지인은 현 상황에서 200명 이상의 수련생이 복관한 상태이고, 주변에 있던 세 개의 도장은 모두 폐관하였다. 많은 지도자들이 ‘죽겠다’고 호소하는 와중에도 굳건히 태권도장을 운영해나가는 부지런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실패하지 않고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수련생들로부터 태권도 수련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인식하게끔 지도했기 때문이다.

V. 결론

코로나19는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습을 숨긴 채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무예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는 무예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기 위해 ‘태권도’라는 나무를 먼저 보고, 뉴 노멀 시대인 ‘현대 사회’라는 숲으로 본 뒤에 다시 ‘무예 교육’이라는 나무를 돌아보는 방식을 선택해 보았다. 태권도 현장에서 코로나19는 공급자로서 태권도 관장과 사범, 교수, 관련 단체와 기관에게, 수요자로서 수련생과 부모, 전공생들과 선수 및 코치들에게 여러모로 문제를 가져왔다. 한편,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빠른 변화의 흐름도 공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예측한 미래 사회의 한 권이었던 언택트 시대로 생각보다 빠르게 접어들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태권도 현장의 상황과 뉴 노멀 시대의 득과 실을 살펴봄으로써 무예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 건강의 중요성 재고, 지도자의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희망적인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았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문구가 진부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의 우리 스포츠인, 무예인들에게는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넘어져 앉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왜 넘어졌는지 반성하며,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빠르게 달려져가는 시간 속에서 무예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주인공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현중(2020).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가 스포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골프 활동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유동균, 정수봉, 최승국(2020). 코로나19 현장에서 온라인 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선택속성 차이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18(2), 21-32
- 이예슬, 박종화(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태권도 분야 이슈 분석. 국기원 태권도연구, 11(3), 79-94
- 이호준(2020). 성인 남녀의 홈 트레이닝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사

- 스포츠경향(최하진, 김하진 기자, 2020.10.22). 포스트시즌 일정은 확정, 관중 50% 확대는 언제쯤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010220600003&sec_id=510201&pt=nv
- 조세일보(황상석 전문위원, 2020.10.22). 한국인, 코로나19 방역 세계 1위 배달음식 이용도 세계 1위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0/20201022408756.html>
- MHPonline Website(2020). Outbreak: 10 of Worst Pandemic in History
<https://www.mphonline.org/>

Martial Arts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 focus on Taekwondo

Yujin Kang*

Namchang Taekwondo

Abstract

COVID-19 drove the entire world into a pandemonium. After its declaration as a global pandemic, the virus is still ravaging the world. Our society is evolving into the era of contactless, the new normal.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it is necessary for the community of martial arts education to see the current situation clearly and come up with a suitable solution. For this, the researcher, who is making a living in the field of Taekwondo, provided a direction for future martial arts education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aekwondo and comparing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new normal era. The key suppliers in Taekwondo industry, the coaches in gyms, professors of colleges, and the related organizations are all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customers, or the trainees, their parents, students, and athletes are not exactly satisfi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either. Our society in this new normal era showed adverse results, such as economic insecurity and the new vulnerable classes due to the rapidly growing digital industry, along with some positive outcom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online platforms and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health and exercise.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listen to the voice of frontline educators and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normal era appropriately, so that new online platforms can be developed.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training can be enhanced utilizing the awareness of health, while the quality of teaching of coaches and educators should also be improved.

Keywords: Post-COVID, new-normal era, contactless era, Taekwondo, martial arts education

* Yujin Kang : Doctor's course in Seoul National Univ., Head instructor of Namchang Taekwondo Dojang, 6th Dan, & Korean National Poomsae Athlete (tkdkang@snu.ac.kr)

I. Introduction

The year 2020 might be the longest year of our lives, even though December is already around the corner. The year 2020 will forever be remembered by the people of the world as the ‘year of the COVID-19 nightmare.’ COVID-19, which started in Wuhan, China in 2019, spread all across the world in just a few months. The WHO declared a pandemic in March. At the time, there were 50 confirmed cases in total, with 30,000 deaths (MPHonline, 2020).

The first confirmed case of South Korea was reported on January 20, 2020, and the stream of confirmed cases thereafter never stopped. To keep the spread of the virus under control, the government shut down any place that was included in the line of movement of the confirmed patient. Also, the start of the school year was postponed not only in universities but also everywhere from kindergarten to high school. The actions the government took were the best administrative measure they could come up with to prevent further damages. However, it put the entire economy of the country on hold (Donggyun Yoo et al., 2020). COVID-19 caused sports industries to suffer as well. Various sports leagues were suspended, and the 2020 Tokyo Olympic Games were postponed to 2021. This was the first time ever that an Olympic Game was postponed due to an infectious disease (Hyunjoong Kim, 2020). The Phase 2.5 of social distancing in South Korea included the prohibition of indoor gatherings with two or more people. This was a de facto lockdown of the country.

However, there have been new attempts to adapt to the new trend of contactless sports in the midst of this chaotic situation, as a result of rapid adaptation. In the case of Taekwondo, key Taekwondo-related organizations used the SNS to draw attention and encourage participation by the entire Taekwondo global community. Also, there was a non-contact-based Taekwondo content held online,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distancing principles (Yeseul Lee et al, 2020). For this, the researcher intends to provide an opinion about the invigoration of Taekwondo education by examining our society which entered the era of contactless, as well as the changes happening in the field of Taekwondo since the pandemic.

II. Taekwondo Education after Pandemic

Various things changed since the declaration of the pandemic. Social distancing and safety measures, which were strengthened during the earlier days of the pandemic, caused a significant damage to the sports industry, where people had to learn and remember using their bodies.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without taking questions, including shut down of gyms and postponement or cancellation of various sports events and competitions. Many in the sports industry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pandemic. Taekwondo, which is the national martial art that is loved by the entire world, is no

exception. The researcher examined the changes in the field of Taekwond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pplier and the customer.

1. The suffering of suppliers

There are people who are victorious after a year-long battle with the pandemic, while some were not so successful. Taekwondo gyms are a good example. With an unforgiving social distancing measure in place from March to April 2020, the Central Disaster Response HQ strongly advised religious facilities, indoor sports facilities,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to shut down. Some Taekwondo gyms complied, and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in universities was delayed. The rules for social distancing somewhat softened starting from May, which was interrupted by a spike in confirmed cases since the August 15 incident. The social distancing level was raised to Level 2, and the measure was expanded from the Greater Seoul Area to the entire country. An even stronger measure of Level 2.5 was declared for a period of two weeks. Level 2.5, which was de facto Level 3 social distancing, included suspension of sports events, banning the gathering of two or more people in an indoor sports facility, school shutdown, etc.

A gym shuts down immediately if a positive COVID-19 infection is confirmed among any of its trainees, their families, coaches, or instructors. If a gym with 100 to 200 trainees shuts down, the entire damage from the suspension must be borne by the coaches and instructors alone. The livelihood of the coach (the owner of the business) is under threat as there is a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revenue and expenditure. They have to turn to loans, and, if you are a hired instructor, you can lose your job, or they will pay you only half the amount. In fact, many instructors during the Level 2.5 social distancing were virtually unemployed, powerless, and had to turn to other jobs, like labor jobs at courier companies. The dark reality of Taekwondo experts delivering packages instead of doing Taekwondo was being swallowed in by all.

On the other hand, some educators did not give up helping their trainees in such a difficult situation. They are running contactless sessions using Band, YouTube, or other SNS platforms.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is novel method of teaching, or the children whose parents 'did not see the point,' did not participate. However, there are many trainees who crave for Taekwondo training, and the children of parents who understand the educational value of Taekwondo training are participating actively. The coaches and instructors at gyms but also the students who major in Taekwondo and part-time college instructors now had to work on a tight schedule as they had to prepare for online lectures. It is more difficult than one might think to run a Taekwondo class looking into a video camera. They have to take videos or prepare PPT teaching materials they are going to use in a two-hour class.

Due to the postponement of the 2020 Tokyo Olympic Games, many national Taekwondo

competitions and international events were cancelled or postponed as well. For many Taekwondo-relate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ir work was taken away, as they used Taekwondo matches for college admission processes and grew through host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Schools and gyms where elite athletes trained are also helpless while all the matches for their athletes are canceled.

2. The complaints of customers

Most of the customers of Taekwondo as a business are the trainees who go to the gyms. By my experience, most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 trainees decided not to come to the gym due to their concerned parents. As for adult trainees, many dropped out of their Taekwondo training entirely as they lost their initial enthusiasm after the gyms shut down for more than a couple of weeks. While many coaches were desperately trying to use the SNS to continue teaching Taekwondo, some parents were skeptical, as they did not see the point of paying money to learn Taekwondo online.

Such a lack of enthusiasm is also found among college students. Many of them objected fiercely when they were told that they still had to pay the same amount of tuition even when they were offered low-quality online courses, instead of real classes in campus. It was especially more so with the students of art and sports, engineering schools, or medical schools, where practical classes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the curricula. Some Taekwondo-major students poured out all kinds of complaints. These included the instructors and professors, who never taught an online course before, were not exactly giving an excellent lecture online, the lack of space to practice while they had to catch up with online classes. Some professors even dump an incredible amount of homework upon the students just because they were teaching online.

For high school athletes, who must prepare for competitions for their college admission to major in Taekwondo, 2020 must have been the worst year in their lives. The author is certain of this, as one of my students is a high school senior. The athletes train on and on, waiting fo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for the national competition to resume. But there is no telling when these things will happen. Parents talk to the instructors or coaches asking when the competitions will be held and if it would still be possible for their children to go to college on Taekwondo scholarships. As there is no telling when this pandemic will be over, there is no use in torturing the athletes and their parents with baseless hope. In the end, the athlete who was preparing for the competition scheduled in August totally focused on the practical exam for contingent admissions during the fall semester and started to prepare for this alternative course from last month.

III. New Normal, Changing Society

People are now imagining and witnessing the world of BC (before COVID) and AC (after COVID.) Such is the impact of COVID-19 to the modern society. The post-COVID era after the pandemic will be an era of contactless and new-normal. The lifestyle in many aspects will not be the same, and this will affect our lives, making them better, at least sometimes. The author examined the pros and cons of the new society of the new normal.

1. The cons of the new normal

The hardest hit area in this pandemic must be the economy. This will further aggravate the issue of social inequality and economic polarization. Since people are not spending nearly as much as they did, they will begin to stop buying things that are the least necessary in their lives. Dunhumby, a global customer data solution company, conducted a survey on 'the influence of COVID-19 on the purchasing attitude of customers' involving 8000 consumers in 20 countries. The survey showed that the number of consumers who were worried about COVID-19 was highest in South Korea, and so was the number of consumers who felt that their financial situation worsened. As people are less willing to spend their money, they tighten their budgets not only for their clothes, foods, and shelters but also for their hobbie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For example, the customers of an indoor sports center will not feel that their livelihood is at stake if they have to stop their exercise or training. Leisure activities come hand in hand with livelihood.

As many of these activities happen on a non-contact basis, the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being used more actively. This results in the appearance of the digitally vulnerable class and leads to information inequality. Easier technologies are necessary, so that those that belong to this vulnerable class can access technology more readily and enjoyably. The access must be straightforward and simple, so that the entire nation may enjoy the era of new normal and contactless.

2. The pros of new normal

As people are confined to their homes due to COVID-19, there are more confirmed cases of obesity than ever. According to a survey by Gallop Korea on 1031 interviewees aged 20 to 65, 12.5% of the participants considered the increase in body weight as a key change, while 11.4 % answered a decreased amount of exercise. Many people are feeling the importance of a healthy lifestyle in this prolonged pandemic. On the other hand, more and more people are complaining about depression, exhaustion, and frustration due to social distancing (Hojoon Lee, 2020). Exercise can be a solution for this social problem. At this moment, physical activities including Taekwondo and other martial arts as a sport, can be enjoyed by an appropriate form of cultural life with timely relevance.

The boundary between time and space is becoming thinner as well. Being together with someone

may be effective in delivering the chemistry. However, it was shown that non-contact can be a good way to do most of the work. Therefore, the applications of these contactless platforms based on IT are now limitless. Online classes, work-at-home, and online conferences made the lives of modern people more efficient. This is in terms of cost, as well as time. In line with such changes, it would be possible to use home training with reasonable advantages in terms of time and space as an option.

IV. The direction of martial arts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In most cases, the prospects for Taekwondo in the field are not looking good. However, the COVID-19 pandemic is still here to stay, and the only wise solution for this is to adapt to the new normal era as soon as possible. Already, a new culture is forming, and this new culture is much more cooperative to social distancing and safety measures, as people now do not eat in their seat at a baseball park (Sports Kyeonghyang, 2020). They even cheer without making a sound. Beyond sports, martial arts, and Taekwondo, many parts of our society are adapting to the new normal. Taking advantage of this, they are creating some positive effects, as well.

First, it would be possible to teach martial arts free of the limit of time and space if the suppliers of martial arts education use online platforms effectively. We already have an app that provides 1 to 1 matching service for home-visit education sessions and online application for education. Foreign trainees who wish to train in Korea, which is the home of Taekwondo, must spend a lot of money for air travel, accommodation, meals, and tourism, etc. Online education of Taekwondo for foreigners may provide them with new opportunities to be trained by Korean coaches, while spending less time and money. If we make use of this new era of contactless, it would be possible to prepare a new online sports platform. The technology is already there, and the suppliers would have to use it wisely in order to provide the customers with the kind of education that can satisfy them.

While this may not be the solution for some martial arts or sports, there are possibilities for many sports to be held without the athletes gathering in the stadium. The 2020 Denmark International Pumsae Competition, which was scheduled in May, was postponed indefinitely, until it was thrown as an online competition. This is not the only case. Even before the International Pumsae Competition, many organizations hosted contactless Taekwondo competitions and online Taekwondo demonstrations. If many Taekwondo-related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come up with various opportunities utilizing online platforms, so that the customers may participate in Taekwondo activities more actively, the author believes it would be possible for both the online and physical aspects to develop in the post-COVID era.

Second, even while the economy is slow and people are less confident to spend their money, health is still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the people. We can take advantage of this in connection

with sports and martial arts. The author expects that if sports and martial arts can be effective in keeping you healthy and away from obesity, it would be possible to use them as contents. However,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uppliers of martial arts education to provide a well-organized education program with clear goals and super quality.

It is not only about what we see superficially. For the children or adolescents who cannot experience person-to-person activities for a reason, sports and martial arts, which take place in a social context, may help them cope with their stress and develop social skills. This, in turn, will help them with their mental health. Even though the situation is grim, food delivery businesses are flourishing more than ever. And, now people begin to understand that physical activities are important to keep one's mind, as well as body, healthy, while boosting immunity. It will take a lot of work to draw people's attention to martial arts.

Lastly, one must understand that there are always people who turn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This is also happening in the Taekwondo community, as some hardworking educators are responding to the pandemic with agility while playing their roles effectively. They worked faster and harder than the coaches of the Taekwondo gyms that went out of business. They made sure that the gym is clean and sanitary, communicated with the parents, and educated their trainees so that they can overcome COVID-19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A friend of the author saw more than 200 of his students come back to the gym, while three other gyms around his permanently closed down. While many coaches find themselves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there were some coaches whose gyms are doing fine, even during this pandemic. The primary reason why their business is still flourishing is that they educated their trainee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why Taekwondo is necessary and how fun it is.

V. Conclusion

The COVID-19 pandemic dragged the entire world into a chaotic situation. It is still lurking among us, tormenting the entire human race. Martial arts are one of its victims. The author took an approach to examine Taekwondo, represented as a tree, and then the modern society of new normal, which is represented as a forest, and then martial arts education, which is also a tree. In the field of Taekwondo education, COVID-19 is causing various difficulties both to the supplier side, which include educators, instructors, professor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and the demand side, including trainees, their parents, students, athletes, and coach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rapid movement for change to overcome th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e pandemic gave us. With the pandemic, one of the possible scenarios of the future, the age of contactless, became a reality earlier than we expected. We can now see that efforts are being made in many fields to adapt to this change. The author examined the pros and cons of the new normal era and expected that a more hopeful future is possible with an

active platform, renewed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health, and efforts from educators.

While the expression, ‘turning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may be too boring, it is the very attitude we need as sportsmen and martial artists. This is not a time to falter and whine. You need to look back on the path you have taken so far and figure out why you fell. Then, you need to dust yourself off and march on. We, the main player in the martial arts industries, must change in order to realize a brighter future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Reference

Hyunjoong Kim (2020). A Study on the Impact of COVID-19 upon Sports Activities: Focus on Golf Activit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Donggyun Yoon et al., (2020) An Analysis on th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Online Sports Activities in COVID-19 Pandemic. Korea Journal of Sports, 18(2), 21-32

Yeseul Lee et al. (2020) An Analysis of the Issues in the Field of Taekwondo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Kukkiwon Taekwondo Study, 11(3), 79-94

Hojoon Lee (2020). An Exploration of the Narrative of Home Training for Adult Men and Wom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gan University

News Articles

Sports Gyeonghyang (Hajin Kim and Hajin Choi, 2010.10.22). ‘The Schedule for the Post Season is Set. 50% Stadium Capacity Not on the Horizon, Yet.’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010220600003&sec_id=510201&pt=nv

Jose Ilbo (Sangseok Hwang, Expert, 2020.10.22). South Korea’s COVID Response is No. 1 in the World, and So is Food Order-in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0/20201022408756.html>

MHPonline Website (2020). Outbreak: 10 of Worst Pandemic in History

<https://www.mphonline.org/>

팬데믹시대 교육적가치의 택견 시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원창환

충주시립택견단

국문초록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고, 필수산업을 제외한 다수의 직종에서 재택근무가 확산되었으며 잉여시간에 사람들은 카페나 술집에서의 만남이 줄었다.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예교육과 시범단의 활동, 무예체험 프로그램 등의 움직임은 멈춰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정부지침에 따라 각 실내체육시설은 잠정적 폐쇄 또는 직접접촉을 최소화 하기위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조치사항 등으로 원활한 무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술사범과 시범 실무자들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훈련과 기량향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택견 시범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를 시작으로 시대별 택견시범 프로그램의 변화와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무예교육과 택견시범 현장의 실태 파악하며, 앞으로 무예교육 관점의 택견 시범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국가무형문화제 제76호 택견, 시범, 무예교육, 시범 프로그램, 포스트코로나

1. 서론

택견은 우리 민족과 더불어 호흡을 함께 해온 전통무예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이후 한국 강제병합과 더불어 전멸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정경화, 2002). 이러한 택견이 21세기를 넘어서 현재까지도 그 곳곳한 기상으로 역사를 써 나간다는 것에는 단연 그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택견 전승자들과 정립자 故 신한승 선생의 헌신적이고 희생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정연중, 원창환, 2019).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2011년 UNESCO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며 택견은 그 역사적 사실과 높은 기술성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와 함께 택견은 많은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발전해 오는데 시범이라는 요소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택견 시범은 관중들에게 택견의 소개를 목적으로 택견의 혼자익히기, 마주메기기, 견주기 및 본때보기, 최근에 들어서는 공연 형태의 군무등을 선보여 일반인들에게 택견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나아가서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수련의지를 유발해 택견의 보급과 전승활동에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공연 콘텐츠이다.

최근의 택견 시범 및 공연은 택견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단지 택견을 소개하는 기술적 시범에 그치지 않고 택견이 갖는 역사성과 예술성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종합예술로 거듭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택견의 시범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오며 타 무술 시범의 영향, 시대별 관중들의 요구, 다양해지는 시범적 요소들을 가미해 오며 변화의 모습을 보여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택견단체 소장자료, 시범과 관련된 각종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신문기사, 코로나19 관련 리서치 등을 분석하였다.

II. 택견의 문화재지정과 각 시대별 택견 시범

1. 전통무예 택견의 문화재 지정과 UNESCO인류무형유산 등재

전통무예의 원형보존과 개발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민족의 생명력은 문화의 우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 국가간의 물리적인 힘의 척도는 과학에 기초를 둔 무력이지만 유서 깊은 문화에서 오는 생명력은 국가의 근본을 유지시키는 역량이다. 전통무예와 스포츠를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가간의 문화와 스포츠를 통한 경쟁은 국민화합과 국가홍보 및 국가외교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조성균, 1999).

택견이 언제부터 발생되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를 정확히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구려 시대의 무용총이나 삼실총 등의 벽화를 비롯한 여러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아주 오래부터 이 땅에 맨손무예가 있었음이 틀림없지만 그것들이 택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무예의 역사는 능히 고조선 시대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의 자료만이 아니라 중국의 사료에서조차도 우리 민족이 강인하고 무예 익히기를 즐겨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단지 신채호申采浩의 조선상고사朝鮮上古事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 태조왕(太祖王: 재위 53~146)에 이르러 신소도(臣蘇塗) 대제전 행사에서 수박手搏, 격검擊劍, 사예射藝, 기마騎馬, 덕견이(택견)등 각종 무예를 겨루어 그 중 승리하는 자를 선배라 칭하여 무예武藝를 장려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오장환, 1991).

이 밖에도 간간히 비추고 있는 역사적 사료를 든다면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만물보萬物普, 어정무예도보통지 御定武藝圖譜通志, 매하선인梅下仙人, 최영년崔永年の 해동죽지 海東竹枝, 안확安廓의 조선무사영웅전朝鮮武士英雄傳, 등의 문헌이 있다(오장환, 1991).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숭문천무사상(崇文賤武思想)으로 인해 한때는 고난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동안 씨름과 더불어 흥행했던 택견은 점차적으로 쇠퇴하기에 이르렀고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민속문화를 송두리째 말살시키고 택견꾼만 보면 잡아가 이때부터 민중 가운데 즐기었던 택견은 일경日警의 눈을 피해 산과 들에서 몇몇 택견꾼들에 의해 간간히 행해져 오늘날까지 그 맥을 어렵게 이어오게 되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면면히 이어 내려온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굳건한 정신의 소산所産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명인 임호林虎 선생에 이어 87년 7월 23일 작고하신 인간문화재 송덕기 宋德基 옹 그리고 87년

7월 2일 작고하신 송암(松菴) 신한승(辛漢承) 선생이 그 맥을 계승받았고 현재는 그의 제자 2대 택견 인간문화재 정경화(鄭景和)가 그 맥을 이어 한국의 전통의 혼을 이어가고 있다(정경화, 택견원론, 2000).

이러한 과정으로 택견은 1983년 6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고, 초대 인간문화재로 故 송덕기옹과 신한승 선생이 나란히 인정되게 된다. 1987년 초대인간문화재 신한승 선생 타계 후 단체간의 갈등과 분열로 고열을 앓았으나 2011년 11월 28일 UNESCO로부터 그 역사성과 예술/창의성을 인정받아 택견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택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등재는 오랜 역사성과 높은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고 택견인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 나가야 할 문화유산임이 틀림없다.

2. 시대별 택견의 시범 프로그램(1980년대 ~ 2000년대)

80년대 택견시범 프로그램의 양상은 대부분 본대보기, 혼자익히기, 마주메기기, 견주기 등 택견의 실제 수련과정을 시범으로 풀어내 보였다. 택견 시범자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수련하고 있는 내용을 시범으로 관중에 보임으로서 그 완성도는 높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범프로그램에서 시범장소에 해당하는 공간적 요소가 체육관 등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음향, 조명, 의상 등 시범의 부수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발현되지 못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범대상에게 집중력을 이끌어 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시범요소 중 박진감을 느낄 수 있는 견주기 시범에 치중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신종근, 2017).

택견시범의 초창기(80년대) 시범은 공간적 구성요소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지역 체육행사의 노천운동장 또는 체육관, 택견의 홍보를 위한 공원등의 야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범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1983년부터 택견을 일반에 소개하고 홍보를 주도했던 초대인간문화재 및 전승자들의 공개발표는 제3회 택견 인간문화재 공개발표부터 노천극장의 형태인 서울놀이마당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당시 서울놀이마당에서 진행된 국가무형문화재종목은 택견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재 종목들도 매주 서울놀이마당에서 상설공연으로 진행되었다(신종근, 2017). 야외라는 공간의 변화는 없었지만 원형의 노천극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던 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이전의 운동장이나 체육관보다는 관중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의 내용적 변화는 크게 나타진 않았다. 여전히 전승자들과 수련자들이 평소 수련공간에서 훈련하던 서서익히기, 나아가며 익히기, 마주메기기, 견주기 등 기존의 시범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이후 1990년대로 넘어오며 시범의 공간은 무대로 옮겨지게 된다. 이때부터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 무대, 음향, 조명등의 요소가 추가되며 택견의 시범은 주제를 갖고 스토리를 부여하는 등, 이전의 기술을 선보이는 무술적 시범 프로그램에서 예술적감각을 더한 무예시범으로 거듭나게 된다.

2000년대로 넘어와서는 이러한 공연형태의 프로그램 구성에 연출자의 연출 기술이 더해져 한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다. 관중들에게 택견을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뮤지컬과 같이 음악적 요소, 시각적 자극인 조명의 도움 그리고 전문 연출가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 전통무예 택견을 좀 더 편안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이 되었다.

이후에 택견시범에서는 공연요소의 다양화와 공연적 시도로 다양한 시범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III. 팬데믹시대 택견시범의 실태

1. 택견 시범 현장의 변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종목지정 이후 택견 시범단들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국내외 초청시범과 굵직한 공연에 참여하고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등 무형문화재이자 전통무예의 전달자로서 많은 일정을 소화해 내야 했다. 특히나 꾸준한 국내 행사와 더불어 무예 또는 택견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시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택견 보급에 기여했다. 택견은 인간의 신체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과 보존과 전승가치를 목적에 두는 무형문화재의 목적을 두루 갖기 때문에 좀더 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택견 시범 프로그램이 활용되며 비교적 최근인 2019년 말까지 활발한 시범단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2010년부터 2019년 10년 동안 충주시립택견단 상임시범단의 연평균 시범횟수는 약 62회, 체험 프로그램 약 27회 그리고 해외 초청 시범 및 사범 파견은 총 32회 이상으로 적지 않은 활동으로 국가무형문화재 택견의 대표적인 시범단으로 활동해 왔다.

해외 시범 프로그램의 경우 시범과 함께 체험활동을 병행하며, 초청받는 국가의 도시 학교 또는 어린이/청소년 기관과 협조해 시범 이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재초청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그 보급 효과를 더하고 있다.



그림 1 : 2019년 폴란드33학교 초청 택견시범 직후 이루어진 택견체험. 2020년 현재 택견 국가이수자 파견으로 ICM무예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중이다.

201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관객과 양방향 소통하는 공연프로그램이 각광받음에 따라 충주시립택견단 시범단의 시범프로그램도 과거의 마당형식 공연을 선보여 상설공연에 활용하는 등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어린이 관객을 공연에 참여 시키거나 대화해 어린이 관객의 좋은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충주시에 위치한 택견원의 잠정적 폐쇄와 함께 시범단의 시범과 체험, 현장 프로그램 또한 완전히 멈추게 되며 활동이 정지된다.

2. 2020년 택견 시범 현장의 실태

2020년 3월 이후 국내 무예시범단은 택견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모든 활동이 잠정적 중단상태에 처해 있다. 연말에 다다른 최근 에서야 무관중이나 소규모의 거리두기 형태의 공연/시범 등의 활동이 이루어 지는데, 이전과 같이 시범단의 멋진 동작에 박수치고 환호하는 형태의 퍼포먼스는 가까운 미래에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것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시범단과 실무진은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적인 겨루기 훈련이 어려우며 때에 따라 격리조치가 처해지며, 개인의 기량향상과 단의 훈련이 어려워 시범의 난이도와 전체적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나마 주기적인 급여가 있는 상임 시범단의 경우는 나은 편이다. 사설전수관이나 타무술의 사설도장 등을 운영하는 사범들과 학교수업은 고사하고 하반기로 연기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은 개인활동의 문화예술인들 역시 아르바이트 없이 생계가 힘들어지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각 지자체 별로 직종별 지원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황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IV. 포스트 코로나 - 앞으로의 택견 시범 프로그램

1. 팬데믹시대 주목받는 콘텐츠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팬데믹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했고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학생, 직장의 동료, 가까이사는 가족사이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부분의 산업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시장은 정부의 지원조차도 턱없이 부족한듯 부정적 변화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항에 순풍을 타는 사업들 역시 존재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지로 지목되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유로 2020년초 세계적 평균 초반에 큰 타격을 입은 대한민국의 마스크제조업체나 방역용품 제조사들은 역대급의 계약금을 갖고 공장 앞을 찾아오는 중국인 바이어들을 막아내느라 밤샘 보초를 서야 했고, 주식시장에 상장한 백신개발업체들의 뉴스에 투자자들은 예민하게 움직였다.

물론 문화체육분야에서도 쾌조를 부른 K-시리즈들이 많이 등장했다. BTS(방탄소년단)는 여전히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며 매일 그 기록을 경신하고, 비교적 팬데믹 초반인 2월 한국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영화제 4관왕을 이루며 이름을 높였다. 한국 프로야구리그 KBO는 다른 나라의 야구리그 보다 앞서 개막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기도 했다.

이보다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 받고 있는(2020년 9월 기준) 한국의 한 밴드이다. 조선후기 8명장 중 하나인 이날치(李捺治, 1820~1892)라는 이름으로 활동중인 국악을 베이스로 하는 퓨전밴드가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라는 댄스팀과 협업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으로 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에 게시한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3개의 영상 시리즈는 편당 2000만뷰가 넘으

며 화제가 되었다(The Epoch Times - “100번을 봐도 재있다” 외국인 극찬 쏟아진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이들의 조합은 꽤나 이색적이며 한편으로는 다양한 시도가 하루가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 퓨전문화공연 분야에
서 충분히 있을 법도 한 시점에서 이러한 인기의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를 다니며 우스꽝스러운
복장의 댄서들이 재밌는 춤을 추며 들리는 음악은 한국의 전통소리인 판소리에 고수의 북소리가 아닌 현대 서양악
기 베이스와 드럼의 가벼운 연주가 다였다. 한국의 관광을 독려하는 이 영상의 인기의 이유는 무엇에 있는가? 화려
하고 다채로운 조명이나 특별한 영상의 기술적 편집, 2000년대 이후 우리 태권도시범에서 보듯 화려한 기술들이
영상에 등장하진 않았다.

메인기타도 없이 베이스는 말 그대로 박자를 맞추는데 집중하고, 보컬은 현대적으로 해석하긴 했지만 누가 들어
도 충분히 판소리 인 듯 노래를 불렀고, 댄서들은 충분히 보여 따라할 수 있을 법한 재미있는 동작들로 관광지를 소
개하고 있었다. 각자가 그저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냈을 뿐이다.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또는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섞여 새로운 장르나 창조물을 만들려 노력한 것이 아
니라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섞인 듯 섞이지 않는 느낌으로 풀어내며 동시에 해외여행이 원활하지 않은 현 시
점에 외국인들에게 “힘내고, 나중에 만나요(Cheer up the world, Meet you later).”라며 팬데믹 이후 한국으로
의 관광을 요청하며 영상은 2분 내외로 짧은 시간에 끝난다.

어쩌면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요소들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잘 풀어낸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무예시범에서는 어땠는가? 물론 태권도를 비롯한 많은 무예 시범단들은 항상 새로운 공연적 요소들을 도입하
고 실험해오며 좋은 결과를 낸 적도 있었다. 특히나 2000년대 이후 시범의 양상에서 연출자의 협업과 연기적 요소,
안무를 포함하며 새로움과 시장성을 확보하려 애썼다. 물론 일시적인 인기와 대중화에는 성공 했을지 모르나 각각
의 무예의 순수성과 동작의 독창성에 발전을 함께 확보하진 못했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택견 시범의 양상에서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입체적 공간인 무대와 음향, 시각적 자극인 조명 등
시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이 다양화되고 그와 함께 많은 시도들이 무예시범과 택견시범에서 이뤄진다. 전문 연
출가의 협업과 무대기술들이 가미되며 단지 그 무예에 대한 정보전달이 아닌 종합적 퍼포먼스가 매일 쏟아져 나온
다. 동시에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팬데믹 시대에도 활용가능한 시범자료와 교육 소스들의 전파가 반드시 활용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림 2 - 미디어 아트 공연 “TechiEon(테크이온)”

2.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교육적가치의 택견시범 프로그램 개발

최근 택견 시범에서는 많은 시도가 이뤄졌다. 한국의 박자감을 가진 사물놀이의 실황연주에 더불어 동작과 어우러지는 공연이 시도되며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등 해외 청소년과 일반관중의 호응을 얻고,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으며, 2019년에는 AI(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녹화된 영상과 음원에 시범자가 동작을 맞추는 것이 아닌 동작과 함께 미디어 아트가 움직이는 프로그램으로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세계최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 참여해 성균관대 피엠씨프로덕션 컨소이엄과 협업하여 “TechiEon(테크이온)”이란 공연으로 두차례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KBS World Radio, 오스트리아 아르스페스티벌 참가 韓 인재들 ‘호평’).

이런 다양한 도전으로 한국의 전통무예 택견의 포스트 코로나시대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대면 시범 및 교육, 전파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V. 결론 및 제언

택견의 역사적, 교육적 가치와 팬데믹 상황의 실질적 수요자인 청소년의 무예교육생태와 활동의 제한 그리고 현 상황에 택견 시범의 양상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택견은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2011년 UNESCO 인류무형유산 종목지정으로 그 교육적 가치와 전승/보급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시범단의 활동과 전승활동이 제한되며 2011년 UNESCO 인류무형유산 지정 이후 최대의 난관을 맞고 있다. 이 기간동안 택견시범의 실무자들은 초창기의 택견시범부터 최근까지의 시범양상을 되짚어 앞으로의 시대와 청소년이 요구하는 질 좋은 시범과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무대장치의 도움없이 체육관이나 야외 공터에서 이뤄지던 초창기의 시범에서 호흡과 기합만으로도 관중의 박수는 있었고, 진보된 기술의 무대장치에서 음악과 조명에 맞춰 간결히 떨어지는 동작에도 관객들은 환호했다.

어쩌면 현재 팬데믹 상황이 택견과 타 무예 시범의 다양한 시도와 결과물의 실험무대가 될 수 있다. AR, VR, AI 기술을 활용하여 화려한 영상물을 이용해 수요자(청소년)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안에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에 앞서 실제 동작 취하는 시범자들은 자신의 무예에 자신감을 갖는 이론적 바탕과 동작의 정확한 이해로 시범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류태호 버지니아대학 교육공학 교수는 “교육분야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고 교육혁신을 단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했다(프레시안 기고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의 “뉴노멀”은?). 초중고부

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며 교사중심 지식전달 위주의 현행 교육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짚은 것이다. 현 시점의 택견을 포함한 무예시범에도 연결되는 이야기다. 시범의 수요자(관객)에게 본질적 움직임과 이해보다 흥미와 화려함만을 공급한 것은 아닌지 그 무예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아닌 맹목적인 우수함만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다시 한단계 발전된 시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정경화(2000), 택견원론

오장환(1991), 택견전수교본

조성균, 남도희, 이재돈(2010), 문헌에 보이는 전통무예 택견의 역사성과 정체성.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18(3), (19-44)

신종근(2017), 택견 공개행사의 변천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연 콘텐츠로서의 발전방향 모색. 무형유산연구2, (271-291)

정연중, 원창환(2019), 택견 시범 프로그램의 변천과정과 충주시립택견단의 시범 프로그램. 태권택견학 창간호, (139-148)

기사

The Epoch Times(이서현, 2020. 9. 21.) - “100년을 봐도 재밌다” 외국인 극찬 쏟아진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연합뉴스(이웅, 2019. 9. 14.)- 오스트리아 아르스페스티벌 참가 韓 인재들 ‘호평’

프레시안 기고(류태호 버지니아대 교육공학 교수, 2020. 5. 25.)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의 “뉴노멀”은?

The Necessity of the Development of a Taekkyeon Demonstration Program with Educational Values during a Pandemic

Changhwan Won

Chungju City Taekkyeon Demoteam

Abstract

The spread of COVID-19 and the resultant pandemic have changed the lives of people in the entire world,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tc. Students now meet their teacher on a screen at home. Workers are working at home more than ever. People are not seeing others at cafes or pubs as much as they were.

However, the martial arts education, demonstration group activities, and martial arts experience programs have grounded to a halt. With the multi-level social distancing measures by the government in place, it is not possible for dojos to teach martial arts as they did with masks on and complying with other requirements. Coaches and demonstrators are also facing difficulties with their activities, so that their training and skill may be affected.

In this study, the changes and components of Taekkyeon demonstrations will be examined, starting from the 1990s. The researcher will als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artial arts education in the field and provide the necessity of the program development in terms of martial arts education.

Keywords: Taekkyeo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76), demonstration, martial arts education, demonstration programs, post-COVID

I. Introduction

Taekkyeon is a traditional martial art that has been with the Korean people throughout their history. However, the martial art faced possible extinction when the country was annexed by the Japanese (Gyeonghwa Jeong, 2002). The reason why Taekkyeon is still with us, proud and resilient, is because of the selfless dedication and sacrifice by many successors and the founder of modern Taekkyeon,

Hanseung Shin (Yeonjoong Jeong et al., 2019).

Taekkyeon was named a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in 1983 by the government (currently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esignated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by UNESCO in 2011, which was a token of the recognition of its value as cultural heritage. As such, there is no doubt that demonstration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and worldwide attention paid to this martial art.

Taekkyeon demonstrations contributed to an increased level of interest and awareness and are mainly composed of self-practicing, 1-on-1 practice, Gyeonjugi, Bontaeboegi, and, recently, group demonstration. Such demonstrations encouraged the audience to try out the martial art themselves and train in it, contributing to the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of the tradition.

The recent demonstrations and performances of Taekkyeon are not limited to promoting the martial art but also becoming more relevant as a form of integrated art, which demonstrate the history and artistic values of Taekkyeon as well as the culture of Korea. In this process, Taekkyeon demonstrations have been evolving using various strategies, with the influence from other martial arts, the demands from the audience of the time, and different and diversified demonstration factors.

The study method used herein is literature review. The researcher analyzed the materials held by Taekkyeon organizations, books on demonstrations, study reports, dissertations, periodicals, news articles, and the research on COVID-19, etc.

II. Designation of Taekkyeon as a cultural heritage

1. Designation of Taekkyeon, a traditional martial art, as a cultural heritage and enlistment as a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form of a traditional martial art and its development is very meaningful for the people. The resilience of a people is not visible, but it originates from the superiority of its culture. Of course, the scale of power between nations today is the force of violence based on science, the resilience of a people that is rooted in history and culture is the power that preserves the root of a country.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sports can be understood as a part of a culture. The competition between nations in terms of culture and sports has been used to rally and consolidate a people, in addition to being used as a means to promote the country itself and as a tool of diplomacy (Seonggyun Cho, 1999).

It is very difficult to tell exactly when Taekkyeon was borne and how it was passed down. Some relics (Mooyongchong or Samshilchong of Goguryeo) and other historical evidence suggested that there was an ancient form of barehand martial art in our history. However, there is not enough evidence to call these ancient martial arts as Taekkyeon. However, the history of Korean martial arts goes up beyond

the Goryeo era. Historical evidence of Korea as well as historical records of China testify that the Korean people were strong and good at martial arts. According to Joseon Sanggwa (The Ancient History of Joseon) by Chaeho Shin,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53-146), martial arts competitions were held during the Shinsodo festival, where contenders competed in Soobak, sword fighting, archery, horse riding, and Deokgyeoni (or Taekkyeon.) The winner of these competitions was called Seonbae, and it is believed that these records suggest the ancient Korean society encouraged its people to train in martial arts (Janghwan Oh, 1991).

Other historical evidence include Goryeosa (高麗史), Joseonwangjoshilok (朝鮮王朝實錄), Shinjeongdongukyeojiseongram (新增東國輿地勝覽), Mamoolbo (萬物普), Eojeongmooyedobotongji (御定武藝圖譜通志), Maehaseonin (梅下仙人), Haedongjukji (海東竹枝) by Yeongnyeon Choi and Yongbyon Joseon Musa Yeongwoongjeon (朝鮮武士英雄傳) by Hwak Ahn.

It is known that the martial art had to endure a harsh time during the Joseon era, as the society respected literature and knowledge more than it did the various forms of martial arts. As a result, Taekkyeon, which was a popular martial art along with Ssireum, lost its popularity. After the Annexation by the Japanese in 1910, the Japanese tried to massacre Korean culture and arrested any Taekkyeon martial artist they found. Consequently, the ever-popular martial art of Taekkyeon had to take refuge at the deepest woods and hills, where a handful of Taekkyeon martial artists secretly passed on the teaching until today. This is the fruit of the resilience and tenacity of Korean spirit, dedicated to protect the tradition and legacy of the Korean people.

Some of the successors who passed on the legacy of Taekkyeon included the famous Master Ho Li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uman Cultural Heritage Master Deokgi Song, who passed away on July 23, 1987, and Master Hanseung Shin (a.k.a Songam) who passed away on July 2, 1987. The legacy and spirit are now passed on to the 2nd generation Human Heritage of Taekkyeon, Master Gyeonghwa Jeong (Gyeonghwa Jeong, An Introduction to Taekkyeon, 2000).

As a result, Taekkyeon was designated as the 76th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June 1, 1983. The two old masters, Master Deokgi Song and Master Hanseung Shin, were both recognized among the first Human Cultural Heritages. After Master Shin passed away in 1987, there were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organizations that ailed Taekkyeon. However, UNESCO finally recognized the historic and creative values of Taekkyeon on November 28, 2011, to be enlis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UNESCO, making Taekkyeon a cultural heritage not only for Koreans but also the entire humanity.

The designation of intangible heritage and enlistment confirmed the historic, artistic, and cultural values. This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ekkyeon is a cultural heritage that must be protected and cherished by all Koreans.

2. History of Taekkyeon demonstration programs (1980s - 2000s)

Most of the demonstrations of Taekkyeon during the 80s were composed of Bondaeboggi, single practice, Majumegigi, and Gyeonjugi, showing the actual practice of Taekkyeon. The demonstrators repeated their actual practice routine to the audience, contributing to the high level of integrity of these demonstrations. However, the fact that the venues of these demonstrations were limited to gyms and there were no supportive elements such as sound, lighting, or costume,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have the audience's attention locked on the performances, because the said elements were not working in harmony with one another. For this reason, these programs depended heavily on Gyeonjugi demonstrations, which were more thrilling (Jonggeun Shin, 2017).

Demonstrations during the early days of Taekkyeon (80s) were highly limited in terms of their locations.

Those demonstrations took places in sports parks, gyms, and other outdoor space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aekkyeon, without sufficient equipment. The early human cultural heritages that introduced and promoted Taekkyeon to the public since 1983 held their open demonstrations at Seoul Nori Madang, which was an open outdoor theater, since the 3rd Open Human Cultural Heritages demonstration. During this time, Seoul Nori Madang hosted the demonstrations of many other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an Taekkyeon, and these shows were scheduled on a regular basis (Jonggeun Shin, 2017). Since this new place was an outdoor theater, it was more convenient to engage the audience compared to gyms or parks in the past. However, the contents of these programs did not change much. The successors and trainees repeated their actual training routines, such as standing practices, forward practices, Majumegigi, and Gyeonjugi.

Then, starting from the 1990s, demonstrations were performed on stage. It was from this time that professional stages, lightings, and sounds were added. The demonstrations themselves introduced stories and themes. With all these, Taekkyeon demonstrations evolved into demonstrations of martial arts with a sense of art, rather than as technical performances alone.

In 2000, these performance programs became even more sophisticated with the support of the directors' skills. They went beyond introducing Taekkyeon to the audience but added music and visual stimulation by lighting. The structure of the contents also upgraded a demonstration into a show, so that the traditional martial art of Taekkyeon became more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Since then, Taekkyeon demonstrations included more diverse show elements and new ideas, giving them more variety.

III. The current situation of Taekkyeon demonstrations in a pandemic

1. Changes in demonstrations of Taekkyeon

Since the designation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by UNESCO in 2011, demonstration groups enjoyed increasing popularity. They participated in major performances and were exposed in various media. They had to work on a busy schedule as a propagato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traditional martial art. They even staged these demonstrations overseas, contributing to the popularity of Taekkyeon, on top of their existing domestic schedule. Since Taekkyeon is a type of physical activity focused on physical movements as well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more focused on preservation and legacy, Taekkyeon demonstration programs were being used more widely and with more diversity. The demonstration teams were very busy until the end of 2019.

For example, over a ten-year period from 2010 to 2019, the municipal Taekkyeon demonstration team of Chungju performed 62 times on average per year, with 27 experience programs and 32 overseas performances (or dispatch of coaches), serving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Taekkyeon demonstration team.

Overseas demonstration programs included experiential programs as a part of the demonstration so that the children or adolescents of the host country or city participated in an experiential program after the show. This further contributed to increased popularity and awareness of Taekkyeon, with some cities asking the team to visit again in the future.



Fig. 1: Taekkyeon experience after a demonstration for 33 schools in Poland, 2019 As of 2020, there is an ICM Martial Art Experience School Program, which is provided by a national license holder of Taekkyeon dispatched from South Korea.

Since 2010, interactive performances have become more popular, so that the Chungju demonstration team embraced an element of traditional ‘yard theater.’ This was a great success, and young audiences especially liked such participation or interactions during a show.

However, since the indefinite shutdown of Taekkyeonwon, located in Chungju in April 2020, the demonstration and experience programs of the demonstration team came to a complete stop.

2. Current situation of the Taekkyeon demonstration field

Since March 2020, demonstration teams in South Korea, not only for Taekkyeon but also other martial arts, shut down their operation. Only very recently, some performances or demonstrations are being thrown without any audiences or with only a small number of them, who are spread thinly due to social distancing. As such, it would no longer be possible to expect such enthusiastic, interactive performances where the audience cheer with the performances, in the near future. However, there are more problems. As outdoor activities are limited and it is not as easy as it was if one has to wear masks and spar with another, sometimes the trainees had to be isolated. The difficulties in training made it impossible to improve the skills of the individual team members, as well as in groups, degrading the overall quality and difficulty level of demonstrations. However, these full-time demonstration teams had it easier, due to their regular income. Instructors in private training centers or gyms of other martial arts as well as individual performers were hit hard because many of the scheduled yearly events were canceled, putting their livelihood at risk because it is now even difficult to find part-time jobs to support them.

Local governments are providing support to them. However, in many cases, these are far from being enough.

IV. Post-COVID: Taekkyeon demonstration programs of the future

1. Popular contents during a pandemic

As mentioned above, the COVID-19 pandemic changed our daily lives significantly. People had to follow social distancing rules and other regulations. This created changes among teachers, students, coworkers and even families. Many industries and economies shrunk, and the markets dropped even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However, some businesses managed to thrive in this situation. Mask factories and PPE makers had to stand guard in early 2020 because of the waves and waves of Chinese

merchants with piles of money at hand demanding these products. Also, the investors responded keenly to the news on companies developing a vaccine.

There were many success stories for Korea in the field of culture and sports as well. BTS is breaking its own records thanks to the group's worldwide popularity. In February, the early days of the pandemic, a Korean movie 'Parasite' won four glorious Oscars. KBO, the South Korean baseball league, resumed their games ahead of other countries, gaining worldwide attention, as well.

However, in the context of this study, a band in South Korea is especially noteworthy due to its recent global fame (as of September 2020). The band, named after Nalchi Lee (1820-1892), who was one of the top 8 singers of the late Joseon era, is a fusion band based on traditional Korean music. In collaboration with a dance team named Ambiguous Dance Company, they opened their official YouTube channel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 Tourism Corporation. In their channel, named 'Imagine your Korea,' a three-part video series titled 'Feel the Rhythm of Korea' hit more than 20 million views per part, which gained considerable attention. (The Epoch Times - "It never gets old" - A promotional video of Korea Tourism Corporation was praised by foreign viewers.)

Their collaboration is very unique but still highly expected in the theater of fusion cultural performances, where new attempts are made every day, and this was the key factor behind their success. The dancers in funny costumes danced in famous South Korean tourist destinations and historical sites. The background music was a traditional sound of Pansory mixed with modern musical instruments like base and drum. Why is this video, which is a promotional video to boost tourism in South Korea, so special and successful? There were no fancy lightings, special effects, and professional editing skills to be found in the video. Neither were there splendid techniques and moves as shown in Taekwondo demonstrations since the 2000s.

Without the main guitar, the base literally focused on the rhythm, while the vocal, which was a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song, was still easily recognizable as traditional Korean music. The dance moves were funny but not too difficult to follow, as they introduced the tourist destinations to the viewers. Each member was just doing his/her part.

In the video, they do not attempt to make a new genre or novel creation by mixing the modern, familiar, or non-familiar things. They unfold these elements, which appear to be mixed up yet are somewhat independent from one another. Then, the video says 'Cheer up world, see you later' to foreigners, at a time when overseas travel is very difficult, in order to encourage them to visit South Korea after the pandemic, concluding this short two-minute video.

The author believes the success of this video owes to a good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trend, including all the things people want these days.

What was the case with martial art demonstrations? Of course, Taekwondo and many other martial

arts demonstration groups are embracing theatrical elements and new experiments, sometimes with great success. They have been cooperating with professional directors since the 2000s, introducing acting and choreography, to show something new and seize the market. Of course, they could have gained momentary popularity and awareness. However,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to secure the purity of martial arts and creativity of moves at the same time.

Since 2000, many new attempts were made in martial art demonstration and Taekkyeon demonstrations, with theatrical elements, stages, better visual effects and sounds, which were originally intended for performing arts. With the integration of professional direction and stage technologies, we now see a steady stream of comprehensive performances, rather than mere informative presentations of a certain martial art. At the same time, the demonstration data and educational sources that could be derived from them must be utilized via network during a pandemic.



Fig. 2 - Media art performance “TechiEon”

2. Development of a Taekkyeon demonstration program with educational value during a pandemic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in Taekkyeon demonstrations. These new attempts included VR and AR education materials, as well as staging demonstrations performed with Samulnori, which is a traditional form of Korean music with a unique sense of rhythm. These were well-received by the adolescents and adults of Poland, Uzbekistan, Brazil, and many other foreign countries. In 2019, they presented ‘TechiEon,’ a state-of-the-art performance staged during Ars Electronica, which is one of the largest media art festival in the world held in Linz, Austria. This performance allowed the images shown on the screen to reflect the moves of the performer, rather than the performer making moves according to the images shown on the screen. As a result, all tickets for

the two shows of this performance were sold out. (KBS World Radio, “Korean Talents Celebrated during Ars Festival.”)

The author hopes these successes can be helpful in the non-contact-based demonstrations, education, and promotion activities utilizing a network in the post-pandemic era.

V. Conclusion and Suggestions

With the limitations imposed in martial arts ecosystems and activities for adolescents who are the actual customers, current Taekkyeon demonstrations require changes in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and educational values of Taekkyeon.

Taekkyeon has been designated a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currently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1983 and a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in 2011. With this, emphasis on educational values and transmission/proliferation activ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However, with the pandemic, the activities of demonstration groups and transmission activities are restricted. This is the biggest challenge Taekkyeon faced since the designation by UNESCO in 2011. Over the course of the current crisis, the frontline workers of Taekkyeon demonstrations must look back on trends of Taekkyeon demonstrations from the early days till present, so that they can come up with high-quality demonstrations and educational materials that are current and relevant to adolescents.

Even during the early days, simple demonstrations in empty outdoor spaces, where the only sound you could hear were the cries and breaths of the performers, were applauded by the audience. They still cheer the performers with the fancy music, lighting, and simple but well-synchronized moves.

This pandemic can serve as a testing ground for new ideas for demonstrations of Taekkyeon and other martial arts. With the AR, VR, and AI technologies, fancy videos can surely draw the attention of the customers (adolescents.) However,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the intended information is delivered to the audience without fail.

Before that, the performers would have to engage in their demonstrations based on the level of confidence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ories and precision in their martial arts moves.

Professor Taeho Ryu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 said that “the field of education must find this as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determine the essence of education and engage in the reform of education.” (Prussian - “What is the New Normal after COVID-19?”) This points to the issues that are exposed within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which is all about the delivery of knowledge centered around teachers, as most of classroom education switches to online. This lesson is also relevant to martial art demonstrations, including Taekkyeon. We need to look back on our past mistakes, as we might have provided customers (audiences) with entertainment and splendor only, rather than the essential moves and understanding. We may also have sought only the superiority of the martial art, rather than it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With this, we would have to develop the demonstration program for the next level.

Reference

Gyeonghwa Jeong, Introduction to Taekkyeon, 2000

Session / 3

Janghwan Oh, Taekkyeon Training Manual, 1991

Seonggyun Cho et al, 'The History and Identity of Taekkyeon, a Traditional Martial Art, in Records,' 2010

Jonggeun Shin, 'A Review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aekkyeon Demonstrations as Sustainable Performance Contents based on the History of Open Taekkyeon Demonstrations.' Intangible Heritages, 2017

Yeonjoong Jeong et al., Field Study - The History of Taekkyeon Demonstration Programs and the case of Chungju Municipal Demonstration Group, 2019

2020 International Martial Arts Academic Seminar

72, Olgat-gil, Chu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82-43-845-6748 | **Fax** +82-43-850-7349

Web unescoicm.org | **Email** unescoicm@unescoicm.org